
한일관계사학회

제220회 열례발표회

일시 : 2025년 9월 13일(토) 오후 2~6시
장소 : 한성백제박물관 B1 회의실

차례

사회 : 이훈(한림대학교)

제1발표

1512년 조선과 대마도의 壬申約條 체결과
僞使 문제

발표 : 한성주(강원대학교)
토론 : 송중호(방송통신대학교)

제2발표

무진년 조선통신사 귀로에서의 갈등과 해법

발표 : 다사카 마사노리(전문대학교)
토론 : 이재훈(동의대학교)

제3발표

산스크리트(संस्कृत)어로 본 고대국가 및
군주

발표 : 최은하(광운대학교)
토론 : 청중 토론

제1발표

1512년 조선과 대마도의 壬申約條 체결과
僞使 문제

발표 : 한성주(강원대학교)
토론 : 송종호(방송통신대학교)

【제1주제】

1512년 조선과 대마도의 壬申約條 체결과 僞使 문제

한성주(강원대)

◆ 차례

1. 머리말
2. 1511년 일본국왕사 弼中の 1차 교섭
3. 1512년 少貳殿使의 통교와 그 실체
4. 1512년 弼中の 2차 교섭과 임신약조 체결
5. 맺음말

1. 머리말

1510년(중종 5) 三浦倭亂이 일어났다. 즉, 그해 4월 三浦에 거주하는 恒巨倭가 봉기하였고, 6월에는 倭船 250여 척이 安骨浦에 들어와 성을 공격하였는데,¹⁾ 이를 합쳐서 三浦倭亂이라고 하며, 당시 조선에서는 ‘庚午年 倭變’이라고 불렀다. 1512년(중종 7) 조선은 弘文館을 시켜 『東國兵鑑』에 ‘경오년 왜변’의 事跡을 편찬하게 하였는데,²⁾ 이때 ‘경오년 왜변’이란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다.³⁾

삼포왜란의 직접적인 요인은 성종대 이래의 엄격한 교역 통제책과 연산군대 운영상의 모순에 대한 對馬島人の 불만, 그리고 중종대 다시 조선측의 엄격한 통제에 따른 통교 왜인들의 저항이라고 할 수 있다.⁴⁾ 삼포왜란이 발생하자 조선은 對馬島와의 관계를 중단시켰지만, 1년 후인 1511년 日本國王使가 와서 和議를 요청하였고, 조선에서는 삼포왜란의 首謀者 등의 처벌을 요구하는 등 화의 조건을 제시하였다. 다음 해인 1512년 일본국왕사가 조선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다시 조선에 오자, 조선은 壬申約條를 체결하여 對馬島와의 교역을 재개하였다. 그러나 임신약조는 癸亥約條에 비해 歲遣船의 半減 등 對馬島에 대한 대폭적인 경제적 제한을 가한 것으로 조선의 강경한 입장이 반영된 것이었다.

삼포왜란은 조선 전기 조·일관계를 변화시킨 일대 사건으로, 그동안 삼포왜란의 배경과 전개 과정, 영향과 성격, 임신약조의 체결과 조선의 對日통교정책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의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⁵⁾ 다만, 삼포왜란에 비해 임신약조에 대한 연구는 다소 적은 편이다. 특히

1) 『중종실록』 권11, 중종 5년 4월 8일 기사; 6월 30일 갑인.
 2) 『중종실록』 권15, 중종 7년 1월 5일 신해
 3) 본고에서는 이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삼포왜란’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4) 하우봉, 「일본과의 관계」, 『한국사 22-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국사편찬위원회, 1995, 390~391쪽.
 5) 이현중, 「三浦倭亂原因考」, 『海園黃義敦先生古稀紀念史學論叢』, 1960; 「三浦倭亂後 對倭交涉再開始末에 對하여」, 『역사교육』 5, 1961; 「三浦倭亂後 倭人接待貿易에 對하여」, 『한일문화』 1-1, 부산대 한일문화연구소, 1962; 中村榮孝, 「三浦における倭人の爭亂」, 『日鮮關係史の研究』 上, 吉川弘文館, 1965; 「朝鮮中宗의 對日約條更定 - 壬申約條의 成立とその廢棄 -」, 『朝鮮學報』 53, 1969; 村井章介, 『中世倭人傳』, 岩波書店, 1993; 이재범, 「三浦倭亂의 歴史的 性格에 대한 再檢討」, 『한일관계사연구』 6, 1996; 하우봉, 「조선 전기 부산과 대마도의 관계」, 『역사와경계』 74, 2010; 심민정, 「삼포왜란의 발생원인과 대마도」, 『동북아문화연구』 1-34, 2013; 남택주, 「三浦倭亂과 對日관계의 변화-대마도와의 관계에 국한하여-」, 청주대 석사학위논문, 2013; 구자원, 「16세기 전반 조선의 대일통교정책 변화와 約條」,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18; 이형배,

임신약조 체결 과정에 대해서는 僞使⁶⁾ 문제와 관련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443년(세종 25) 조선은 대마도와 船數 50척을 定額으로 하는 癸亥約條를 맺었지만, 1445년(세종 27) 대마도주 宗貞盛은 조선에 歲遣船 20척의 증액을 요구하였다. 또 1455년(단종 3) 대마도에서 50척이 넘는 배를 보내오자, 조선은 敬差官 元孝然을 대마도에 파견하여 1년 50척이라는 船數를 재확인하였다.⁷⁾ 즉 세견선 확대 가능성이 없는 대마도주는 소위 深處倭라 부르는 대마도 이외의 통교자 名義를 이용한 僞使를 파견하였으며, 이는 15세기 중반부터 시작되었다.⁸⁾ 그런데, 삼포왜란 이전에는 幕府 將軍의 측근이나 일본 본토의 豪族들이 주로 위사(일본국왕사)를 파견하였으나, 삼포왜란 이후에는 주로 對馬島주가 위사(일본국왕사)를 파견한 점이 주목된다.⁹⁾

본고에서는 이러한 연구 시각을 반영하여, 삼포왜란 이후 임신약조 체결 과정을 재검토하고, 이를 위사 문제와 연결해 보고자 한다. 즉 삼포왜란 이후 임신약조를 체결하기 위해 조선에 온 일본국왕사 자체가 위사였을 가능성이 있고, 이후 임신약조를 개정하기 위해 대마도가 僞日本國王使를 조선에 계속해서 보냈다는 사실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또 임신약조 체결 과정 중 조선에 온 少貳殿의 使送이 일본국왕사와 대마도에 의해 창출된 僞使였음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임신약조로 인해 세견선이 50척에서 25척으로 줄어든 대마도가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深處倭 名義의 僞使를 더욱 창출해 갔음을 재확인해보고자 한다.

현재 위사에 대한 연구는 한국보다 일본에서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그렇지만 아직 조선 전기 朝日관계에서 위사에 대한 개념과 발생 배경, 현황과 구조적 문제 등에 있어서는 연구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일본측 연구 결과를 대체로 수용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이를 통해 한국에서의 僞使 연구에 대한 관심과 문제 제기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2. 1511년 일본국왕사 弼申의 1차 교섭

삼포왜란 1년 후인 1511년(중종 6) 4월 일본국왕사 弼申이 조선에 와서 강화를 요청하였다.¹⁰⁾ 당시 조선에서는 대마도가 일본국왕사를 거짓으로 칭탁[假托]하고 보내온 것인지 확인

「삼포왜란후(三浦倭亂後) 모재(慕齋) 김안국(金安國)의 대일외교(對日外交) 논리와 전략」, 『해양유산연구』 15, 2021.

6) 僞使의 개념과 연구 현황에 대해서는 田代和生·六反田豊·吉田光男·伊藤幸司·橋本雄·米谷均, 「僞使」, 『한일 역사공동연구보고서 - 중·근세사 일본편』,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2005; 한문종, 「조선전기 倭人統制策과 통교 위반자 처리」, 『왜구·위사 문제와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2005(a); 「僞使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일 역사공동연구보고서 - 중·근세사 한국편』,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2005(b); 荒木和憲, 「16世紀日朝交流史研究の学説史的檢討」, 『第2期 日韓歴史共同研究報告書(第2分科会編)』, 日韓歴史共同研究委員会, 2010(「16세기 日朝交流史 연구의 학설사적 검토」,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3권); 한문종, 「조선전기 한일 관계사 연구의 학설사적 검토」, 『전북사학』 28, 2011; 한성주, 「1443년(세종 25) 癸亥約條의 船數 문제에 대한 재검토」, 『한일관계사연구』 87, 2025 참고. 특히 이중 한문종은 위사라는 용어보다는 ‘통교위반자’라고 부르는 것이 훨씬 타당하다고 한 점이 주목된다. 본고에서는 일단 논지 전개를 위해 ‘위사’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7) 한성주, 앞의 논문, 2025 참고.

8) 長節子, 『中世国境海域の倭と朝鮮』, 吉川弘文館, 2002, 291~294쪽; 荒木和憲, 『中世對馬宗氏領國と朝鮮』, 山川出版社, 2007, 67쪽; 伊藤幸司, 『中世の博多とアジア』, 勉誠出版, 2021, 168~169쪽 등 참고.

9) 한문종, 「壬辰倭亂 직전의 국내정세와 韓日關係」, 『인문과학연구』 21,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9.

10) 『중종실록』 권13, 중종 6년 4월 13일 임진.

시켰고, 일본국왕사 弼中을 따라온 사람 중에 대마도 및 三浦에 거주했던 사람은 접대하지 말도록 하였다.¹¹⁾ 이에 弼中과 함께 서울에 올라온 사람들은 16인에 불과하였다.¹²⁾

弼中은 1501년(연산군 7)에도 조선에 일본국왕사로 와서 大藏經을 받아갔던 적이 있었다.¹³⁾ 그런데 1501년 弼中이 조선에 온 것은 사실 일본국왕에 의해서가 아니라, 幕府로부터 牙符¹⁴⁾를 입수한 大內義興(大內殿)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¹⁵⁾ 즉 그는 僞日本國王使¹⁶⁾였는데, 아부를 소지해 걸으로는 일본국왕사였지만, 실제로는 大內殿의 使臣이었다. 그렇지만, 1501년 그의 조선 遣使 배경에는, 大內氏와 足利義植의 존재가 크게 관련되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¹⁷⁾ 즉, 당시 明使의 政變(1493년)에 의해서 將軍位가 폐위되고, 大內氏의 밑에서 流寓하던 前將軍 足利義植이 관여한 사절로 생각되기 때문이다.¹⁸⁾ 물론 조선에서는 당시 이러한 사실이나 일본의 정세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 없이 그를 일본국왕사로 대우하였을 것이다.¹⁹⁾

조선에 온 弼中은 스스로 ‘두 차례 중국에 조회하러 가고, 두 차례 琉球에 방문하였으며, 세 차례 조선에 왔다’고 하였다.²⁰⁾ 또 그는 재능이 많고 영리하며 교활하고, 모든 글을 博覽하였다고 하며, 스스로 대략 옛글을 안다고 자부하였다.²¹⁾ 또 그는 詩文에도 매우 뛰어나 宣

- 11) 『중종실록』 권13, 중종 6년 4월 13일 임진.
- 12) 『중종실록』 권13, 중종 6년 5월 21일 경오.
- 13) 『연산군일기』 권43, 연산 8년 4월 20일 신유; 『중종실록』 권13, 중종 6년 5월 14일 계해
- 14) 조선과 일본과의 牙符制는 僞王城大臣使의 통교를 막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 1474년(성종 5) 足利義政의 요청에 의해 조선이 일본국왕사 正球에게 牙符를 발급하였으며, 1482년(성종 13) 일본국왕사 榮弘이 제1 아부를 후대하고 통교하면서 발효되었다(橋本雄, 『中世日本の國際關係-東アジア通交圈と偽使問題-』, 吉川弘文館, 2005, 14-64-278쪽; 米谷均, 「十六世紀日朝關係における偽使派遣の構造と実態」, 『歴史研究会』 697, 歴史研究会, 1997, 2쪽). 『성종실록』 권50, 성종 5년 12월 15일 병신; 권102, 성종 10년 3월 25일 신사; 권140, 성종 13년 4월 9일 정미. 김동현은 이 아부에 대해 ‘象牙製 通信符’라고 한 점이 주목된다(김동현, 「중세 후기 大內氏의 對 朝鮮통교」,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21, 46~48쪽).
- 15) 橋本雄, 위의 책, 2005, 213쪽. 일본에서는 1467년 ‘應仁의 亂’과 1493년 ‘明應의 政變’이 발생하면서, 室町幕府의 국내 통치가 흔들렸고, 戰國時代로 들어가게 되었다. 특히 明應의 政變으로 足利義植이 폐위(1493년)되었다가 복위(1508년)되는 과정에서 將軍이었던 足利義植과 足利義澄은 자신의 지지 세력에게 조선의 牙符와 明의 勘合을 贈與하거나 折賣하기도 하였다(이에 대해서는 橋本雄, 위의 책, 2005, 참고).
- 16) 伊藤幸司, 위의 책, 2021, 180-217쪽.
- 17) 伊藤幸司, 『中世日本の外交と禪宗』, 吉川弘文館, 2002, 152쪽.
- 18) 橋本雄, 위의 책, 2005, 193쪽. 1501년 弼中의 파견 배경에 大內義植이 관여된 것에 대해서는 伊藤幸司의 저서에도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다(伊藤幸司, 위의 책, 2002 및 2021, 참고).
- 19) 그런데 1501년 弼中이 조선에 왔을 때, 그와는 다른 僞日本國王使 일행이 있었던 것 같다. 弼中이 金勘(1466~1509)에게 글을 보내 ‘國君의 聘書에 符驗의 有無를 구애함은 寬裕의 道가 아니다’고 하자, 김감은 兩國 사이에 맺어진 故事를 설명한다면서 ‘符驗의 일은 처음에 조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지난 갑오년(1474년) 일본의 使僧 正球首座가 일본국의 書契를 가지고 와서, ‘근년에 使者가 서신을 써서 講求한 것은, 모두 奸賊의 所爲이다. 이제부터 다행히 通信은 信印이 있으니, 이것으로 증험을 삼자’고 하여, 조선에서 牙符 10枚를 만들어 왼쪽은 內府에 수장하고, 오른쪽은 일본에 보내어, 이후로 信使가 오면 모두 부험을 건주어 증험을 삼기로 하였다’라고 자세히 설명하였다. 그리고 김감은 弼中의 ‘海邦 臣子가 이 일을 듣고 보면 어찌 분개하지 않겠는가?’라는 표현에 대해 弼中이 친구와의 사사로운 좋음만 생각한다고 비판하면서, ‘足下는 친히 信書를 받들고 겸하여 右符를 가지고 조선에 來聘하여 곡진한 예우를 받았으나, 慶譽 일행은 맞출 부험이 없어 물리쳐 돌려보냈다’라 하였다(『續東文選』 권12, 書, 再答弼中書, 金勘). 이를 보아 1501년 弼中과는 다른 僞日本國王使 慶譽 일행이 조선에 왔으나, 아부(부험)가 없어서 조선으로부터 입국이 거부되었음을 알 수 있다.
- 20) 『명종실록』 권17, 명종 9년 9월 15일 계축; 『慕齋集』 권15, 付祿, 先生行狀. 이 외에도 弼中은 스스로 중국에 조회하거나 이웃 나라에 방문한 것이 2~3차례나 되었다고 하고 있다(『燃藜室記述』 권지8, 中宗朝故事本末, 己卯黨籍, 金安國; 『東國輿地志』 권1, 京都, 漢城府, 人物, 本朝, 金安國; 『記言別集』 권26, 行狀, 慕齋金先生行狀). 그의 언급은 1511년이 아닌 1512년의 언급이었을 것이다.

慰使였던 金安國과의 詩文 관련 일화가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다.²²⁾ 붕중은 博多 지역에서 활동하는 臨濟宗 幻住派 禪僧이었는데, 당시 幻住派는 大內氏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聖福寺를 거점으로 일본의 대외 교류에 관여해 왔다.²³⁾ 이에 그에 대해서 ‘제1급의 外交僧’²⁴⁾, ‘聖福寺를 활동의 場으로 하는 臨濟宗 幻住派의 대표적 外交僧’²⁵⁾이라고도 평가하기도 한다. 1511년과 1512년 조선을 다녀온 붕중은 1513년 將軍 足利義植에게 公帖을 받아서 博多 聖福寺의 住持가 되기도 하였다.²⁶⁾

결국, 弼中이 1511년(중종 6)에 일본국왕사 된 것은 對馬宗氏와 大內氏의 군사적 화목이라는 정치적 상황을 바탕으로 對馬島主와 博多의 밀접한 관계 아래에서 전통적 외교 활동의 경험이 있었고, 또 앞서인 1501년(연산군 7)에 足利義植(실제로는 大內氏의 파견)의 使節로서 朝鮮에 다녀온 것이, 바로 對馬島主에 의한 그의 기용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²⁷⁾ 이에 1501년과 마찬가지로, 1511년 일본국왕사 弼中에 대해서 僞日本國王使²⁸⁾, 대마도로부터의 僞裝使²⁹⁾, 대마도가 가짜의 일본국왕사를 만든 것³⁰⁾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대마도가 일본국왕사를 만들기 위해 牙符를 가지고 있던 大內殿과 조선과의 외교 활동 경험이 있는 붕중에게 일종의 청부를 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³¹⁾

당시 조선에서도 선위사를 내려보내면서, 鎭將이 일본국왕사에게 符驗과 書契를 일일이 보이게 하고, 서계를 등사해서 서울로 올려보내게 하였는데,³²⁾ 여기서 부험은 바로 아부를 말하는 것이다. 이후 조선이 弼中을 일본국왕사로 대우하였으므로, 그는 아부를 소지하였음을 알 수 있고, 조선은 아부와 일본국왕의 서계를 근거로 弼中을 진짜 일본국왕사라고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弼中이 아부와 서계를 소지하였더라도 일본국왕이 아닌 제3자에 의한 파견이라면, 당시 그는 위사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511년 서울로 올라오면서 弼中은 선위사에게 화친을 먼저 말하였고, 선위사는 ‘조선 조정 에 弼中의 말이나 안색을 보면, 오로지 화친을 위해 왔다’³³⁾고 보고할 정도도 弼中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삼포왜란으로 관계가 단절된 조선과 대마도와의 화친이었다. 동년 5월 일본국왕사 弼中은 서울에 올라와 일본국왕사 및 大內殿의 書契를 가지고, 화친은 일본국왕[扶桑殿下]의 뜻이며, 동시에 大內殿의 뜻이라고 말하였다.³⁴⁾ 이는 삼포왜란으로 조선과 단교가 된 대마

21) 『중종실록』 권15, 중종 7년 5월 30일 계유; 권16, 중종 7년 윤5월 27일 경자

22) 『海東雜錄』 2 本朝 金安國; 『大東野乘』 권지4, 「稗官雜記」 1-「清江先生鯨鱗瑣語」 清江先生詩話·「東閣雜記」 하, 本朝濬源實錄 2; 『燃藜室記述』 권지8, 中宗朝故事本末, 己卯黨籍, 金安國; 『己卯錄補遺』 상권, 金安國傳; 『慕齋集』 권1·권3·권5·권10 등. 弼中이 시문에 뛰어났다는 것을 통해 外交文書 작성에도 관여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23) 伊藤幸司, 앞의 책, 2021, 318-320-368쪽.

24) 伊藤幸司, 앞의 책, 2002, 152쪽.

25) 橋本雄, 앞의 책, 2005, 293쪽.

26) 伊藤幸司, 앞의 책, 2002, 151쪽.

27) 伊藤幸司, 앞의 책, 2002, 270-291쪽.

28) 橋本雄, 앞의 책, 2005, 238쪽, 주9; 伊藤幸司, 앞의 책, 2021, 180-218쪽.

29) 田代和生·米谷均, 「宗家旧蔵「図書」と木印」, 『朝鮮學報』 156, 1995, 21쪽.

30) 長節子, 앞의 책, 2002, 11쪽.

31) 임신약조 이후, 16세기 牙符를 획득했던 大內氏의 청부 통교에 대해서는 須田牧子の 지적이 있지만(須田牧子, 『中世日朝關係と大內氏』, 東京大学出版会, 2011, 71~78), 여기서는 반대로 대마도가 大內氏와 弼中에게 조선과의 화의를 청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32) 『중종실록』 권13, 중종 6년 4월 13일 임진.

33) 『중종실록』 권13, 중종 6년 5월 21일 경오.

도주가 특송을 파견해서 혼자 힘으로 강화 교섭을 하는 것보다 일본국왕사에게 강화 교섭을 맡긴 것이었다.³⁵⁾

또 弼中은 삼포왜란 때 잡혀간 被擄人인 漆原將校 諸者(57세), 日守 崔孝同(30세), 學生 丁 漢明(25세) 3명을 송환하기도 하였다.³⁶⁾ 당시 대마도에서 송환된 諸者 등은 ‘대마도가 순전히 조선의 힘을 얻어 사는데, 처자가 모두 굶주린다’, ‘대마도에는 田地가 없으니, 근일에 모두 사망하게 될 것이다. 차라리 죽더라도, 조선의 옛 땅에 돌아가고 싶다’는 등 대마도 사람들의 말을 전하였고, 대마도가 가뭄이 심하여 침뿌리를 먹는데 왜인들의 모습이 초철했었다는 모습을 전하기도 하였다.³⁷⁾ 이를 보면 삼포왜란 후 대마도는 조선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경제적 상황이 매우 안 좋은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일본국왕사 弼中은 조선의 대신들에게 여러 차례 화친을 요청하였고, 별도로 조선의 禮曹에 대마도가 화친을 청한다는 뜻의 明文과 書契를 보내기까지 하였다.³⁸⁾ 조선은 弼中이 화친을 거듭 요청하고, 정문과 서계를 써서 올리기까지 하자, 마침내 대마도주가 마음을 고쳐 누우치고 사과하며 반란한 무리를 모두 죽여서 그 머리를 바친다면, 삼포에는 살도록 할 수 없지만, 화친의 청을 다시 생각하겠다고 대답하였다.³⁹⁾ 그리고 弼中이 대마도 외에 여러 섬에 거주하는 왜인[諸島居倭]들이 조선에 나오려고 한다고 하자, 조선에서는 여러 섬의 왜인[深處倭人]들이 來朝한다면, 옛날과 같이 倭館에서 접대하겠다고 하였다.⁴⁰⁾ 弼中은 특히 少貳殿(少二殿, 小二殿)이 나오도록 청하는 서계를 조선에 보냈고, 押宴에서 ‘少貳殿은 巨僮로 여러 諸僮와 비교할 바가 아니며, 또 대마도의 반란[삼포왜란]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하였다.⁴¹⁾

결국, 弼中은 1511년 8월에 서울을 떠나 10월에 일본으로 돌아갔는데,⁴²⁾ 慶尙道節度使 柳 聃年에 의해 그의 도착이 보고된 것은 4월 13일이었고, 선위사 金安國이 그를 전송하고 돌아온 것이 10월 28일이었다.⁴³⁾ 그런데 대마도측 사료에는 일본국왕사가 9월에 돌아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⁴⁴⁾ 그렇다면 그가 1511년 1차 修復 교섭으로 조선에 있었던 기간은 약 5~6개월 정도였다고 할 수 있다.

봉中이 서울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은 9월에는 倭船 18척이 경상도 登山串에 와서 정박하기도 하였고,⁴⁵⁾ 12월에는 加德島에서 왜선들이 숨어 있다가 조선 水軍의 공격을 받았다. 慶尙道兵馬節度使 柳聃年의 보고에 의하면, 그는 兵船 125척을 거느리고, 왜선을 토벌하여 5~6척을 포획하고, 40인을 생포하였으며, 왜인 중에서 화살에 맞고도 산 자가 12~13인, 화살에 맞아 죽은 자가 20인이었다.⁴⁶⁾ 그런데 이 왜선들은 원래 대마도 上郡과 下郡의 백여 척 정도

34) 『중종실록』 권13, 중종 6년 5월 5일 갑인; 20일 기사; 권14, 중종 6년 6월 10일 무자.

35) 荒木和憲, 『対馬宗氏の中世史』, 吉川弘文館, 2017, 158~159쪽.

36) 『중종실록』 권13, 중종 6년 4월 20일 기해. 『宗左衛門大夫覚書』 永正 8년 3월(이하 『宗左衛門大夫覚書』는 田中健夫, 『對外關係と文化交流』, 思文閣出版, 1982, 참고).

37) 『중종실록』 권13, 중종 6년 4월 20일 기해.

38) 『중종실록』 권14, 중종 6년 6월 27일 을사; 7월 10일 무오; 8월 11일 무자.

39) 『중종실록』 권14, 중종 6년 6월 4일 임오; 7월 15일 계해; 26일 갑술.

40) 『중종실록』 권14, 중종 6년 8월 11일 무자; 권15, 중종 7년 2월 13일 무자; 15일 경인.

41) 『중종실록』 권15, 중종 7년 2월 15일 경인.

42) 『중종실록』 권14, 중종 6년 10월 28일 을사; 『중종실록』 권16, 중종 7년 윤5월 8일 신사.

43) 『중종실록』 권13, 중종 6년 4월 13일 임진; 권14, 중종 6년 10월 28일 을사.

44) 『宗左衛門大夫覚書』 永正 8년 9월.

45) 『중종실록』 권14, 중종 6년 9월 15일 임술.

46) 『중종실록』 권14, 중종 6년 12월 16일 임진; 19일 을미.

가 고기를 잡기 위해 건너온 것으로, 朝鮮軍과 싸웠기 때문에 대마도에서 엄히 처벌받았고, 배 28척은 대마도 府中에 억류되었다.⁴⁷⁾ 중종 역시 ‘倭奴가 가덕도의 험한 것에 의지하여 만약 우리 변경을 도둑질한다면 토벌하는 것이 옳지만, 만약 海採하러 온 것을 토벌하였다면, 이 때문에 불화가 생기는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조정의 회보를 기다리지 않고 수군을 이끌고 追討한 것은 경솔하게 움직인 것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이었다.⁴⁸⁾

조선 정부는 敬差官까지 파견하여 사로잡은 왜인들을 推考하게 하였는데, 왜인들은 이미 烙刑과 壓膝을 당한 뒤였고, 조사 결과 왜인들은 역시 모두 고기잡이[釣魚]하러 온 것이었으며, 변경을 침범한 정상은 없었다.⁴⁹⁾ 그런데 조선에 사로잡힌 왜인들은 스스로 목을 매어 죽기도 하였고, 삼포왜란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조선은 우선 內地의 궁벽한 고을에 두게 하였으나, 釜山浦에 살던 要時羅는 반란한 무리로 여겨 처형하였다.⁵⁰⁾

이 가덕도 사건에 조선이나 대마도 모두 신중했던 것은 일본국왕사 弼中이 조선을 다녀간 직후, 사실상 표면적으로는 조선과 대마도에 대한 화친 교섭이 일본국왕사의 중재로 시작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 즉 일본국왕사가 조선에 와서 화친을 간절히 청하자, 조선은 대마도의 사죄, 首謀者의 首級 등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조선측이 화친을 위해 제시한 최소한의 명분이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조선과 일본국왕사(실제로는 대마도)가 사실상의 재교섭을 앞에 둔 상황이었으므로, 각자가 이 사건 때문에 불화가 발생하면 화친 교섭에 대한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3. 1512년 少貳殿使의 통교와 그 실체

조선에서 가덕도 사건에 대한 조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던 즈음인 1512년(중종 7) 2월 少貳殿의 使船이 조선에 도착하였다.⁵¹⁾ 이것은 조선이 일본국왕사 弼中에게 深處倭의 내조를 받아들여줬다고 하자, 1512년(중종 7) 1월에 少貳殿 使船 2척, 九州의 사선 4척, 大小船 8척의 선단이 준비되어 대마도를 출발한 것이었다.⁵²⁾ 그리고 조선 정부는 이들에 대한 접대 문제를 6조, 승정원,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예문관 등에게 논의하게 하였고,⁵³⁾ 마침내 少貳殿의 사선만 접대를 허용하게 되었다.

<사료 1>

“倭人을 접대하는 한 가지 일은 여러 의논이 한결같지 못하여 臣 등이 이제 다시 참작해 보니, ①그들이 弼中의 말을 듣고 왔는데, 만약 모두 허락하지 않는다면, 이는 우리가 먼 곳에서 온 사람들에게 신의를 잃은 것입니다. 청하건대, 邊將들로 하여금 對馬島의 罪惡은 용서할 수 없으나, 深處에 있어서 그 모의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은 마땅히 전과 같이 대우하겠다. 다만 ② 너희들은 大內殿과 같은 符驗이 있는 것이 아니니, 오직 圖書를 상고해서 接待해야 하는데, 三島叛亂 때에 도서를 빙험하는 文案이 모두 兵火로 焚失되어 증빙할 수 없으니, 어디에 의거하

47) 『宗左衛門大夫覚書』 永正 9년 12월; 中村榮孝, 앞의 논문, 1969, 7쪽.

48) 『중종실록』 권14, 중종 6년 12월 17일 계사; 19일 을미.

49) 『중종실록』 권15, 중종 7년 2월 4일 기묘; 6일 신사.

50) 『중종실록』 권15, 중종 7년 3월 14일 기미.

51) 『중종실록』 권15, 중종 7년 2월 13일 무자; 15일 경인.

52) 中村榮孝, 앞의 논문, 1969, 8쪽. 대마도측 사료에는 小二殿 사선 2척, 六地(陸地)船 4척, 大小船 8척으로 되어있다(『宗左衛門大夫覚書』 永正 9년 정월).

53) 『중종실록』 권15, 중종 7년 2월 16일 무자.

여 접대하겠는가? 너희들 一行人 모두 돌려보내야 마땅하나, 다만 너희 무리가 그런 까닭을 알지 못하고, 國家에서 一切 거절한다고 일컬을 것 같으므로, ③小二殿이 보낸 私船만 특별히 上京을 허락하여 장차 국가의 뜻을 깨우치려고 한다. 나머지 배들은 모두 마땅히 속히 돌아가야 하는데, 너희들이 바다를 건너는데 곤란하고 군색하므로, 각각 過海糧을 주니, 나라의 은혜가 지극히 중함을 각기 알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타일러 入送시키고, ④그(少貳殿 사송의) 上來者 人數와 짐바리의 수(馱載數)를 該曹로 하여금 간략히 磨鍊하여 쫓도록 하고, 포구에 머무르며 貿易함은 前例에 의함이 마땅하겠습니다.”라고 하니, 전교하기를, ‘의논대로 시행하라.’라고 하였다.⁵⁴⁾

<사료 1>은 의정부와 6조 등의 대신들이 최종적으로 논의한 것이다. 이를 보면, 대신들은 전년(1511년)에 일본국왕사 弼中이 왔을 때 조선이 그의 청을 받아들여 삼포왜란과 관련 없는 심처왜를 접대하겠다고 하였고, 이들이 弼中의 말을 듣고 나온 것이므로 모두 접대하지 않는다면 조선이 먼 곳 사람들에게 신의를 잃는 것(<사료 1>의 ①)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 온 사람들이 大內殿과 같은 符驗이 없고, 圖書 역시 삼포왜란 때 증빙할 문헌이 소실되어서 접대를 의거할 것이 없다(<사료 1> ②)는 핑계로 이들을 돌려보내자고 하였다. 이것은 1460년대부터 조선은 서계 위에 도서를 찍게 하고, 그 문서를 삼포에서 제시하게 하였기 때문에⁵⁵⁾ 상당히 합리적인 핑계였지만, 도서 印影을 서울에도 남겨 두었을 것이므로, 사실 도서의 확인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또 조선이 大內殿에게 준 符驗이란 1453년(단종 원년)에 ‘通信符’라는 銅印의 반쪽, 특히 印面이 새겨진 우측면을 지급한 것(‘朝鮮國賜大內殿通信右符’)이다. 이것은 勘合의 일종⁵⁶⁾이긴 하지만, 사실상 圖書와 같이 서계에 날인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 역시 위조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⁵⁷⁾

<사진 1> 大內氏 通信符(銅符)와 木印⁵⁸⁾



54) 『중종실록』 권15, 중종 7년 2월 17일 임진.

55) 케네스 로빈슨(K. R. Robinson), 「15~16세기 일본의 僞使와 조선인의 송환」, 『동북아역사논총』 28, 2010, 62쪽.

56) 김동현, 앞의 논문, 2021, 44쪽.

57) 圖書는 조선에 통교하는 名義人의 一代에 한하여 사용되었기 때문에 통교하는 명의를 바꾸려면 조선으로부터의 改給이 필요하였지만, 大內氏의 通信符는 개급이 필요하지 않았다(田代和生·米谷均, 앞의 논문, 1995, 81쪽; 須田牧子, 앞의 책, 2011, 68쪽; 伊藤幸司, 「大內氏의 外交와 大友氏의 外交」, 『大內と大友, 中世西日本の二大大名』(鹿毛敏夫 編), 2013, 490쪽).

58) 현재 大內氏 通信符(銅印)는 毛利博物館, 木印은 九州國立博物館 소장. 大內氏 通信符(銅印)는 Discover Japan(<https://discoverjapan-web.com/article/46435>)의 사진. 木印은 九州國立博物館(<https://www.kyuhaku.jp>) 사진. 이 通信符 木印은 사실상 大內氏가 毛利氏에게 멸망당하는 1557년 이후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1509년(중종 4)에 도서를 받은 지 오래되었지만, 옛날과 같이 배를 보내는 자가 반드시 많다면 공로가 특이한 자 이외에는 도서를 받고 50년 이상인 자는 예조가 조사하여 대마도주에게 알린 뒤 접대하지 말자는 의견이 제시된 적이 있었다.⁵⁹⁾ 실제 대마도에 경차관 尹殷輔를 보내어 이를 통보하려고 하였으나,⁶⁰⁾ 경차관 윤은보는 충주에 이르러 對馬島主가 죽은 것을 듣고 조정의 명령을 기다리다가 중종의 지시를 받고 돌아온 적이 있었다.⁶¹⁾ 그 후 같은 해에는 1456년(세조 2)에 처음으로 도서를 받았던 源義의 사신 仇羅沙也文에 의해 源義가 죽은 지 30년이 되었고, 그 아우 深左衛門이 그를 계승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중종은 도서를 받은 지 해[年]가 오래된 자가 오면 모두 詰問하도록 지시를 내렸다.⁶²⁾ 또 같은 해에 왜인 陳小只 또한 도서를 위조한 일이 발각되기도 하였다.⁶³⁾

따라서 1512년 조선 조정이 심처왜에 대해서 삼포왜란으로 문안이 모두 소실되어 도서를 증빙할 수 없다는 것보다는 아직 화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와 같은 도서의 부정 사용, 즉 대마도가 심처왜를 빙자한 위사를 보낼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을 것이다. 그리고 삼포왜란 전에 ‘도서를 받은 지 50년 이상인 자’에 대한 문제 제기는 그대로 임신약조의 한 조목으로 제시(다음 장 <사료 2>의 ⑦)되었다.⁶⁴⁾

결국, 조선의 대신들은 少貳殿의 使船만 특별히 상경을 허락하고, 그 나머지는 바다를 건너 갈 양식을 주자고 하였다(<사료 1> ③). 少貳殿 역시 조선으로부터 부험이 아니라 도서만 받았다는 점에서 이 조치는 巨僞로 분류했던 少貳殿에 대한 배려, 전년 일본국왕사 弼中이 특히 少貳殿을 강조했던 것에 대한 배려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少貳殿의 상경 일행과 짐바리도 간략하게 하고, 포소에서 무역은 전례와 같이 시행하도록 하였다(<사료 1> ④). 따라서 이 조치는 조선에서 전년 일본국왕사 弼中과의 약속 일부만 지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慶州府尹 李繼福은 ‘이번에 온 왜인들을 접대하지 않기로 했다는데, 만일 대마도와 심처왜가 힘을 합쳐 나누어 침입하면 막지 못할까 두렵다’고 우려하기도 하였다.⁶⁵⁾

마침 가덕도 사건을 조사하러 갔던 敬差官 權敏手도 3월에 복명하여 ‘少貳殿의 使船과 그것을 따라온 왜인이 거의 270여 명이나 되었고, 오래 海上에 머물러 거의 굶주려 죽게 되어서 조정의 처치를 기다리지 않고 관찰사가 임시로 약간의 양식을 주어서 죽지 않게 하였다’고 직접 들은 것을 보고하였다.⁶⁶⁾ 또 권민수는 ‘변장들이 모두 비록 圖書나 증험할 것이 없더라도 마땅히 전과 같이 대우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그들이 공모하여 불화가 일어날까 두렵다’고 한 말도 전하였다.⁶⁷⁾ 이를 통해 삼포왜란 이후 대마도의 식량 사정이 심각한 상황이었고, 변장들은 굶주린 대마도 사람들이나 무역을 하러 온 심처왜들이 폭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

59) 『중종실록』 권8, 중종 4년 3월 26일 무오.

60) 『중종실록』 권8, 중종 4년 4월 1일 임술; 4월 12일 계유.

61) 『중종실록』 권8, 중종 4년 4월 1일 임술; 4월 30일 신묘.

62) 『중종실록』 권8, 중종 4년 7월 6일 병신; 7월 정유.

63) 『중종실록』 권9, 중종 4년 8월 29일 기축; 9월 2일 신묘. 케네스 로빈슨(K. R. Robinson)은 1509년(중종 4) 조선의 관료들이 위조 圖書를 사용해 오고 있던 일본의 무역 사절을 색출하였는데, 이에 대한 불만 표출이 이듬해의 폭동(삼포왜란) 발발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케네스 로빈슨(K. R. Robinson), 앞의 논문, 2010, 77쪽).

64) 中村榮孝, 앞의 논문, 1969, 18~19쪽.

65) 『중종실록』 권15, 중종 7년 2월 23일 무술.

66) 『중종실록』 권15, 중종 7년 3월 14일 기미.

67) 『중종실록』 권15, 중종 7년 3월 14일 기미.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조선 정부는 少貳殿의 使船만 접대하고 나머지는 바다를 건너 갈 식량을 주어 돌려보낸다는 결정을 변경하지 않았다.⁶⁸⁾

그런데 이후 4개월 뒤인 윤5월 獻納 金楊震은 往年에 向化倭人 雪明의 동생[弟]이 조선에 와서 “少貳殿이 갑오년(1474년)에 大內殿에 의해 합병되었고, 그때 대마도 사람들이 圖書를 탈취하여 少貳殿이라고 칭탁[假托]하고 지금까지 왕래한다. … 모든 섬의 圖書가 시일이 오래 되어 혹은 백 년이 넘는데, 이리저리 서로 빌어 쓴다”고 말한 사실을 아뢰는 일이 있었다.⁶⁹⁾ 김양진이 전한 雪明의 말 중에는 少貳殿이 大內殿에 합병된 시기에 대해서 오류가 있지만, 대체적인 역사적 사실에는 일치한다. 당시 동생으로부터 이 말을 들은 雪明은 이를 조선에 아뢰려고 하였지만, 雪明의 동생이 “이 圖書를 증거로 또다시 조선에 나오면 형을 다시 볼 수 있다”라고 하며 아뢰지 말 것을 強請하여 감히 아뢰지 못했다고 한다. 이를 보아 당시 雪明은 대마도 출신의 向化倭人이고, 雪明의 동생은 대마도에 거주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당시 少貳殿의 使船과 使臣은 대마도가 창출한 가짜, 즉 僞少貳殿 사신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僞少貳殿 사신을 따라온 270명 대부분은 삼포왜란으로 조선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경제적으로 궁핍해진 대마도 사람들과 무역을 위해 나온 九州 지역, 특히 博多의 상인들이었을 것이다.

少貳殿(小二殿)은 少貳氏로 원래 武藤氏였는데, 대대로 大宰少貳를 세습하여 少貳氏라고 불렀고, 1512년 당시 조선에서 少貳殿이라고 부른 사람은 바로 政尙(藤原政尙)이었다.⁷⁰⁾ 少貳政尙은 1441년 少貳教賴의 아들로 태어나서 처음 이름은 賴忠이었는데, 1471년에 政尙으로 개명하였고, 1479년에 政資로 다시 개명하였다.⁷¹⁾ 그는 1469년 對馬島主 宗貞國과 함께 옛 영토인 筑前の 회복을 시도하였다가 곧 宗貞國과 불화하여 1478년에는 大內政弘에 의해 肥前으로 쫓겨났고, 1497년에는 大內義興에게 패해서 肥前 小城郡에서 자살하였다.⁷²⁾

조선에서는 少貳殿 賴忠이 大內殿에게 패해서 잠시 대마도에 있을 적에 1년에 배 1~2척을 조선에 보낼 수 있도록 약속하였고, 그가 본토로 돌아간 뒤에는 그의 사신을 巨漚使의 예에 의해 접대하였다.⁷³⁾ 그리고 실제 그가 조선에서 받았던 圖書와 그 모조품인 木印이 대마도 宗家に 秘藏되어 있다가 발견되었다.⁷⁴⁾ 대마도에 남아있던 少貳殿의 도서는 바로 ‘政尙’의 印으로, 年紀가 明記되어 있지 않지만, 1473년(성종 4) 8월에 파견된 ‘日本國 關西路 筑豊肥三州 摠太守 太宰府都督 司馬少卿 藤原政尙’ 名義의 使者에게 발급되었다고 추측하고 있고, 애초에 그 발급 자체가 대마도[宗氏]의 공작에 의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⁷⁵⁾ 대마도가 진짜 政尙의 도서를 입수해 가지고 있었음에도 木印을 모조한 이유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 圖書가 훼손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를 염두에 두고 木印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68) 『중종실록』 권15, 중종 7년 3월 15일 경신.

69) 『중종실록』 권16, 중종 7년 윤5월 8일 신사.

70) 『성종실록』 권33, 성종 4년 8월 14일 계유; 권176, 성종 16년 3월 26일 정미; 『연산군일기』 권152, 연산군 10년 3월 17일 무인.

71) 田代和生·米谷均, 앞의 논문, 1995, 30~31쪽; 長節子, 앞의 책, 2002, 316~317쪽.

72) 田代和生·米谷均, 앞의 논문, 1995, 31쪽; 長節子, 앞의 책, 2002, 316~317쪽.

73) 『海東諸國紀』 日本國紀.

74) 少貳殿의 圖書와 木印을 포함하여 對馬島 宗家に 秘藏되어 있던 圖書는 총 23개, 木印은 총 14개(10종)가 발견되었는데(그 외 사용 실태가 불분명한 인장 2개), 이 圖書들은 1510년 삼포왜란 후 조선이 일본의 각 지역의 세력에게 造給해 준 것을 대마도가 조선과의 통교 무역을 독점하는 과정에서 입수한 것이고, 木印들은 대마도가 僞使(日本國王使, 대내전 사신 등) 파견에 수반하는 외교문서와 조선국왕의 國書를 僞造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田代和生·米谷均, 앞의 논문, 1995, 참고).

75) 田代和生·米谷均, 앞의 논문, 1995, 27쪽; 30쪽; 『성종실록』 권33, 성종 4년 8월 14일 계유.

따라서 1497년 이후 『朝鮮王朝實錄』에 나타나는 少貳殿, 政尙, 賴忠, 그리고 그의 후계자라는 政忠 등의 이름으로 조선에 온 것은 모두 僞使라고 할 수 있다.⁷⁶⁾ 또 어쩌면 실제로는 少貳殿이 大內殿에게 쫓겨와 대마도에 머물면서(1466년 이전)⁷⁷⁾ 조선으로부터 세견선 파견과 圖書를 造給 받았을 때부터 또는 1469년부터 71년에 걸쳐 대마도주 종정국이 옛 主家인 少貳賴忠을 추대하여 筑前 博多 방면으로 진군하고 있었을 때부터 政尙의 圖書는 대마도에 남겨져서 대마도에 의해 관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어찌 되었든 가장 확실한 것은 1497년에 政尙이 죽었기 때문에 그 이후 그와 관련된 것은 대마도가 파견한 僞使라는 점이다.

<사진 2> 政尙의 圖書와 木印⁷⁸⁾



이렇게 보면 1511년에 왔던 일본국왕사 弮中은 겉으로는 삼포왜란과 관련 없던 심처왜와 少貳殿의 조선 통교를 요청한 것이지만, 그는 대마도의 청탁을 받아 실제로는 대마도의 僞少貳殿 使臣의 조선 파견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즉, 대마도에서는 일본국왕사 弮中에게 삼포왜란 때 잡아간 被擄人 3명의 송환과 함께 삼포왜란과 관련이 없는 심처왜 파견, 특히 少貳殿의 사자 파견을 요청하였을 것이다. 또 弮中은 당연히 少貳殿의 패망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는 대마도와 僞使 파견에 대해 결탁하였다고 생각한다.

특히 대마도가 먼저 少貳殿의 使者를 보낸 것은 당시에 이미 대마도가 少貳殿 政尙의 圖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僞使를 만들어 내기 쉬웠기 때문일 것이다. 少貳殿은 조선에서는 소

76) 1549년(명종 4) 少貳殿 정상은 조선에 書契를 보내 자신이 年老하다며 자신의 대를 이은 아들 政忠으로 圖書를 고쳐주도록 요청하였는데, 당시 政尙의 나이가 97세였다.(『명종실록』 권9, 명종 4년 3월 8일 무인). 조선에서는 이 요청을 허락하였지만, 이 요청은 모두 대마도가 만들어 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조선이 만들어 준 政忠의 圖書 역시 대마도 宗家에 秘藏되어 있다가 발견되었다(田代和生·米谷均, 위의 논문, 1995, 44~46쪽).

77) 1466년(세조 12)에 倭人 表仰古羅가 조선에 와서 지난번에 大內殿과 少貳殿이 땅을 다투어 서로 싸우다가 少貳殿이 이기지 못하고 對馬州에 쫓겨와서 거처하였다고 말한 내용이 있다(『세조실록』 권39, 세조 12년 7월 23일 임진).

78) 현재 九州國立博物館 소장. 圖書와 木印은 九州國立博物館(<https://www.kyuhaku.jp>) 사진. 印影은 필자 촬영(이하 같음).

위 巨鯨로 분류하여 대우하고 있었고, 더구나 대마도는 1455년 이후, 이미 博多 상인과 협조하면서 巨鯨 名義의 僞使를 만들어 내고 있었다.⁷⁹⁾ 조선에서는 巨鯨使가 오면, 일반적인 심처 왜의 使節에 비해 여비와 체제비라고 할 수 있는 過海料, 留浦料의 지급만이 아니고 배의 크기나 승무원 수 등에 있어서도 우대를 받는 등 巨鯨 名義의 僞使에게 유리한 무역이 제도적으로 보증되고 있었고 거기에는 博多 상인의 자본이 투입되고 있었다.⁸⁰⁾ 즉, 당시 僞少貳殿使臣을 따라 조선에 온 선단 중에 九州의 使船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僞使가 博多 상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4. 1512년 彌中의 2차 파견과 임신약조 체결

1512년(중종 7) 4월, 일본국왕사 彌中, 大內殿의 使臣이 삼포왜란을 일으킨 首謀者의 首級을 가지고 대마도의 特送과 함께 각각 배 5척으로 와서 다시 조선과의 화친을 요청하였다.⁸¹⁾ 彌中이 다시 오자, 앞서 보았던, 헌납 김양진이 귀화인 雪明에게서 들은 少貳殿이 僞使라는 점과 함께 ‘지난해(1511년) 彌中이 올 때 거느리고 온 都船主는 바로 대마도의 書契를 관장하는 兪將의 자제이고, 일본 본국 사람이 아니다’라고 한 것을 전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헌납 김양진은 ‘彌中이 지난해 8월에 일본으로 돌아갔는데,⁸²⁾ 그 노정을 헤아려 보면, 여러 섬을 지나 육지에 내려 국왕(일본국왕)이 있는 곳에 도달하려면 마땅히 3달이 지난 후에 이르게 된다. 지금 還國한 지 오래지 않아 또 갑자기 나왔으니, 그가 일본까지 가지 않고 대마도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⁸³⁾

김양진의 의심은 상당히 합리적이었지만, 彌中이 조선을 떠난 것이 1511년 10월(대마도측 사료에는 9월 귀환)이고, 다시 조선에 온 것이 1512년 4월로, 왕복 6~7개월의 노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또 彌中이 그대로 대마도에 머물면서 足利義植와 大內義興에게 재차 일본국왕사의 파견을 승인받았을 수도 있다. 그리고 彌中은 1511년 1차로 조선에 올 때 牙符를 가지고 있었고, 1512년 2차로 조선에 올 때도 아부를 사용했다고 한다면 어쨌든 조선으로서는 크게 보아서 겉으로는 실제 일본국왕사의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조선이 화의 조건으로 일본국왕사인 彌中에게 삼포왜란 수모자의 수급 등을 요구한 것은 대마도로서는 그다지 어렵지 않은 요구 조건이었기 때문에 대마도가 무리하게 위사를 만들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막부에서 高山新左衛門尉이란 者에게 正式으로 牙符가 발급하였는데, 이것이 1512년의 일본국왕사였다.⁸⁴⁾ 또 당시 1511·1512년 일본국왕사의 正使였던 彌中은 將軍 足利

79) 荒木和憲, 앞의 책, 2017, 96쪽.

80) 荒木和憲, 앞의 책, 2017, 96쪽.

81) 『중종실록』 권15, 중종 7년 4월 23일 정유; 5월 30일 계유; 권16, 중종 7년 윤5월 1일 갑술; 8월 20일 신유.

82) 宣慰使 金安國 彌中을 전송하고 돌아온 것이 1511년(중종 6) 10월이었으므로(『중종실록』 권14, 중종 6년 10월 28일 을사), 獻納 金楊震이 말한 8월은 彌中이 서울을 떠난 시기일 것이다(『중종실록』 권16, 중종 7년 윤5월 8일 신사).

83) 『중종실록』 권16, 중종 7년 윤5월 8일 신사.

84) 橋本雄, 앞의 책, 2005, 217~218쪽·242쪽, 주29 및 293쪽. 橋本雄은 당시 足利義植에게 牙符를 받은 高山新左衛門尉가 彌中의 都船主 高山長弘과 동일 인물일 것으로 추측(橋本雄, 앞의 책, 2005, 217~218쪽·242쪽, 주29)하면서도, 高山長弘이 일본국왕사의 副使(橋本雄, 앞의 책, 2005, 293쪽)였을 것으로도 보고 있다. 그러나 1512년 長弘은 일본국왕사의 都船主·船主였다(『중종실록』 권16, 중종 7년 8월 22일 계해; 8월 27일 무진).

義種·大內義興과의 관계가 깊었고, 弼中과 동행한 船頭인 高山長弘은 將軍 足利義種으로부터 牙符를 받았는데, 이는 당시 대마도주였던 宗義盛이 足利義種·大內義興과의 두터운 관계를 이용하여 조선과의 강화 교섭을 위해 일본국왕사 파견을 실현시킨 것이었다.⁸⁵⁾ 따라서 이 1512년 일본국왕사에 대해서는 당시 幕府가 관여하거나 인지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⁸⁶⁾ 이에 1512년 일본국왕에 대해 막부의 관여가 있었던 것이 확실하므로, 통설⁸⁷⁾처럼 단순히 이것을 완전한 僞日本國王使로 認定해도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을 가지기도 한다.⁸⁸⁾ 다만 막부가 삼포왜란에 의한 통교 단절을 알고 있었는지, 통교 교섭에 협력하려 한 것인지는 매우 의심스럽고, 일본국왕사의 주목적인 修復 교섭과 막부가 의도한 통교 내용과는 일질 관계가 없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막부가 작성한 國書가 존재했다면 고쳐졌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종의 僞使-사절은 진짜지만 국서는 가짜-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⁸⁹⁾ 그러나 1511년과 같이 아부만 받고 막부가 작성한 국서는 없었다고 생각되며, 만약 막부가 작성한 국서가 있었고 그것이 고쳐졌다면, 그것은 國書改作의 한 형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512년의 일본국왕사는 완전한 僞使인지 眞使인지 확실하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역시 조선에서는 아부와 서계를 근거로 일본국왕사로 인정하였을 것이다.

이에 더해 중중은 일본국왕사에게 수모자의 수급을 가지고 오라고 한 것은 어려운 일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弼中이 조선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여 오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⁹⁰⁾ 또 조선 정부로서는 弼中이 전년에 일본국왕사로 왔던 점도 고려가 되었을 것이고, 『중종실록』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조선의 鎭將이나 宣慰使가 부험인 아부를 확인하였을 것이다.

어쨌든 1512년 일본국왕사 弼中이 조선에 온 것은 조선과의 화친을 재교섭하기 위해 대마도가 일본국왕사, 大內殿 使送, 對馬島 特送을 조합한 것이었다. 조선에서는 일본국왕사 弼中은 전례대로 접대하지만, 특송은 배 1척만 양식을 주고 나머지 4척은 바다를 건널 동안의 절반 양식을 주어 즉시 돌려보내도록 하였다. 또, 弼中이 서울로 올라와서 청하는 형식으로 특송 중 1~2인만 상경하게 하면서도 특송의 예로 접대하지 말게 하였으며, 특송은 포소에서의 宴享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였다.⁹¹⁾

일본국왕사 弼中은 윤5월에 상경하여⁹²⁾ 화친과 특송[三印使]을 접대해 주기를 청하였다.⁹³⁾ 그러나 대마도의 특송 國幸 등이 浦所에서 밤을 이용하여 몰래 와서 조선의 일을 탐지하다가

85) 荒木和憲, 앞의 책, 2017, 158쪽.

86) 橋本雄, 앞의 책, 2005, 217~218쪽·242쪽, 주29 및 293쪽. 다만 橋本雄은 幕府가 삼포왜란에 의한 통교 단절을 알고 있었는지, 통교 교섭에 협력하려 한 것인지는 매우 의심스럽다고 하면서, 일본국왕사의 주목적인 修復 교섭과 막부가 의도한 통교 내용과는 일질 관계가 없다고 추측하고 있다. 이에 막부가 작성한 國書가 존재했다면 고쳐졌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종의 僞使-사절은 진짜지만 국서는 가짜-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橋本雄, 앞의 책, 2005, 293쪽)

87) 1511년 일본국왕사 弼中을 僞使로 보기 때문에 1512년 역시 위사로 보기도 한다. 일례로 伊藤幸司는 弼中에 대해서 '1510년에 발발한 三浦의 亂後, 對馬宗氏의 外交僧으로서, 日朝關係를 回復하기 위해 僞日本國王使로 2번이나 朝鮮에 가고 있다', '1510년 三浦의 亂後 日朝國交 회복 교섭에서도 對馬宗氏가 파견하는 僞日本國王使로서도 활약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伊藤幸司, 앞의 책, 2021, 320쪽·368쪽).

88) 橋本雄, 앞의 책, 2005, 217~218쪽·242쪽, 주29.

89) 橋本雄, 앞의 책, 2005, 293쪽.

90) 『중종실록』 권16, 중종 7년 윤5월 14일 정해.

91) 『중종실록』 권15, 중종 7년 4월 23일 정유.

92) 『중종실록』 권15, 중종 7년 5월 14일 정사.

93) 『중종실록』 권16, 중종 7년 윤5월 27일 경자; 6월 19일 신유.

적발되자, 조선은 일체 접대할 수 없다고 하며 즉시 돌아가고 포소에 머물지 못하게 하였으며, 특송 國幸을 대마도로 돌려보내게 하였다.⁹⁴⁾ 또 조선이 삼포왜란의 주모자로 여긴 宗盛親의 처벌과 사죄 문제, 삼포왜란 때 잡혀간 조선 被擄人의 쇄환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화친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자, 弼中은 여러 차례 화친을 요구하는 서계를 올리기도 하였다.⁹⁵⁾

마침내 6월 25일에 弼中이 ‘도선주를 대마도에 보내 宗盛親이 조선에 와서 사죄하게 한 뒤 화친을 청하겠다’고 하자, 조선이 화친을 허락하였다.⁹⁶⁾ 그러나 8월 18일에 弼中의 도선주는 대마도를 갔다 와서 ‘宗盛親이 반란자들을 베어다가 조선에 바치려고 일본국왕에게 고하는 일로 들어가 돌아오지 못했다’는 이유로 宗盛親을 데리고 오지 않았다.⁹⁷⁾ 도선주가 宗盛親의 문제로 대마도를 갔다 오면서 1~2달의 시간이 지나버렸는데, 물론 宗盛親이 일본국왕에게 보고하러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은 대마도의 거짓 핑계이며, 弼中 또는 대마도의 지연작전이었을 것이다.⁹⁸⁾

결국 宗盛親이 조선에 오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은 중종과 대신들은 8월 19일에 바로 弼中에게 화친을 허락함이 옳다라고 하면서 예조에서 節目을 마련하여 다시 의논하자고 하였고,⁹⁹⁾ 8월 20일에 예조에서는 接待節目을 마련하였다(<사료 2>).¹⁰⁰⁾ 그리고 다음 날인 21일 좌의정 柳順汀과 우의정 成希顔이 두 개 절목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것이 그대로 중종에게 승인되었다(<사료 3>).¹⁰¹⁾ 그리고 8월 27일에는 禮曹正郎이 弼中에게 특별히 화친을 허락한다는 뜻을 알렸고, 弼中은 謝禮하는 서계를 예조에 보냄으로써¹⁰²⁾ 소위 ‘임신약조’가 성립하였다.

<사료 2>

禮曹에서 아뢰기를, … 接待節目에 이르기를, “①三浦에 거주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고, ②島主의 歲遣船 50척을 이제 그 半으로 減하며, ③歲賜米太 2백 石을 이제 그 半으로 감한다. ④特送은 보내지 말고, 만약 말할 일이 있으면 세견선이 와서 고하고, ⑤도주의 아들 및 代官과 受職·受圖書人 등에게 하사하는 쌀·콩[米·太]과 세견선은 모두 없애며, ⑥도주가 보낸 바가 아닌데도 加德島 近處에 와서 정박하는 배는 모두 賊倭로 論斷한다. ⑦深處倭 혹은 職을 받았거나 혹은 圖書를 받아 통행해 오는 자들은 그 歲月이 오래되고 가까운 것과 功勞와 긴요함과 긴요하지 아니한 것을 헤아려서 감하며, 통행을 허락한 사람 중에 도서를 받은 자는 도서를 고쳐 발급한다.”라고 하였다.¹⁰³⁾

<사료 3>

左議政 柳順汀, 右議政 成希顔이 鬻啓하기를, “예조에서 아뢴 것이 매우 합당합니다. 다만 倭

94) 『중종실록』 권16, 중종 7년 6월 5일 정미; 24일 병인. 조선이 화친을 결정하여 弼中에게 알렸으나, 이때 이미 대마도의 특송 國幸은 사망한 상태였다(『중종실록』 권16, 중종 7년 8월 27일 무진). 國幸은 7월 8일에 浦所에서 체제하던 중 病死하였다(中村榮孝, 앞의 논문, 1969, 12쪽; 14쪽, 각주 24번).

95) 『중종실록』 권16, 중종 7년 6월 19일 신유.

96) 『중종실록』 권16, 중종 7년 6월 25일 정묘.

97) 『중종실록』 권16, 중종 7년 8월 18일 기미.

98) 조선의 臺諫들은 이는 핑계이고, 弼中이 都船主 長弘을 보내면서 몰래 지시하여 보낸 것인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기도 하였으며, 弼中의 간사한 술책이라고 비판하였다(『중종실록』 권16, 중종 7년 8월 22일 계해; 23일 갑자; 24일 을축).

99) 『중종실록』 권16, 중종 7년 8월 19일 신유.

100) 『중종실록』 권16, 중종 7년 8월 20일 신유.

101) 『중종실록』 권16, 중종 7년 8월 21일 임술.

102) 『중종실록』 권16, 중종 7년 8월 25일 병인; 30일 신미.

103) 『중종실록』 권16, 중종 7년 8월 20일 신유.

사람들이 朝聘이라 칭하고 近境 여러 섬에 와서 정박하다가 도둑질할까 염려스러우니, ⑧ 무릇 나 오는 왜인들은 對馬島에서 齋浦에 이르는 直路 외에 다른 길로 오가는 자는 적외로 논하여야 하겠습니다. 또 ⑨ 上京하는 왜인들은, 國王使臣 외에는 中朝[중국]의 예에 의하여 刀劍을 지니는 일을 허락하지 말도록 아울러 約束함이 어떠하겠습니까.”라고 하니, (임금이)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¹⁰⁴⁾

<사료 2·3>의 내용을 정리하면, 임신약조는 ① 3포에서의 왜인 거주 불허, ② 대마도주 세견선을 50척에서 25척으로 반감, ③ 도주 歲賜米豆를 200척에서 100척으로 반감, ④ 島主 特送船制의 폐지, ⑤ 도주 일족과 수직·수도서인의 세견선·세사미두 폐지, ⑥ 도주 파견 이외의 사송선은 敵倭로 간주 처단, ⑦ 일본 본토의 일본인 중 수직·수도서인 정리, ⑧ 포소와 海路의 제한, ⑨ 국왕사를 제외한 상경 왜인의 무기휴대 금지 등 9개 조목으로 되어있다고 보고 있다.¹⁰⁵⁾

이를 보면, 임신약조는 조선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대마도의 경제적 상황을 반감 또는 악화시키는 조치들이 많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세견선과 세사미두의 반감과 폐지뿐만 아니라 조선에서 심쳐왜라고 부르는 대마도 외의 통교자(수직·수도서인) 정리는 대마도주의 文引 발행 수수료의 감소, 대마도가 심쳐왜 名義로 조선에 통교하던 소위 僞使 파견의 감소를 불러일으키는 것이어서 대마도의 경제적 타격은 막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임신약조의 내용은 계해약조와는 다르게 대마도가 철저하게 배제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삼포왜란을 일으킨 대마도가 조선과의 화친을 전적으로 일본국왕사에게 맡기고, 조선이 대마도의 특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경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대마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대마도는 임신약조 직후부터 경제적 타격을 만회하는 것이 절대적인 과제여서, 임신약조에서 폐기되었던 조항을 무력화시키거나 부분적으로 개정하는 시도를 하였는데, 대표적인 사례를 간략하게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대마도는 임신약조에 의해 특송이 폐지(<사료 2>의 ④)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특송을 파견하여 조선의 접대 가능 여부를 시험해 보고 세견선을 늘리고자 노력하였다. 즉, 대마도는 1513년(중종 8) 5월에 盛永¹⁰⁶⁾, 동년 11월에 盛正¹⁰⁷⁾을 조선에 특송으로 파견하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어 조선으로부터 別禮¹⁰⁸⁾로 접대한다는 것까지는 허락받았지만, 그

104) 『중종실록』 권16, 중종 7년 8월 21일 임술

105) 하우봉, 앞의 논문, 1995, 392쪽. 中村榮孝 역시 9개의 조목으로 보고 있다(中村榮孝, 앞의 논문, 1969, 16쪽). 또 荒木和憲는 이것을 유형별로 구별하여, ① 宗氏 명의의 통교권 삭감(도주 세견선의 반감, 특송선의 폐지), ② 대마도내의 諸氏 명의의 통교권 폐지, ③ 대마도 외의 諸氏 명의 통교권(실태는 宗氏가 운용하는 僞使 통교권) 삭감, ④ 포소의 제약(부산포·염포의 폐쇄, 삼포항거왜의 폐지) 등의 엄격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荒木和憲, 앞의 책, 2017, 161쪽). 田代和生·米谷均 역시 임신약조에 대해 ① 삼포 恒居倭의 폐지, ② 대마도주 세견선 50척의 반감(25척), ③ 대마도내에서의 島主의 아들·代官·受圖書人·受職人에 의한 歲遣船 등의 폐지, ④ 深处倭(대마도외의 통교자)에 의한 수도서인·수직인의 재심사와 같이 대마도 内外로부터의 조선 통교자를 엄격하게 제약하고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田代和生·米谷均, 앞의 논문, 1995, 21쪽).

106) 『중종실록』 권18, 중종 8년 5월 3일 경오; 『중종실록』 권19, 중종 8년 11월 11일 을해. 1513년(중종 8) 5월에 조선에 온 특송 成永은 칼을 빼들고 난동을 부리기도 하였고, 옛일을 회복하고자 언어와 행동에 불손한 것이 많았기 때문에 조선의 禮曹는 대마도주에게 書契로 답서하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지적하였다(『중종실록』 권18, 중종 8년 7월 8일 갑술; 10일 병자; 14일 경진; 23일 기축). 이를 보아 당시 특송이었던 成永은 세견선 회복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자 난동을 부렸던 것 같다.

107) 『중종실록』 권19, 중종 8년 11월 12일 병자.

108) 荒木和憲은 1512년 성립된 임신약조로 特送船이 폐지된 후에도 대마도측은 일반적으로 특송선을 파견하였으나, 특례를 제외하고는 접대되는 일은 없었다고 지적하였다(荒木和憲, 「中世後期における對馬宗氏の

들의 파견 목적인 25척으로 감액(<사료 2>의 ②)된 세견선을 증가시키는 것은 실패하였다.¹⁰⁹⁾

1514년(중종 9) 3월 대마도주는 다시 조선에 經實을 보내 토산물을 바쳤는데, 『중종실록』에서는 이를 특송이라고 기록하지 않았다.¹¹⁰⁾ 그러나 대마도의 기록에 經實은 澁川經実로 나타나며, 특송을 파견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그는 조선인 漂流民 송환을 명목으로 조선에 와서 역시 세견선을 늘리는 것이 임무였다.¹¹¹⁾ 그러나 대마도의 특송 파견을 통한 세견선 증가 시도는 조선의 완강한 거부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1514년 9월 대마도의 灑文愁戒가 와서 세사미두를 받아가면서 임신약조 이후 최초의 세견선이 왕래하게 되었다.¹¹²⁾ 이는 대마도의 특송을 통한 임신약조 개정 시도가 실패하고, 임신약조는 조선측의 요구대로 준용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대마도의 임신약조 개정 시도는 지속되었는데, 그중의 하나가 僞일본국왕사를 파견하는 것이었다. 즉 삼포왜란 이전에는 막부장군의 측근이나 일본 본토의 호족들이 주로 위사(일본국왕사)를 파견하였으나 삼포왜란 이후에는 대마도주가 위사(일본국왕사)를 파견하였다는 지적이 주목된다.¹¹³⁾ 1514년(중종 9) 11월 일본국왕사 上官人 승[僧] 南湖西堂, 副官人 승 景雪座首, 都船主 司果 宗茂信 등이 조선에 왔는데,¹¹⁴⁾ 당시 일본국왕사가 조선에 대해 求請한 것은 첫째, 세견선을 더 정하는 것(<사료 2>의 ②에 대한), 둘째, 삼포왜란으로 관직을 빼앗긴 宗茂信의 관직 회복(<사료 2>의 ⑤에 대한), 셋째, 새로 짓는 寺刹의 助緣, 넷째, 사사로이 가지고 온 銅鐵 무역에 대한 것이었다.¹¹⁵⁾ 이에 대해 조선에서는 사찰의 조연과 동철의 무역은 허가하였지만, 임신약조의 범위에 있는 세견선 증액과 宗茂信의 관직 회복은 들어주지 않았다.¹¹⁶⁾

1521년에도 일본국왕사 중[僧] 易宗西堂이 왔을 때, 宣慰使 兪汝霖이, 왜인이 와서 머무는 것을 반드시 熊川(薺浦) 한 곳에만 국한하지 말고 三浦에 나누어 접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아뢰자, 釜山浦를 추가하여 倭船의 교통 왕래를 추가하였다.¹¹⁷⁾ 삼포로 나누어 접대하자는 것은 선위사 유여림의 의견이었으나, 당시 그가 일본국왕사의 선위사였던 점, 25척(세견선)의 교통 왕래에 대해 아뢴 점 등을 볼 때, 이는 당시 일본국왕사의 요청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임신약조에서 포소가 제포로 국한(<사료 3>의 ⑧)되었던 것을 부산포까지 추가하였는데, 이것은 대마도가 만들어낸 僞일본국왕사의 요청이었다고 생각되며, 이를 통해 임신약조를 부

特送船』, 『九州史學』 第135號, 2003, 23쪽, 각주 15번).

109) 荒木和憲, 앞의 책, 吉川弘文館, 2017, 163쪽.

110) 『중종실록』 권20, 중종 9년 3월 10일 계유. 이후 1521(중종 16)년까지 『중종실록』에 대마도에서 조선에 使人을 보낸 경우에 특송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 1522년(중종 17) 2월에 일본국왕사와 함께 특송이라는 명칭이 다시 등장한다.

111) 中村栄孝, 앞의 논문, 1969, 20~21쪽; 荒木和憲, 앞의 논문, 2003, 5쪽, 『表 1』 特送使一覽表' 참조; 荒木和憲, 앞의 책, 2017, 163쪽.

112) 中村栄孝, 앞의 논문, 1969, 21쪽. 당시 灑文愁戒는 지난 3년 동안의 세사미두를 모두 받아야겠다고 하였으나, 조선에서는 세사미두는 세견선이 온 뒤에 주는 것이 예라며 거부하였다(『중종실록』 권20, 중종 9년 9월 27일 병술).

113) 한문종, 앞의 논문, 2009, 229쪽.

114) 『중종실록』 권21, 중종 9년 11월 1일 기미.

115) 『중종실록』 권21, 중종 10년 1월 12일 경오.

116) 1517년에도 일본국왕사 大陰(太陰) 和尚 등 20여 인이 왔는데, 이들은 조선에 大藏經과 助緣 求請을 하였지만, 그 외 자세한 기록은 없다(『중종실록』 권28, 중종 12년 5월 5일 기묘; 권29, 중종 12년 8월 14일 정사; 17일 경신; 18일 신유).

117) 『중종실록』 권41, 중종 16년 4월 3일 갑신; 권42, 중종 16년 8월 25일 갑진.

분적으로 개정하는 소기의 목적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대마도가 이렇게 일본국왕사의 힘을 빌려 임신약조의 부분적 개정에 성공하자, 이후 대마도는 위일본국왕사를 계속해서 만들어 조선에 파견하였으며, 이를 통해 마침내 임신약조가 맺어진 지 약 10여 년 만인 1523년(중종 18)에 도주 세건선이 25척(<사료 2>의 ②)에서 30척으로 증액되었다.¹¹⁸⁾

이와 관련하여, 足利將軍이 조선 및 琉球에 외교문서를 보낼 때 사용한 印鑑인 德有隣의 木印이 대마도 宗家에 4종이나 秘藏되어 있다가 발견되었다.¹¹⁹⁾ 이것은 대마도가 僞일본국왕사를 파견하기 위해 모조한 것으로, 특히 삼포왜란 이후 대마도에 의한 僞일본국왕사 파견이 더욱 빈번하게 이루어졌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¹²⁰⁾ 대마도가 만든 덕유린의 목인(모조인)이 일본국왕의 국서인 서계를 위조·개작하는데 사용되었다고 한다면, 조선에 僞일본국왕사를 진짜 일본국왕사로 믿도록 하는 것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상아로 만든 아부의 존재이다. 그런데 이 아부 역시 대마도는 大友氏, 大内氏·毛利氏와의 협력을 통해 구하거나 1530년대 이래에는 사실상 대마도에 항상 보관되어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므로,¹²¹⁾ 대마도가 조선에 僞일본국왕사를 파견하는 것에 큰 문제가 없게 되었다.

<사진 3> 德有隣 木印¹²²⁾



비슷한 시기, 대마도는 이 외에도 僞名을 활용한 島内の 세건선 증액 시도(<사료 2>의 ⑤에 대한)를 하고 있었다. 원래 대마도주 아들[子]에게 세건선 7척을 배정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1515년(중종 10) 대마도는 도주 아들의 舊例 船數 회복을 시도하여 조선으로부터 宗彦七의 이름으로 세건선 3척을 허락받았고, 대마도의 豊崎守 宗盛俊은 漂流人 송환의 공으로 조선으

118) 『중종실록』 권49, 중종 18년 9월 6일 계유. 물론 모든 僞日本國王使가 대마도에 의해 창출된 것은 아니었다. 1528년(중종 23)과 1536년(1541) 위일본국왕사는 大友義鑑의 주도하에 파견되어 대마도측의 이해를 대변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荒木和憲, 앞의 책, 2017, 186~187쪽).

119) 田代和生·米谷均, 앞의 논문, 1995, 참고.

120) 田代和生·米谷均, 앞의 논문, 1995, 80쪽.

121) 田代和生·米谷均, 앞의 논문, 1995, 80쪽; 橋本雄, 앞의 책, 2005, 234~235쪽; 荒木和憲, 앞의 책, 2017, 204·207쪽

122) 현재 九州國立博物館 소장. 九州國立博物館(<https://www.kyuhaku.jp>) 사진. 印影은 필자 촬영.

로부터 세견선 1척을 보내는 것을 허락받았다.¹²³⁾ 그러나 宗彦七은 당시 대마도주 자신의 어릴 때 이름이었고, 宗盛俊은 전 대마도주 宗貞國의 庶兄으로 이미 사망자였다.¹²⁴⁾ 이후에도 대마도는 사망자의 명이나 가공인물 등을 만들어 圖書를 받고 세견선을 증액하는 방법을 계속해 나갔다.¹²⁵⁾

이 僞名을 통한 방법은 소위 심처왜에게도 적용되어, <사료 2>의 ⑦에 해당하는 통교자(일본 본토의 일본인 중 수직·수도서인 정리)를 증가시키는 것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일본 각지에서 조선으로 통교하려는 사람은 대마도주의 文引이 있어야 했는데, 1455년(단종 3) 대마도주의 문인 收稅는 적게는 50~60필, 많게는 4~5백 필이었다.¹²⁶⁾ 1455년 조선과 대마도는 1433년에 체결한 계해약조의 船數 문제에 대한 이견이 있었는데, 당시 대마도 敬差官 元孝然이 대마도가 조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심처왜도 접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자, 문인 발행 수수료의 감소를 두려워한 대마도가 조선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도 하였다.¹²⁷⁾

그런데 심처왜 名義의 통교권이 실제로 對馬人에 의해 행사된 사례는 이미 15세기 중반부터라는 지적도 있고, 대마도주가 이러한 文引 발행 수수료보다는 심처왜 名義를 이용한 遣使가 불가능해질 것을 두려워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¹²⁸⁾ 이것은 대마도의 심처왜 名義 僞使 파견이 1455년 이전, 즉 1433년 船數 50척을 정액으로 하는 계해약조 이후부터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임신약조 이후 대마도가 통교권을 확대하는 방법 중 하나로 심처왜 名義를 이용하는 것이 더 광범위해졌다고 생각한다.

즉, 임신약조의 대마도 내외 통교자(수직·수도서인) 정리는 구체적으로 40년 이전에 도서를 받은 자는 접대를 허락하지 않는 것으로 그 대상은 35인이었고,¹²⁹⁾ 당시 대마도측의 사료에는 ‘六地(陸地) 39선’이라고 기록되어 있다.¹³⁰⁾ 이를 통해 임신약조가 체결된 1512년으로부터 40년 이전, 즉 1472년(성종 3) 이전의 도서를 사용하면 조선에서는 접대하지 않았고, 그 대상 인원은 35명, 해당 船數는 39척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35인 중 源成의 도서 또한 대마도 宗家に 秘藏되어 있다가 발견되었다.¹³¹⁾ 즉, 1529년(중종 24) 少貳殿은 조선에 源武의 아들 源成과 可文愁戒의 아들 木工左衛門 등이 아버지의 벼슬을 이어받게 해달라고 청하였는데, 조선에서는 이들이 35인 안에 들어있다면 거부하였다.¹³²⁾ 源成의 도서에는 ‘嘉靖十九年’ 銘이 있으므로,¹³³⁾ 그는 1540년(중종 35년)에 조선으

123) 『중종실록』 권23, 중종 10년 11월 18일 경자; 29일 신해; 12월 4일 병진.

124) 中村榮孝, 앞의 논문, 1969, 29~30쪽; 荒木和憲, 앞의 책, 2017, 164쪽.

125) 荒木和憲, 앞의 책, 2017, 164쪽.

126) 『단종실록』 권14, 단종 3년 4월 7일 임오.

127) 한성주, 앞의 논문, 2025, 104~106쪽.

128) 長節子, 앞의 책, 2002, 11~12쪽; 285~286쪽.

129) 『중종실록』 권65, 중종 24년 2월 13일 기묘. 또 1563년(명종 18)에도 삼포왜란[庚午年作賊] 후 그 30인을 끊고 접대를 허락하지 않은 것이 이미 50년이 지났다는 기록이 확인된다(『명종실록』 권29, 명종 18년 9월 28일 계묘). 그리고 1567년(명종 22)의 기록이지만, 일본의 심처왜 圖書 요청에 대해 조선에서 海東紀, 約條冊, 圖書冊, 名付冊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에서 『해동제국기』(1472년)에 기록된 일본의 통교자 뿐만 아니라 임신약조(1512년), 정미약조(1547년)와 관련된 『약조책』, 『명부책』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명종실록』 권34, 명종 22년 5월 16일 경오; 17일 신미).

130) 田代和生·米谷均, 위의 논문, 1995, 21쪽; 『宗左衛門大夫覚書』 永正 10년 정월.

131) 田代和生·米谷均, 앞의 논문, 1995,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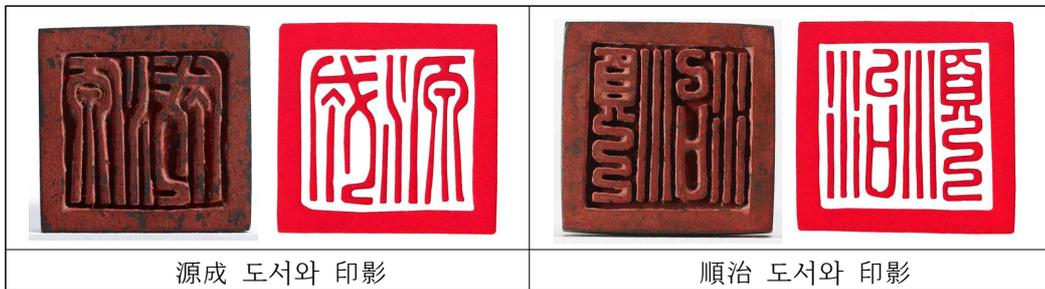
132) 『중종실록』 권65, 중종 24년 2월 13일 기묘. 또 1563년(명종 18)에도 삼포왜란[庚午年作賊] 후 그 30인을 끊고 접대를 허락하지 않은 것이 이미 50년이 지났다는 기록이 확인된다(『명종실록』 권29, 명종 18년 9월 28일 계묘).

로부터 도서를 改給 받아 다시 조선에 통교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少貳殿이 두 사람의 襲職을 청한 점, 源成의 도서가 대마도 宗家에 남겨진 점으로 볼 때 대마도의 僞少貳殿 使者 파견에 의해 源成의 도서가 賜給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源成의 도서는 改給과 동시에 대마도가 입수했을 가능성이 높다.¹³⁴⁾ 즉, 심쳐왜 受圖書人 중에는 후에 조선측으로부터 ‘對馬島倭’로 간주된 사례가 종종 보이는데, 수도서인 源成이 그중 하나이고, 이는 源成을 비롯한 심쳐왜의 통교 명목이 실제로는 대마도 주도의 교섭에 의해 획득되어 島內에서 운용된 실태를 보여준다.¹³⁵⁾

특히 源成의 경우 壱岐에 거점을 둔 源武의 아들로 칭한 인물로, 源武는 真弓氏를 칭하고, 壱岐를 分置하는 志佐氏의 代官으로서 湯岳郷을 지배했지만, 이 真弓氏는, 1472년 波多泰에 의한 壱岐 공략에 의해서 멸망 또는 망명을 강요당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 源成의 실재성에 대해서는 매우 의심을 하고 있다.¹³⁶⁾

<사진 4> 源成·順治 도서와 인영¹³⁷⁾



또 임신약조 이후인 1520년(중종 15)에 改給된 順治 명의의 도서에서 順治라는 인물 역시 가공인물로, 대마도는 그 외에도 牧山正(壱岐)·宗茂家(筑前)·涉川政教(肥前, 2회)·源吉見(長門)의 6명의 名義로 세건선 7회분을 입수하였기 때문에 도주 세건선 25척(<사료 2>의 ㉔)과 합하면 연간 통교 횟수는 32회 정도로 회복되었으며, 僞使 운용에 의해 통교 권익의 완만한 회복을 시도한 것을 알 수 있다.¹³⁸⁾

대마도는 이러한 방법 등을 통해 1540년까지 총 65회 이상(島主 名義 세건선 30척, 受職人을 포함한 僞名義 35회)의 연간 통교 회수를 만들었다.¹³⁹⁾ 즉 대마도의 주도하에 16세기 말까지 소위 ‘임신약조 35인’에 대한 접대 부활 교섭이 집요하게 이루어진 것이다.¹⁴⁰⁾ 이것은 조

133) 田代和生·米谷均, 앞의 논문, 1995, 18쪽·22쪽

134) 田代和生·米谷均, 앞의 논문, 1995, 22쪽.

135) 米谷均, 앞의 논문 1997, 10쪽.

136) 田代和生·米谷均, 앞의 논문, 1995, 43~44쪽.

137) 현재 九州國立博物館 소장. 九州國立博物館(<https://www.kyuhaku.jp>) 사진. 印影은 필자 촬영.

138) 田代和生·米谷均, 앞의 논문, 1995, 37~38쪽; 荒木和憲, 앞의 책, 2017, 164쪽.

139) 荒木和憲, 앞의 책, 2017, 186~187쪽. 이와 관련한 1519년(중종 14)에 改給된 源正의 圖書 印影과 1520년(중종 15) 개급된 政教의 도서 印影이 확인되고, 1520년에 개급된 吉見의 도서 실물이 남아있다(田中健夫, 『中世対外關係史』, 東京大学出版会, 1975, 281~289쪽). 이들 源正, 正教, 吉見, 順治 도서의 개급 시점으로 볼 때, 이들이 상당히 이른 시기에 名義 회복이 이루어져 조선과의 통교가 재개되었음을 알 수 있지만, 源正, 正教, 吉見 역시 백 년 이상 전에 통교를 시작한 인간이 여전히 생존하여 使者를 보내고 있는 것이 되어, 이 도서들이 제3자에 의해 부정 이용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米谷均, 앞의 논문 1997, 5쪽).

선이 임신약조를 체결하여 통교를 재개했지만, 삼포왜란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일으킨 대마도에 대해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았던 점에도 기인한다. 즉, 조선은 島內 통교 회복에 대해서는 항상 엄격한 태도로 임했기 때문에, 대마도는 島外 통교 名義를 거짓으로 부풀려서 자신의 통교와 권익 증대에 힘쓴 것이다.¹⁴¹⁾ 그리고 대마도 宗家에 秘藏되어 있던 圖書와 木印은 이러한 위사 파견을 실증하는 것¹⁴²⁾과 동시에 삼포왜란과 임신약조 이후 조선과의 통교 무역이 대마도에 의해 독점되는 과정과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5. 맺음말

1510년 삼포왜란은 조선 전기 한일관계를 변화시킨 일대 사건으로, 대마도는 삼포왜란 직후인 1511년과 1512년 일본국왕사 弼中을 두 차례 파견하여 단절된 조선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1511년 일본국왕사는 牙符를 가지고 있던 大內殿에게 대마도가 일본국왕사 파견을 청부한 것으로 소위 ‘僞使’라고 볼 수 있다. 다만, 1512년의 일본국왕사는 幕府로부터 정식의 아부를 발급받았는데, 막부가 삼포왜란 이후 대마도의 修復 교섭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즉, 당시 일본국왕사가 가지고 온 아부는 진짜이지만 국서는 가짜일 가능성이 있고, 또 국서가 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1512년 일본국왕사는 완전한 僞使인지 眞使인지 확실하지 않은 측면을 가지고 있다.

1511년 일본국왕사 弼中이 조선에 왔을 때, 그는 삼포왜란과 관계없는 여러 섬의 왜인, 특히 少貳殿의 使送이 조선에 올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그 결과 1512년 1월 조선에 少貳殿의 使船이 와서 통교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이들은 대마도가 창출해서 조선에 보낸 僞使였다. 즉 1497년 少貳殿 政尙은 大內殿에게 패망하여 죽었으므로, 그 이후 그와 관련된 것은 대마도가 파견한 僞使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511년 일본국왕사 弼中이 대마도의 청부를 받았거나, 또는 대마도와 少貳殿 僞使 파견을 결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512년 대마도는 일본국왕사 弼中, 大內殿의 使送, 對馬島의 特送을 조합하여 조선의 요구대로 삼포왜란을 일으킨 首謀者의 首級을 가지고 와서 재차 조선과의 화친을 요청하여 마침내 임신약조가 성립하였다. 그러나 임신약조의 내용은 계해약조와 다르게 대마도가 철저하게 배제된 것이어서 조선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대마도의 경제적 상황을 반감 또는 약화시키는 조치들이 많았다. 이에 대마도는 임신약조 직후부터 폐지되었던 조항을 무력화시키거나 부분적으로 개정하는 시도를 하였다.

대마도는 임신약조에서 특송 파견이 폐지되었음에도 여러 차례 특송을 파견하여 조선의 접대 가능 여부를 시험해 보고 세건선을 늘리려고 노력하였다. 또 僞일본국왕사를 지속적으로 파견하여 薺浦로 국한되었던 浦所를 釜山浦까지 추가하였고, 세건선을 25척에서 30척으로 증액시켰다. 그리고 대마도는 사망자의 名義나 가공인물을 만들어 島內의 세건선 증액을 시도하였고, 이 僞名을 통한 방법을 심처왜에게 적용시켜 일본 본토의 수직·수도서인을 증가시키는 것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즉 임신약조 이후 대마도가 통교권을 확대한 방법 중 하나로 심처왜 名義를 이용하는 것이 더 광범위해졌으며, 이는 僞使의 확대로 이어졌다. 대마도 宗家

140) 米谷均, 앞의 논문 1997, 2쪽.

141) 米谷均, 앞의 논문 1997, 3쪽.

142) 田代和生·米谷均의 논문에는 각 圖書·木印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쓰여 있는데, 이를 통해 대마도가 僞使를 파견하기 위해 가공인물의 도서를 지급받고, 목인을 만들어 왔음을 알 수 있다(田代和生·米谷均, 위의 논문, 1995, 참고).

에 秘藏되어 있던 圖書와 木印은 이러한 대마도의 위사 파견을 실증하는 것이다.

한편 1512년 조선과 대마도 사이에서 맺어진 임신약조의 기본적인 내용과 성격은 1443년 계해약조와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즉, 계해약조와 임신약조는 기본적으로 조선의 對일본 통교제한책의 역할을 해왔고, 그 결과 대마도는 조선의 통교제한책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벗어나거나, 돌파하거나, 무력화하는 시도를 해왔다. 그중의 하나가 바로 소위 '위사'의 창출이었음은 분명하다.

결론적으로 계해약조는 대마도가 이러한 '위사'를 만들어 낸 계기가 되었고, 임신약조는 이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즉, 15세기 중반부터 심쳐와 名義를 이용한 대마도의 조선 통교가 시작되었다는 지적¹⁴³⁾은 바로 계해약조 이후 대마도가 '위사'를 창출하기 시작하였다는 것과 같다. 결과적으로 대마도의 '위사'가 삼포왜란 이후 임신약조의 체결 과정에 주도적으로 등장한 것 역시 계해약조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고, 임신약조 이후 대마도의 對조선 무역 독점이 이루어지는 것 역시 '위사'가 임신약조의 체결 이후 더욱 확대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과 일본에서 관련 연구의 대체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¹⁴⁴⁾

그런데, 일본의 경우 '위사' 문제를 보다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현상, 즉 일종의 '위사 파견 체제(system)'로 파악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것은 일본측 사료를 분석한 결과로, '위사'를 대마도의 宗氏가 조직적으로 운용해 왔다는 것이다.¹⁴⁵⁾ 예를 들면, 대마도주는 자신이 세건선이나 수도서인·수직인 명의를 用益權을 知行地 대신 家臣團에게 급부하거나 물품을 헌상한 사람들에게 주었는데,¹⁴⁶⁾ 용익권이란 일정 기간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하지 않고 사용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대마도주는 실재하는 名義人의 圖書나 告身을 입수하거나 실재하지 않는 명의를 창출하여 조선으로부터 圖書와 告身을 받아왔고,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對馬島人들에게 나눠준 것이다.

그리고 대마도주는 이 용익권을 사용하여 조선에 통교하려는 대마도인들에게 문인[吹嘘] 발행 수수료인 吹擧錢을 받았고, 또 使船 발송시에는 公物(貢物·貢錢)을 받았고, 이에 따라 명의인이 실재하든 실재하지 않든 그 의사와는 무관하게 용익권 소지자[所務者]에 의해 조선에 送使가 파견되었다.¹⁴⁷⁾ 이것은 바로 대마도의 위사 파견이 상당히 구조적이고 체계적이어서 시스템화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대마도의 위사 파견의 구조와 실태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례 연구가 필요해 보이지만, 대마도를 중심으로 한 위사 파견의 구조적, 체계적인 현상은 향후 한국의 연구에서도 참고할 부분이 있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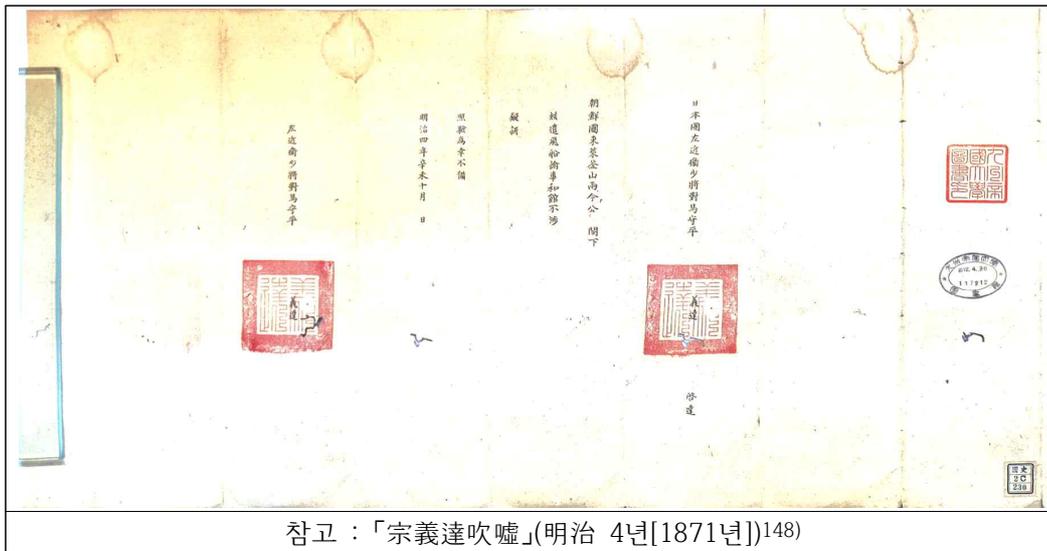
143) 長節子, 앞의 책, 2002, 291~294쪽; 米谷均, 앞의 논문, 1997, 17쪽.

144) 15~16세기 이후 대마도의 '위사' 창출로 인한 대조선 무역 독점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荒木和憲, 앞의 책, 2017; 米谷均, 앞의 논문, 1997; 윤유숙, 「16세기 후반 일본의 對外政策과 對外認識 -秀吉의 대륙정복계획을 중심으로」, 『문화사학』 23, 한국문화사학회, 2005 등을 참고.

145) 荒木和憲, 앞의 책, 2017, 95~96쪽.

146) 米谷均, 앞의 논문, 1997, 10~12쪽.

147) 米谷均, 앞의 논문, 1997, 10~12쪽.



148) 현재 九州大學 圖書館 소장. 이는 현존하는 유일한 文引으로 이와 관련된 소개는 伊藤幸司, 「九州大學所藏「宗義達吹嘘について」, 『九州史学』132, 2002 참고.

【참고문헌】

1. 자료

『朝鮮王朝實錄』(『端宗實錄』, 『世祖實錄』, 『成宗實錄』, 『燕山君日記』, 『中宗實錄』, 『明宗實錄』), 『東閣雜記』, 『淸江先生鯨鱗瑣語』, 『稗官雜記』, 『己卯錄補遺』, 『記言別集』, 『大東野乘』, 『東國輿地志』, 『慕齋集』, 『續東文選』, 『燃藜室記述』, 『宗左衛門大夫覺書』, 『海東雜錄』, 『海東諸國紀』.

2. 단행본

長節子, 『中世国境海域の倭と朝鮮』, 吉川弘文館, 2002.
橋本雄, 『中世日本の国際関係-東アジア通交圏と偽使問題-』, 吉川弘文館, 2005.
須田牧子, 『中世日朝関係と大内氏』, 東京大学出版会, 2011.
伊藤幸司, 『中世の博多とアジア』, 勉誠出版, 2021.
伊藤幸司, 『中世日本の外交と禅宗』, 吉川弘文館, 2002.
田中健夫, 『對外關係と文化交流』, 思文閣出版, 1982.
田中健夫, 『中世對外關係史』, 東京大学出版会, 1975.
村井章介, 『中世倭人傳』, 岩波書店, 1993.
荒木和憲, 『対馬宗氏の中世史』, 吉川弘文館, 2017.
荒木和憲, 『中世対馬宗氏領国と朝鮮』, 山川出版社, 2007.

3. 논문

구자원, 「16세기 전반 조선의 대일통교정책 변화와 約條」,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18.
김동현, 「중세 후기 大内氏의 對 조선통교」,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21.
남택주, 「三浦倭亂과 對日관계의 변화-대마도와의 관계에 국한하여-」, 청주대 석사학위논문, 2013.
심민정, 「삼포왜란의 발생원인과 대마도」, 『동북아문화연구』 1-34, 2013.
윤유숙, 「16세기 후반 일본의 對外政策과 對外認識 -秀吉의 대륙정복계획을 중심으로」, 『문화사학』 23, 2005.
이재범, 「三浦倭亂의 歴史的 性格에 대한 再檢討」, 『한일관계사연구』 6, 1996.
이현종, 「三浦倭亂原因考」, 『海圓黃義敦先生古稀紀念史學論叢』, 1960.
이현종, 「三浦倭亂後 對倭交渉再開始末에 對하여」, 『역사교육』 5, 1961.
이현종, 「三浦倭亂後 倭人接待貿易에 對하여」, 『한일문화』 1-1, 부산대 한일문화연구소, 1962.
이형배, 「삼포왜란후(三浦倭亂後) 모재(慕齋) 김안국(金安國)의 대일외교(對日外交) 논리와 전략」, 『해양유산연구』 15, 2021.
케네스 로빈슨(K. R. Robinson), 「15~16세기 일본의 偽使와 조선인의 송환」, 『동북아역사논총』 28, 2010.
하우봉, 「일본과의 관계」, 『한국사 22-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국사편찬위원회, 1995.
하우봉, 「조선 전기 부산과 대마도의 관계」, 『역사와경계』 74, 2010.
한문중, 「壬辰倭亂 직전의 국내정세와 韓日關係」, 『인문과학연구』 21,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9.

- 한문종, 「조선전기 倭人統制策과 통교 위반자 처리」, 『왜구·위사 문제와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2005(a).
- 한문종, 「僞使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 중·근세사 한국편』,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2005(b).
- 한문종, 「조선전기 한일관계사 연구의 학설사적 검토」, 『전북사학』 28, 2011.
- 한성주, 「1443년(세종 25) 癸亥約條의 船數 문제에 대한 재검토」, 『한일관계사연구』 87, 2025.
- 米谷均, 「十六世紀日朝關係における僞使派遣の構造と実態」, 『歴史研究会』 697, 歴史研究会, 1997.
- 伊藤幸司, 「大内氏の外交と大友氏の外交」, 『大内と大友, 中世西日本の二大大名』(鹿毛敏夫編), 2013.
- 田代和生·米谷均, 「宗家旧蔵「図書」と木印」, 『朝鮮學報』 156, 1995.
- 田代和生·六反田豊·吉田光男·伊藤幸司·橋本雄·米谷均, 「僞使」,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 중·근세사 일본편』,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2005.
- 中村榮孝, 「三浦における倭人の争亂」, 『日鮮關係史の研究』 上, 吉川弘文館, 1965.
- 中村榮孝, 「朝鮮中宗の対日約條更定 - 壬申約條の成立とその廢棄 - 」, 『朝鮮學報』 53, 1969.
- 荒木和憲, 「16世紀日朝交流史研究の学説史的検討」, 『第2期 日韓歴史共同研究報告書(第2分科会編)』, 日韓歴史共同研究委員会, 2010(「16세기 日朝交流史 연구의 학설사적 검토」,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3권).
- 荒木和憲, 「中世後期における對馬宗氏の特送船」, 『九州史學』 第135號, 2003.

4. 기타

- 조선왕조실록(<https://sillok.history.go.kr/>).
-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
- Discover Japan(<https://discoverjapan-web.com/article/46435>).
- 九州國立博物館(<https://www.kyuhaku.jp>).

【토론문】

「1512년 조선과 대마도의 壬申約條 체결과 僞使 문제」에 대한 토론문

송중호(방송통신대학교)

오늘 발표자이신 한성주 선생님은, 중근세 시기 조선을 둘러싼 중국, 여진, 일본을 아우르는 동아시아 지역을 조망하는 시각을 통하여, 전근대 대외관계사 연구에 관한 새로운 지평을 개척해 오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지난달 말에 『한일관계사연구』에 게재된 논문 준비 과정에서, 한성주 선생님의 두만강 유역 여진인 관련 논문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한성주 선생님은 올해 초에 1443년(세종25) 계해약조에 관한 논문도 발표하셨습니다. 계해약조를 구성하는 하나의 규정으로 여겨져 왔던 ‘대마도주의 특송선 무제한 허용’ 약정이 사실은, 계해약조 체결 때가 아니라, 1443년 이후 10여 년에 걸친 대마도의 변칙과 조선 조정의 포용 과정을 통해 비로소 성립했다는 견해를 제시하셨습니다. 이 역시 15세기 한일관계사 연구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주신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위 논문에 이어서, 16세기 한일관계사 연구에서 핵심 논제 중 하나인 ‘1512년 임신약조 체결과 그를 둘러싼 위사 문제’입니다. ‘위사 문제’에 관해서는 일찍이 1940~60년대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중세 한일관계사를 전공하는 일본의 주요 연구자들이 모두 이 논의에 참여하면서 이를 주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정도로 ‘위사’ 논의는 적어도 일본에서는 15~16세기 한일관계사 논의에서 핵심 축을 담당해 왔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관해서는 우선 ‘위사’ 연구의 성격상, 중세 일본 국내 역사에 관한 심도 있는 이해 및 일본 내 관련 사료들에 대한 폭넓은 활용이 필수적이었다는 점이 가장 큰 배경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일본 연구자들의 ‘위사’ 연구 성과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15~16세기 조선 조정에 입조한 일본 측 사자 대부분이 ‘위사’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연구자들의 입장에서는, ①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하는 일본 측 사자들의 명의를 믿을 수 없게 되고, 그에 따라 『실록』 문언을 근거로 분석 검토해 온 여러 연구 성과들이 무의미해진다라는 점, 그리고 ② 조선 조정은 이러한 ‘위사’들 대부분의 정체를 알면서도 이를 그대로 수용하고 접대했다는 점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지 하는 점 등에서 일종의 난제에 봉착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점도 ‘위사’ 연구에 관한 한국 연구자들의 관심이 부족했던 한 측면은 아닐까라고도 생각됩니다.

이렇게 ‘위사’ 연구의 현주소를 돌아보면, 한성주 선생님의 오늘 발표가 갖는 커다란 의미를 다시금 실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내용을 제가 이해한 데에 따라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2장에서는 ① 1510년 삼포왜란 이후 일본국왕사를 칭하는 봉중(叢中)이 1511년 조선 조정에 대마도와의 화친을 요청하러 왔는데, 봉중 이하 사신단은 대마도주와 연관된 ‘위사’였다고 하시면서, ② 1511년 당시 조선 조정과 봉중 간의 교섭 과정을 정리하셨습니다. 제3장에서는 ③ 1512년 입

조한 소이전(쇼니씨) 사자가 위사였던 점 및 봉중이 소이전 위사 파견에 관련이 있었다는 견해를 제시하셨습니다. 제4장에서는 ④ 1512년 화친 교섭을 위하여 조선 조정에 다시 입조한 봉중 사신단에 관하여 이를 ‘위사’ 또는 ‘진사(眞使)’로 불지 확실하지 않다고 하였고, ⑤ 임신약조 체결 논의 과정을 서술하시면서 그에 관하여 평가하신 후, ⑥ 임신약조 체결 이후 대마도가 심처왜(深處倭)의 위명(僞名)을 통한 통교 방식 등을 활용함으로써 16세기 조선과의 통교를 독점해 가는 과정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발표는, 지금까지 한국 연구자들의 연구가 부족했던 주제에 관하여 심도 있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여 주셨다는 점에서 연구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토론자로서도 매우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오늘 발표에 관하여 발표자님께 궁금한 점을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첫째, 발표자님의 오늘 발표 속에서 ‘위사’ 용어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제2장에서는, 1501년 봉중이 최초로 조선 조정에 입조했을 때 막부로부터 받은 아부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발표자님께서서는 그를 “위일본국왕사”, 즉 위사였다고 하셨습니다(발표문 3쪽). 또 1511년 봉중 사신단에 대해서도 “봉중이 아부와 서계를 소지하였더라도 일본국왕이 아닌 제3자에 의한 파견이라면, 당시 그는 위사였다.”고 하셨습니다(발표문 4쪽). 그런데 제4장에서 1512년 봉중 사신단에 관해서는 막부로부터 아부가 발급되었다는 등 여러 논거들¹⁴⁹⁾을 제시하시면서 “1512년의 일본국왕사는 완전한 위사인지 진사(眞使)인지 확실하지 않다.”(발표문 12쪽)고 하셨습니다.

물론 발표자님께서 위사 여부를 판별하실 때 여러 측면을 모두 살펴보셨겠지만, 적어도 발표문 상으로는, 동일하게 막부로부터 아부를 받은 사신들에 대해서 발표자님의 견해가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실제로 그 시기 입조한 봉중 사신단의 성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위사’ 용어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또는 ‘위사’ 용어를 어느 유형의 사자에게까지 적용할지 라는, 개념 정의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연구자들이 ‘위사’라는 용어를 쓸 때는, 그것은 그 형식적인 명의를 범위 측면에서, 거짓 사자, 거짓 수직인, 거짓 수도서인을 총칭하기도 합니다. 또 다시로 가즈이(田代和生), 이토 고지(伊藤幸司), 한문종 선생님 등 여러 연구자들은 그 ‘거짓’ 내지 ‘통교 위반’의 실제 양상에 따라 이를 세분하여 그 유형별로 고찰을 진행해 왔습니다.¹⁵⁰⁾ 이토 고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자의 유형별로 ‘위사’ 여부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¹⁵¹⁾

이렇듯 ‘위사’ 용어는 연구자 별로 서로 다른 정의 하에 구사되어 왔기 때문에, 발표자님께서 상정하시는 ‘위사’의 개념 및 그 판별 기준을 먼저 제시해 주시면, 발표문 내에 등장하는 ‘위사’, ‘진사’ 등 용어와 그 전후 문장의 의미가 더욱 명확히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49) 예를 들어 발표문 11쪽의 “대마도가 무리하게 위사를 만들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막부에서 ... 정식으로 아부가 발급하였는데, 이것이 1512년의 일본국왕사였다.” 등 참조.

150) 田代和生, 「위사」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3, 15~16쪽; 伊藤幸司, 「일한관계에서 위사의 시대」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3, 2005, 132~133쪽; 한문종, 「조선전기 倭人統制策과 통교 위반자의 처리」, 한일관계사연구논집 편찬위원회 편, 『왜구·위사 문제와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2005, 237~249쪽 (초출: 『日本思想』 7, 2004, 66~78쪽) 등 참조.

151) 伊藤幸司, 앞의 논문, 2005, 174~175쪽 참조.

둘째, 발표자님께서 “임신약조의 내용은 계해약조와는 다르게 대마도가 철저히 배제된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유 중 하나를 대마도가 조선과의 화친을 전적으로 일본국왕사에게 맡겼던 점으로 보셨습니다(발표문 14쪽). 그러나 이러한 서술은 1512년 봉중 사신단을 위사로 보는 통설 견해, 그리고 위사인지 진사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발표자님의 견해와도 어느 정도 충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발표 내용에도 있었듯이, “당시 대마도주였던 소 요시모리(宗義盛)가 막부 및 오우치씨와의 두터운 관계를 이용하여 조선과의 강화교섭을 위해 일본국왕사 파견을 실현시킨 것”(발표문 11쪽)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일본국왕사인 봉중 역시 대마도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하였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렇다면 대마도가 협상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일까, 또는 ‘대마도가 일본국왕사라는 형식을 이용하여 열심히 강화교섭에 참여했지만, 조선으로서는 삼포왜란에서의 대마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일단 통교 창구는 다시 허용하되, 그 조건을 대폭 축소한 것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에 관한 발표자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오늘 발표와 관련해서 ‘임신약조 체결 과정 및 왜사’라는 주제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성과 및 그에 관한 발표자님의 평가가 궁금해졌습니다. 발표문의 본문 및 각주를 통하여 선행연구들의 면면이 나열되어 있기는 합시다만, 그 내용이 발표문 전체적으로 분산되어 있어서, 이 주제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진전되어 왔고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에 관한 그림은 (적어도 저에게는) 쉽게 떠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발표문 앞쪽에서 선행연구가 미리 정리되고 그에 대한 평가가 함께 제시된다면, 발표자님의 오늘 발표가 기존 선행연구들과 차별화되는 지점, 그리고 발표자님의 오늘 연구 성과가 우리나라 16세기 위사 연구에서 갖는 중요한 의미 등이 자연스럽게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넷째, 너무 기초적인 질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발표 제목은 ‘1512년 조선과 대마도의 壬申約條 체결과 僞使 문제’입니다. 이 제목은 그 문자대로만 보면 ‘임신약조의 체결 과정’과 ‘위사 문제’라는 두 가지 논제가 병렬적으로 나열된 구조입니다. 그렇지만 ‘임신약조 체결 과정에서의 위사 문제’와 같이 ‘위사 문제’를 주로 고찰하는 것처럼 읽힐 수도 있습니다. 반면 오늘 발표의 목차에서는 ‘1511년 1차 교섭 - 1512년 소이전사의 통교 - 1512년 2차 교섭’의 순으로 돼 있어서, ‘임신약조 체결 과정’을 위주로 고찰하는 발표로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발표 내용에는 이 두 가지 논제에 관한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관해 발표자님께서 발표문을 작성하실 때의 의도, 또는 저희가 오늘 발표문을 독해할 때 유의하여야 할 방향성을 다시 한번 알려 주시면, 오늘 발표 내용을 이해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발표

무진년 조선통신사 귀로에서의 갈등과 해법

발표 : 다사카 마사노리(선문대학교)

토론 : 이재훈(동의대학교)

【제2주제】

무진년 조선통신사 귀로에서의 갈등과 해법

다사카 마사노리(선문대)

1. 들어가며

한일 우호관계의 상징으로 인식하는 조선 후기의 조선통신사, 그중에서도 정묘(1747)년 11월에 사폐(辭陞)하고 무진(1748)년 윤7월에 복명한 제10차 조선통신사는 양국에서 제도가 정비된 안정기에 파견된 통신사라는 평가이다.¹⁾ 그러한 안정기에 파견된 통신사라고 하더라도, 귀로에는 호행하는 대마번과의 갈등이 발생하기 쉬운 조건이 갖추어진다. 제10차 통신사 귀로에도 심한 피로와 귀국 길을 서두르는 마음에, 막부가 정한 일정을 준수하고 사고를 예방해야 하는 처지에서 내리는 대마번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일이 몇 차례 발생하였다. 통신사 귀로에서 발생한 극단적인 사건으로는 15년 후의 제11차 계미년 통신사 때에 大坂에서 도훈도 최천종이 대마번 통사에 의해 피살된 사건이 유명하다. 이 글의 연구 대상인 제10차 통신사에서는 그러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 무진년 통신사의 귀로 大坂에서 대마번과 통신사 일행, 특히 정사 홍계희(洪啟禧) 사이에서 벌어진 갈등이 표면화하는 일이 있었다.

종사관 조명채가 저술한 사행록 『봉사일본시문견록(奉使日本時聞見錄, 이하 『봉사』로 표기)』²⁾ 및 대마번의 종가문서에 귀로 大坂에서 대마도까지의 여정에서 발생한 갈등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둘러싸여 대마번의 지시를 삼사가 따르지 않은 것이었다. 1. 하마찰(下馬札) 설치 장소(京都, 大坂), 2. 大坂의 승선 날짜와 승선 장소, 그리고 3. 대마도 도착시 정박 장소이다.

이 글은 갈등에 대응하는 대마번의 모습을 『봉사』와 종가문서를 통하여 조명하려고 한다. 살펴보는 종가문서는 『연향신사기록(延享信使記錄)』이다. 목록상 121권에 번외(番外) 4권, 총 125권에 이르는 방대한 기록물이다. 또한 선례를 확인하기 위해 임술(1682)년, 신묘(1711)년, 그리고 기해(1719)년 신사기록 등도 살펴본다.

2. 하마찰 설치 장소

1) 京都

먼저 『봉사』에 따라 7월 1일부터의 기록을 살펴본다. 이날은 초하루라 통신사 일행은 한양을 향해 망꺽례를 올림으로써 한 달을 시작하였다. 또 수역 박상순이 네덜란드제 총기류를 구매하였다며 군관 이일제가 구매한 총기보다 못하다는 기록이 이어지고, 어제까지 통과한 지역에서 접대를 맡았던 미노노카미(美濃守)³⁾가 첩과(謁瓜) 1상자 보내왔다는 기록 다음에 소요시유키(宗義如)가 삼사의 숙소를 찾아가서 삼사와 면담한 기록이 이어진다.

이 면담에서 특이한 것은 정사 홍계희가 宗義如에 필담으로 대마번 인사의 무례함을 직언

1) 三宅英利, 『近世日朝關係史の研究』, 文獻出版, 1986.

2) 조명채, 민족문화추진회 옮김, 『봉사일본시문견록』, 『(신편국역) 사행록 해행총재14』, 한국학술정보, 2008.

3) 오카베 나가야키라(岡部長著) 1712~1756년, 기시와다번[岸和田藩] 제5대 번주. 각 지역에서 접대를 담당한 것은 막부가 임명한 그 지역 번주(藩主)들이며 고치소인(御馳走人)이라고 했다.

하였다는 것이다.⁴⁾ 실제로는 宗義如는 남계(栢溪) 평국빈(平國賓)을 시켜 해석하게 하였다. 평국빈이란 신분가키야크[眞文書役] 오우라 마스노신[大浦益之進]이며, 후일에 아사오카 이치가쿠[朝岡一學]로 개명한 신분야크[眞文役] 아비루 다로하치[阿比留太郎八]와 함께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의 대표적 제자이다. 흥계희가 역관을 통하지 않고 宗義如와 필담하게 된 이유는 역관이 정사의 말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정사에게 있었기 때문이다.⁵⁾ 그 자리에서 흥계희는 "대마번 사람의 전후 무례한 일 그리고 사행이 속히 떠나고 싶다는 뜻"⁶⁾을 전달하고, 이에 宗義如는 "무례한 것은 그 경중에 따라 구명하여 치죄하겠으나, 사행이 곧 떠나는 것에 따를 수 없다. 관소에 머무르는 날수와 연로의 지공(支供)이 정해져 있다."⁷⁾는 답변을 한다. 이에 흥계희가 내일은 떠나겠다고 하자, 宗義如는 명일에도 모시고 갈 수 없다고 대답하여 차를 마시고 파하게 된다. 宗義如가 떠난 후, 두 장로를 불러서 필담과 시를 주고받았다는 내용으로 이날의 기록은 끝난다.

『연향신사기록』 중, 통신사를 호행하는 부교가타[奉行方]의 매일기를 보면 정사의 불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먼저 정사가 직접 붓을 들어 적은 글은, 박상순이 받아 대마번의 통사 아비루 순자부로[阿比留俊三郎]에게 건넨 다음, 아비루가 가로[家老] 스키무라 다이조[杉村大藏]를 통해 宗義如 앞으로 전달하였다. 그리고 大浦가 宗義如 앞에서 읽었다는 것이다. 정사가 적은 글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京都에서 하마찰이 번주 숙소 앞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선례와 달라 어떻게 된 일입니까. 게다가 국서 앞뒤 행렬을 말에서 내리게 하고 때리고 칼로 위협하는 무례가 한번이 아니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런데도 주인과 손님 사이에서 그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일일이 따지기도 어려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도 하마찰이 숙소 대문 훨씬 앞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문의하는 가운데 부사가 가마 안에서 새벽까지 오고 가도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타국에서 온 사신을 욕되게 한 셈이니 오래 숙소에 머무를 수 없어, 오늘 승선하기를 원하니 국서를 모시는 사람과 말을 준 비해 주기 바랍니다.⁸⁾

京都에서 통신사 일행의 숙소는 혼코크지[本圀寺], 번주 숙소는 엔류인[円龍院]이다. 혼코크지는 4만 평 이상이 되는 땅에 56개의 자원(子院)이 있고 엔류인이 그중 하나였다. 삼사 숙소는 혼코크지 안의 4천 평에 이르는 호쥬[方丈] 구획에 있었다. 왕로에서는 호쥬 100~150 미

4) 이하 이날의 기록은 [慶應冊子47-内題100] 『信使記録 百 御下向守山御發馬ち京大坂御在留中毎日記』 및 [慶應冊子49-内題104] 『信使記録 百四 御下向京都大坂在留中信使奉行方毎日記』, 慶應義塾圖書館 소장, 7월 1일조. 이하 慶應義塾圖書館 소장본은 [慶應冊子番号-内題番号], 국사편찬위원회 소장본은 [청구번호]로 표시한다.

5) 『봉사』, 正使以譯舌之傳語,謂有遺漏,而以筆談代之. 한국고전DB, <https://db.itkc.or.kr/>에서 인용. 이하 동일.

6) 『봉사』, 正使備說島人之前後無禮之事,及使行必欲速發之意.

7) 『봉사』, 島主答以此輩之無禮如此.當隨其輕重.即爲究治.而至於使之欲發於今明.萬無肯從之理.此處留館.既有日數.沿路支供亦有定期. [49-104], 7월 1일조. いつれ致吟味,其科=応し,屹度叱り可申候.御上船之儀ハ是=被相抱間敷事=候間,弥定日之通被成度候と被仰達候得ハ.

8) [49-104] 7월 1일조, 其主意ハ京都=而下馬札御宿坊前=立有之候.是ハ先例=違,如何敷事=存候.其上國書前後乘居候者共を爲致下馬,其外處=ち此方之者=打擲いたし或は刀を抜,彼は無禮之仕形一度ならず驚入候.乍然主客之間ケ様之儀つと/\=ハ難申上,其向=仕置候.此所=至り又々下馬札表門より遙=外=立有之.其折渡=而副使乘輿之体之俣夜半ち暁方迄致論談候様相成り,畢竟他国之使者を辱られ候と申者=御座候得ハ久々館内江逗留可仕様無御座候ゆへ,今日乗船仕度御座候間,國書前後堅用之人馬御用意被成被下候様=.

터를 앞둔 엔류인 문 앞에 하마찰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 그곳이 선례와 다르다는 것이다.

[590] 4월 1일조에, 京都에서의 접대를 맡은 마치부교[町奉行]와 대마번이 신묘(1711)년의 선례를 따라 통신사 행렬 앞과 뒤에서 호행하는 대마번 사람은 혼코크지 대문 앞의 하마찰에서, 통신사 일행은 혼코크지 경내에 들어가 설치된 하마찰에서 말에서 내리는 것을 협의⁹⁾한 내용이 보이고, 4월 7일조에, 경내의 하마찰은 통신사 숙소 문 앞에 설치하기로 한 기록이 보인다.¹⁰⁾ 따라서 『봉사』가 선례라고 주장하는 하마찰 위치는 삼사 숙소 바로 앞이다. 그런데 일행이 京都에 도착한 5월 2일 [654] 기록에는 "삼사 숙소 앞쪽 번주 숙소 앞을 조선인이 말을 타고 지나가지 못하니 말에서 내려야 하므로 말을 담당하는 2명, 통사 2명, 아시가루 3명을 배치한다."¹¹⁾는 내용이 있다. 번주 숙소는 삼사 숙소 150미터 정도 못 미쳐 앞쪽에다. 삼사는 가마를 타고 숙소 입구까지 갈 수 있으나, 국서 및 삼사를 말을 타고 모시는 통신사 일행은 선례대로라면 숙소 대문 앞까지 갈 수 있는데, 이날은 숙소 대문까지 150미터 전방에서 말에서 내려야 하였다. 이상이 왕로의 일이었다. 번주 숙소 앞에서 통신사 일행이 하마해야 한다는 것은 임술(1682)년 7월 20일조에 "이전에는 상상관을 비롯 모두 하마하였으나 이번에는 그럴 필요 없다."¹²⁾라고 하는 기록이 있다. 따라서 왕로에서 번주 숙소 앞에서 하마하게 하는 것은 선례에 맞지 않는다. 통신사는 불필요한 예를 강요당하여 항의할 수밖에 없는 처지임이 틀림없었다.

귀로 京都 도착은 6월 27일, 이보다 7일 전 [590] 6월 20일조를 보면, "왕로 하마찰을 협의하여 설치하였으나 번주 숙소 앞에서 말에서 내려야 하니 혼잡을 빚어서 좋지 않았습니다.¹³⁾ 이번 귀로에서 하마찰을 옮겨 번주 숙소 북쪽 길 좌우 양쪽에 설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¹⁴⁾ 라는 기록이 있다. 신묘(1711)년의 선례 및 왕로 때와 다른 곳이었고, 왕로 때보다 더 먼 곳이었다. 대마번은 통신사 일행이 번주 숙소 앞을 말에서 내려서 지나가게 하는 데 성공하였으나 삼사의 신기를 더 불편하게 하였다.

하마찰 위치도 문제이지만 일행을 말에서 내리게 하는 과정에서 폭력과 위협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삼사는 자신들이 손님으로서 접대하는 쪽에 항의하는 것이 예의가 아니라고 절제한 만큼 절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大坂에서도 하마찰이 숙소 대문 훨씬 앞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부사 남태기(南泰耆)가 새벽까지 가마 안에 갇히는 일이 벌어졌다. 흥계희는 참을 만큼 참았고 한시라도 속히 떠나고 싶어 하였을 것이다.

이에 宗義如는, 하마찰은 막부가 관리하여 대마번이 관여할 수 없는 일이며, 무례한 일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과실이 있다면 벌하겠지만¹⁵⁾, 이는 승선과는 무관한 일이어서 거듭 오늘

9) [590]『延享信使記録 二十五』「京都御役人様方より御尋答并御伺御返答御届之賞書」, 此儀正徳年二茂下馬札二所ニ相立候ハ、信使着之節一所ニ下馬札有之候而ハ不殘乘リ込候節境内手狭ニ候得者、殊外混雜可仕候故、先乗跡乗之分者本圀寺惣門ニ而致下馬、行列計乘リ込候得者、操出等致能可有之候付、二所ニ相建申事御座候。併思召次第ニ御座候段申達候處、又々被申聞候ハ、成程御尤存候。左様之義此方ニ而曾而心付不申儀ニ御座候。委細下総守へ申聞追而可御意候。下馬札建所ハ御立会可及御相談候由被申聞罷歸。

10) [590], 本坊ニ罷越門脇ニ有之本地院之門ニ南之所ニ内下馬札立之。

11) [654]『延享信使記録 七十三 出馬帳』, 京都客館本圀寺手前殿様御宿坊故、御本陣前朝鮮人乘通り不申候様ニ、若し乘通イ候ハ下馬致させ候様ニ与之御事故、出馬方下役式人通詞式人足輕三人罷出居下馬仕候様下知仕。

12) 이재훈 편저 『임술년도 조선통신사 봉행매일기 번각』, 경진출판, 2022, 55쪽. 필자 번역.

13) 혼잡을 빚은 이유를 번주 숙소 앞이라고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번주 숙소 앞에서 하마하는 것이 번주에 대한 예를 갖추는 의미가 되어 통신사 격에 맞지 않아 예가 아니라고 통신사가 항의한 것이 혼잡의 이유이다.

14) [590], 參向之節下馬札之義御互ニ申談候上相建置候處、對馬守宿坊前ニ而朝鮮人共下馬之訳ニ付殊之外致混雜、手番甚不宜候可相成事ニ候ハ此度ハ下馬札御建替被成、對馬守宿坊之北手左右ニ横道有之候間、右横道之角左右ニ下馬札下乘札御建被下候得かし。

승선을 요구하지만 정해진 날에 승선해야 한다고 답하였다.¹⁶⁾ 오늘 승선을 거듭 삼사가 요구한다고 한다. 처음 승선을 요구한 것은 전날인 6월 29일이었다.

御供方[47-100] 奉行方[49-104] 양쪽 매일기에 기록이 있다. 신사봉행 平田直右衛門이 御供方을 찾아와서 올린 보고에 鈴木市之進을 보내 전달한 내용은, "갑자기 내일 승선하겠다는 말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여기 체류는 막부가 정한 날짜가 있어 여러 곳에서 날짜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고 막부의 선물도 아직 오지 않고 있으니, 덕이 높으신 분이로서 경솔한 언행은 호행과 접대하는 사람들이 후일에 막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곳까지 무사히 오는 데 애를 쓰셨고 귀로 길어지며 순조롭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호행하는 입장에서는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추후 승선 날짜 등 알려 드릴 것이니 불편하셔도 이해하시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날씨도 무덥고 쌓인 피로를 푸시고 안내를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¹⁷⁾이었다. 이에 삼사도 사정을 양해하고 내일 승선하지 않겠다고 답하여 대마번의 지시를 따랐다.¹⁸⁾

이후에도 삼사는 금일 승선을 고집하고 宗義如가 말리는 일이 반복 발생하였다.

2) 大坂

京都를 떠나 大坂에 도착한 것은 6월 28일이었다.

奉行方 매일기[49-104]는 이날 삼사가 오전 6시에 京都를 떠난 것으로 기록한다. 요도[淀]번(藩) 향응역(饗應役) 와타나베 젠우에몽[渡邊善右衛門]이 작성한 『朝鮮人來聘記』¹⁹⁾에는 오전 9시쯤에 통신사 일행이 淀에 도착하였다고 기록한다. 宗義如는 배에서 내려 준비된 장소에서 휴식을 취했으나 奉行方 매일기[49-104]에 따르면, 통신사 일행은 휴식을 취하지 않고 바로 막부가 준비한 배에 올라타고 배에서 식사를 한 후, 11시쯤에 大坂로 향하였고, 도중 오후 1시쯤에 히라카타[枚方]에 도착, 宗義如가 大坂 도착이 밤늦은 시간이 되어 혼잡한 상황이 벌어질 것을 염려하여 삼사에게 바로 枚方을 출발하도록 제안하여 출발,²⁰⁾ 저녁 7시쯤에는 大坂의 선박장 기타하마[北濱]에 도착하였다고 기록한다. 일정을 앞당겼기 때문에 숙소까지의 말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종사관만 육지에 오르고 정사와 부사는 배에서 숙박한다는 뜻을 대마번에 전달해 왔다.²¹⁾ 이에 宗義如는 막부가 준비한 배이니 육지에 올라 숙소에 들도록 신사봉행(信使奉行) 히라타 나오우에몽[平田直右衛門] 및 재판(裁判)

15) 『봉사』 4일조에는 宗義如가 조사한 결과 3명을 귀양 보내기로 하였으나 믿을 수 없다는 기록이 있다. 하지만 신사기록에는 3명을 귀양 보낸 기록이 없다.

16) [49-104], 御上船之儀ハ是ニ被相抱間敷事ニ候間, 弥定日之通被成度候と被仰達候得ハ, 是非今日上船仕度との由, 又々被申間候付, 其趣ハ決而相成申間敷候.

17) [49-104], 俄ニ明日御上船可被成旨被仰候由申間先以驚入候. 爰元逗留之儀者東武ち御定日茂有之候付諸向之手当諸方共ニ其日数ニ相心得, 既ニ別幅さへ未到着不致, 其上大人之御身分ニ而輕率ニ御座候段, 差当爰元之役人中存念, 追而江戸表之御沙汰之程恐入候. 是迄万般御首尾能御勤被成候事ニ候得ハ歸路縷々ニ相成不致連続様有之段, 拙者御同伴申居候而ハ幾重ニも御首尾宣様ニと仰存候. 兎角追而上船之日限等可申進候間, 佞令御心底御不快之筋御座候共, 被枉候様被成候儀当然之御処置哉と存候. 何ニ茂当節之大暑駅路之御勞疲御休息被成, 從是之御案内御待可被成候.

18) [49-104], 右御口上上々官朴僉知洪僉知罷出取次候處三使ち御返答, 明日可致上船旨御聞及被成候付委細被仰下候趣致承知候. 明日可致上船と申候ハ誤有之候而之事ニ御座候. 乍然明日之儀者先差扣可申候間, 左様御心得被成候様ニとの儀右兩人を以被申間ル.

19) 『叢書京都の史料11 淀渡邊家所蔵朝鮮通信使關係文書』, 京都市歴史資料館, 2009, 163쪽.

20) [49-104], 殿様御船ち以御使者大坂着, 夜ニ入候而ハ可致混雜候間, 御急御發船有之候様被仰遣, 三使ち相應御返答有之.

21) [49-104], 正使副使ニ者夜ニ入, 殊ニ騎馬等茂未相揃候間, 今晚ハ船ニ一宿可致旨被申間候付, 直右衛門并裁判ち上々官を以色々申諭候得共, 弥今晚ハ致揚陸間敷との返答.

오노 로쿠로우에몽[小野六郎右衛門]을 보내고 수역을 통해 삼사를 설득한 결과 삼사는 밤 11시가 되어서 배에서 내렸다.²²⁾

奉行方 매일기[49-104] 6월 28일조에 의하면, "하마찰이 왕로와 달리 숙소 대문 동쪽에 설치되어 있었으니, 하마찰이 잘못 세워진 곳에서 수행원들은 말에서 내려갈 수 없다. 다시 배로 돌아가겠다."라고 정사 및 부사가 항의한 것이 기록되어 있고,²³⁾ 신사봉행과 재판이 가마를 붙잡고 정사 및 부사와 서로 논쟁을 벌인 결과, 날이 밝아진 후에야 정사와 부사는 숙소 혼간지[本願寺]에 들어갔다고 기록한다.²⁴⁾

大坂 숙소 하마찰 장소는 왕로가 신묘(1711)년 기록에 '미도빈고초[御堂備後町]에 맞닿는 모퉁이'²⁵⁾, 기해(1719)년 기록에는 '정문에서 10미터 정도 북쪽'이었다.²⁶⁾ 귀로에 관해서는 신묘(1711)년 기록에 "왕로와 같다."²⁷⁾고만 있다. 北濱 선착장에서 배에서 내려 국서와 삼사는 가마, 상관과 중관은 말을 타고 숙소로 향하였다. 사카이스지[堺筋]를 700여 미터 남쪽으로 가서 빈고초[備後町]에서 서쪽으로 600미터 거리에 통신사 일행의 숙소 혼간지가 있다. '미도빈고초에 맞닿는 모퉁이'와 '정문에서 10미터 북쪽'은 같은 장소이다. 흥계희가 주장하는 '숙소 대문 동쪽'은 '미도빈고초에 맞닿는 모퉁이' 혹은 '정문에서 10미터 북쪽'에서 빈고초를 동쪽으로 이동한 장소이지만, 구체적인 거리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원래 위치보다 떨어진 곳이다.

그런데 [645]『延享信使記録 七十三 出馬帳』을 보면, 왕로 4월 15일조 '御堂表門에서 13~4미터 북쪽', 4월 20일조 '御堂表門에서 13~4미터 북쪽, 수로를 덮은 곳', 귀로 6월 28일조 "왕로 때는 御堂表門前에서 남쪽에 세웠지만, 귀로는 북쪽 수로를 덮은 곳 쪽으로 남문에서 10미터 북쪽에 세우는 것은 요리키[与力]들의 지시였습니다."²⁸⁾라고 하는 기록이 있다. 6월 28일조에서 "御堂表門前에서 남쪽에 세웠"다는 기록이 4월 15일과 20일 기록 '御堂表門에서 13~4미터 북쪽'과 맞지 않는다. 그런데 大坂 숙소에서 하마하는 곳이 北濱에서 배에서 내려 숙수에 향하는 경우 -배에서 올라오는 때[船揚之節]-와 숙소에서 北濱에 향하는 경우 -가마 출발 때[御發輿之節]-, 하루만에 장소가 바뀌었다. 4월 15일조의 기록이다.

가마 출발 때 조카쿠마치[浄覚町]에서 출발하면 하마찰 앞을 말을 타고 지나 가게 되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마 출발 때는 하마찰을 앞문[表御門] 남쪽에 세우면 문제가 없다고 전하자, 하마찰을 세우는 장소는 우리 소관이 아니니 접대 담당자와 협의하여 가마 출발 때는 앞문 남쪽에 장소를 변경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²⁹⁾

22) [49-104], 殿様ち右ニ付正副使方江御使者を以從事ニハ御揚陸之處,御兩人ハ今晩御揚陸被成間敷由被仰聞候,公儀ち之御船ニ御着之上御一宿可被成様無之儀ニ候間,何分ニ茂御繕御揚陸有之候様ニとの趣被仰遣候處致承知候との段,相應之御返答有之.

23) [49-104], 正使副使子刻頃ち追々被致船揚候處,客館下馬札建所參向ち違表門ち東手ニ寄せ建有之候付,正使副使ち下馬札建所參向と違候間,此所ニ而從者共ニ至り為致下馬候事不罷成候間,直ニ船ニ立戻り可申旨被申聞候.

24) [49-104], 段々折渡ニ相成,輿を被据居論壇ニ及,難決候處,色々申諭候而漸曉方本願寺江被致入輿.

25) [245] 『正徳信使記録 七十二 出馬帳』, 御堂備後町ち行当之隅ニ下馬札立,此所ニ而朝鮮人下馬仕.

26) [19-26] 『延享信使記録 二十六』, 下馬ハ門外表門ち中間程北,此所ニ下馬札相建申候と享保年留書ニ在之候.

27) [245], 三使大坂着船出馬等其外參向同前也.

28) [654] 『延享信使記録 七十三 出馬帳』, 왕로 4월 15일조 御堂表門前七八間北之方, 4월 20일조 御堂表門ち七八間北之方堀蓋之際, 귀로 6월 28일조 參向之節者御堂表門前ち南之方ニ建有之侯得共, 下向之節ハ北之方堀蓋江南門前ち五間程北之方江建之可宣旨, 与力衆被申聞候故.

29) [654] 4월 15일조, 御發輿之節浄覚町ち操出シ候得者下馬札之前を乗通候故差支申候. 乍然御發輿之節者下馬札表御門南之方江御立被成候得者差支間敷旨申達候處, 下馬札立所之義者我々不預義ニ候間, 御馳走方江申談候様被申聞候付, 御馳走方御役人江致面談御發輿之節弥表門南之方江立替候義相極候.

숙소에 들어올 때와 숙소에서 나갈 때에 같은 길을 거꾸로 진행하게 되니 하마찰 장소를 바꾸게 되는 것이다. 6월 28일조에 "御堂表門前에서 남쪽에 세웠"다는 기록은 숙소를 출발할 때의 기록이다. 6월 28일조 기록은 왕로와 귀로의 하마찰 장소가 달랐다는 것이 아니라, 숙소에 들어올 때는 같은 장소 즉 '御堂表門에서 13~4미터 북쪽, 수로를 덮은 곳'이 맞다. 奉行方 매일기[49-104]의 흥계희가 '왕로 때와 달리 숙소 대문 동쪽'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일치하는 기록이 없어 그 주장의 진위를 가릴 수 없다.

그 결과 새벽에 부사 남태기가 숙소에 들어갔다는 [49-104] 7월 1일조를 보면 『봉서』가 "부사가 가마에 탄채로 새벽까지 오고 가도 못한 상황"이라고 서술한 것이 과장이 아니었다.

삼사는 대마번 사람들의 무례함에 분노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서둘러 大坂를 떠나려고 하였다. 7월 1일, 宗義如는 삼사의 숙소를 찾아가서 막부가 지시한 일정에 따라 大坂에 체류할 것을 설득하였다. 御供方 매일기[47-100]는 "수차례 말을 주고받아 설득한바 (삼사는 大坂 체류를) 승낙해 (宗義如도) 숙소에 돌아가셨습니다.'³⁰⁾라고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奉行方 매일기[49-104]는 "수차례 말을 주고받아 설득한바 (삼사는 大坂 체류를) 확실히 승낙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으나, (宗義如는) 일단 이와 같이 답변하고 숙소에 돌아가셨습니다."³¹⁾와 같이 삼사가 宗義如에 설득되지 않았다는 것을 기록한다.

『봉서』는 정사가, 대마도 사람의 무례함, 그리고 속히 떠나고 싶다는 뜻을 고하니, 번주가, 무례함은 경중에 따라 치죄할 것이고, 사행이 속히 떠난다는 뜻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절한 것으로 기록한다.³²⁾ 이에 흥계희가 오늘은 행차를 멈추나 내일은 반드시 떠나겠다고 하였다. 이에 번주는 내일은 봉행하기 어렵다고 답하였다. 번주의 거절에 대한 흥계희의 대응에 관한 기록이 없이 삼차 및 제호탕(醍醐湯)을 권하고 파하였다고 기록한다.³³⁾ 奉行方의 기록이 사실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御供方 매일기가 번주의 설득에 삼사가 마음을 돌리는 식으로 번주의 입장을 돋보이게 기록하였다면, 奉行方 매일기는 번주의 설득에서 삼사는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애매한 기록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奉行方 매일기의 기록은 『봉서』의 기록과도 일치하니, 보다 사실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3. 大坂 승선 날짜

삼사는 불만을 해소하지 못한 채 숙소에서 시간을 보냈다. 2일에는 축자(軸子)에 휘호를 써 달라는 大坂 관반(館伴) 미노노카미(美濃守)³⁴⁾의 청을 받아들여 정사가 서문을 지어 쓰고, 부사 남태기가 백록동부를, 조명채가 적벽부를 써서 주었다.³⁵⁾ 그 외에도 휘호와 시를 청하는 사람들의 요청에 응해 주었고, 宗義如가 사자를 보내 5일에 떠날 것을 전하자, 삼사는 4일에

30) [47-100], 色々折渡ニ而被仰諭候處承引有之,相濟而御歸被成.

31) [49-104], 色々折渡ニ而被仰諭候處駢ト承引有之候様與ハ不相聞候得共,右一段之御返答相應ニ被迎入御歸被成.

32) 『봉서』, 此輩之無禮如此.當隨其輕重.卽爲宥治.而至於使行之欲發於今明.

33) 『봉서』, 正使以爲今承回教.不勝爲謝.爲副勤意.姑停今日之行.而明日則必欲離發也.島主以爲歸路.當歷見此處.町奉行相議更報.而明日則決難奉依耳.遂勸以蓼茶及醍醐湯而罷.

34) 오카베 나가야키라[岡部長著]. 키시와다번[岸和田藩] 제5대 번주.

35) 『봉서』, 館伴美濃守(중략)敢以三箇新軸呈之. 願賜一揮也.(중략)正使作序寫之. 副使書白鹿洞賦. 臣則以八分上書赤賦三字. 以半隸下書其辭.

떠나겠다고 답하였다.³⁶⁾

3일에는 관반(館伴)이 축자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하였고, 宗義如가 사자를 보내 배에 오르는 날이 내일로 변경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알려 왔다.³⁷⁾ 드디어 4일에는 배에 오르게 된 것이다. 선례대로라면 大坂 소재 對馬번저(藩邸)에서 연회가 베풀어지는데, 이번에는 3일에 합의한 대로 예정이 변경되어 준비에 충분한 시간 없어서 한 차례의 주례(酒禮)로 마무리하였다. 게다가 설사 증세를 보인 부사는 먼저 선소(船所)에 가고, 주례에는 정사와 종사관 그리고 수행원만이 참여하였다. 大坂 하구 풍경을 중국 강남의 주요도시이자 장강 하구에 위치하는 아름다운 도시로 유명한 오중(吳中), 그리고 산동성 치천(淄川)가에 위치하여 변화한 곳으로 유명한 치상(淄上)을 거론하여 천하의 승경이라고 칭찬한다.³⁸⁾ 그런데 강을 운항하는 배, 가와고자부네[川御座船]³⁹⁾에서 바다를 운행하는 기선과 복선에 갈아타야 하지만, 풍량이 크게 일어나 강가에 정박한 채 밤을 보내야 하였다.⁴⁰⁾ 바람은 서풍이다. 서풍은 大坂 하구에서 바다로 나가는 경우 쉽지 않은 바람이다.

이상이 『봉사』의 7월 2일~4일의 기록이다. 이와 대조하여 신사기록이 기록한 대마번과 삼사 사이에서 승선을 둘러싸여 기록한 내용을 살피고자 한다.

대마번이 2일에 승선 날짜를 5일로 통보하였다고 하는 기록이 御供方 매일기[47-100]에 있다.⁴¹⁾ 그러나 승선이 바로 출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御供方 매일기[47-100]는 奉行方에 편지로 지시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승선은 5일로 전달하였으나, 삼사가 꼭 4일 승선을 원하고 순풍이라도 출항은 하지 않겠다고 한다는 말을 신사봉행이 전해왔으니, 번주께서 들으시고 4일 승선하신다는 뜻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⁴²⁾ 또 “(4일에) 번주께서 승선하시다가 저녁을 지나 육지에 올라오시고, 6일에 다시 승선하시고 7일 순풍이면 출항하실 것이니 이를 전달하고, 하구에서의 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고 전달하라.”⁴³⁾고도 御供方에서 奉行方에 지시 전달한 기록이 있다.

奉行方 매일기[49-104]는 승선 날짜가 원래 5일이었으나 빨리 떠나고 싶다는 삼사의 요구를 받아들여 하루 앞당긴 것을 요시다 시치자에몽(吉田七左衛門)이 수역을 통해 삼사에 전달하였다고 기록한다.⁴⁴⁾ 대마번이 삼사의 요구를 마지못해 들어준 것처럼 승선을 하루 앞당긴 것으로 하였지만 출항은 7일이었다.

4일은 삼사가 大坂 北濱에서 하구까지 막부가 마련한 가와고자부네를 타고 왔으나, 하구에서 강한 서풍을 만나, 기선에 올라타지 못한 채 가와고자부네에서 밤을 보내게 된다.

御供方 및 奉行方 매일기는 이날의 상세한 기록을 남겼다. 통신사 일행이 숙소를 떠나 정사 흥계희와 종사관 조명재가 대마번저에 들어가, 宗義如와 영장로(英長老) 및 견장로(堅長老)를 만나서 두 번의 읍례 후에 宗義如가 먼저 인사말을, 그리고 흥계희가 답례를 주고받았다. 宗

36) 『봉사』, 馬守送使者問候。且言事多窘急。勢將於初五離發云。以初四日必發之意。答送之。

37) 『봉사』, 館伴來候。且謝軸子之書惠。延接官來言。發行定於明日。

38) 『봉사』, 吳中之佳麗。淄上之繁華。果未知如何。而求之天下之勝。似無踰此者矣。

39) 사행록에는 금루선(金樓船)으로 기록.

40) 『봉사』, 西風益猛。維湖邊。不得前進。

41) [47-100], 來ル五日御上船可被遊旨被仰遣候ニ付, 役々御家中江被相触候様ニ与頭中江申渡。

42) [47-100], 御上船明後五日与被仰出置候處, 三使衆差支之義有之候ニ付, 明四日是非ノ上船仕度候翌日假令順風ニ而も出船者仕間敷との儀被申聞候由, 信使奉行ら御佑筆中村文吉通詞阿比留俊三郎使ニ而申來候ニ付, 其趣達, 御聞候處, 弥明四日御上船ニ被遊旨被仰出候ニ付, 其段返答申遣。

43) [47-100], 殿様御上船被遊, 暮過御上り被成, 六日ニ者御上船被成, 七日順風ニ候ハ直ニ御出帆被遊筈ニ候間, 其通申心得, 三使衆川口異儀かましき義無之様念をつかひ可被置旨申遣ス。

44) [49-104], 御使者吉田七左衛門を以左之通被迎遣候付。(중략)御上船之儀, 來五日與相定置候處, 免角難被差延, 明日四日御上船被成度之旨被迎聞候。

義如가 더위와 기다림으로 지친 일행을 위로하며 "선례대로 술과 과자로 대접하고자 한다."라고 하고, 흥계희는 "(복통을 앓아 배에서 기다리는 부사를 언급하여) 승선이 늦어지니 재삼 향응을 사양하여 차만 대접받고 가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었다.⁴⁵⁾ 그리고 양측이 두 번의 읍례 후에 파했다. 번저를 떠난 정사 흥계희와 종사관 조명채는 나니와바시를 건너 北濱에서 가와고자부네에 올라탔고,⁴⁶⁾ 막부가 설치한 관문 앞을 지나가면서 번주는 배에서 작은 배를 보내서(書)를 막부에 제출하였다.⁴⁷⁾ 이 서가 [10-12]『延享信使記錄 十二人 御註進控』"7월4일 大坂 川口에서 보낸 주진(註進)"이다.

주진이란 한마디로 보고서이다. 신사기록이 수록한 주진은 통신사를 호행하는 宗義如 이름으로 막부에 보낸 보고서이다. 延享신사기록 10~12권 '[557]天, [620]地, [621]人' 3권에 수록되어 있으며,⁴⁸⁾ 통신사가 동래부 도착 후부터 정해진 장소에 도착한 사실을 대마번이 막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⁴⁹⁾ 실제로는 통신사가 한양을 떠났다는 소식을 부산 왜관에서 받은 보고부터 기록되어 있다.

이날 주진에는 대마번 가로 杉村이 삼사에 대한 불만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그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삼사는 江戸를 떠난 뒤 유난히 바닷길에 서둘러 오르려고 하고 타고난 성격으로 감정의 기복이 심하여[氣性甚勵敷] 매사에 신경을 곤두세워, 지난 서장에서 말쑥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뵈고 싶다고 해도 귀찮아서 더위를 핑계로 만나지 않습니다. 大坂 도착 시에 삼사가 면담을 요청하니 도주가 만났습니다. 역관이 통역을 잘못해 실정을 전달하지 못하기에 정사가 스스로 붓을 잡고 전하는 말씀이 사사로운 것들[種々之微事]을 반복 주장합니다. 정사는 의심하여 염려하는 마음이 깊어 신사봉행을 비롯하여 재판 등이 드리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일이 없습니다. 이미 大坂에 도착한 밤에도 사사로운 것[微事]을 빌미로 삼아 배에서 내려가지 않겠다고 하여 설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⁵⁰⁾

삼사의 타고난 성격이 "감정의 기복이 심하여[氣性甚勵敷]"라고 평가하고 있다. 또 앞서 서

45) [47-100], 先格之通御酒御菓子差出可申との義,大藏上々官を以申達候處,御返答,今日者副使茂被相痛,殊上船及延引候由ニ而,再三御饗應達而被及御斷候付,持掛候得共,被任御斷御茶計ニ而相濟被罷歸候.

46) [47-100], 正使從事難波橋を被渡,北濱船場ち上船.

47) [47-100], 公儀御番所之前御通船之節,先達而御使者國分安左衛門小早ニ而被差越御上船之御届被迎遣也.

48) [557] 『延享信使記錄 十 御註進控 天』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국사편찬위원회 소장본 []는 소장문서번호), [620] 『延享信使記錄 十一 御註進控 地』, [621] 『延享信使記錄 十二 御註進控 人』, 왕로에서 [557]에 14차례, [620]에 19차례, 귀로에서 [621]에 9차례 보내진 주진이 수록되어 있다.

49) [557], "信使彼國東萊府江下着以後到着之御案内申上候,所々享保年之例書載差上候,此度茂左之所々より註進可仕候哉."라는 平田將監의 문익에 막부의 "來辰之夏も書面ニて所々より案内可有之候."라는 답이 기록되어 있다. "所々"란 동래 도착, 부산포 승선, 대마도 도착, 이키[壱岐] 도착, 아카마가세키[赤間關] 도착, 大坂 도착, 京都 도착과 출발, 나고야[名護屋] 출발, 순푸[駿府] 출발이라고 명기하고 있는데, 이는 왕로에 해당된다. 귀로에 관해서는 [621]에 순푸 출발, 나고야 출발, 京都, 大坂 도착 및 승선 두 차례, 아카마가세키 출발, 대마도 도착 및 출발 두 차례, 부산포, 그 외에 필요에 따라 보내도록 지시한 것이 기록되어 있다. 왕로에서 모리아마[守山], 오카자키[岡崎], 요시다[吉田], 가케가와[掛川], 에지리[江尻]에서도 주진을 보냈다.

50) [621], 尙々三使衆其御地發足以來ハ頻リニ海路急,其上氣性甚勵敷被相成,諸事物答ニ而先書ニモ申候越通,道中ニ而茂掛御目度との事ニ而候得共御面倒成事故暑氣御中ニ被訖御達不被成候,然處爰元御着ニ付御出被成候處,先格者被仰置義ニ候得共掛御目度與之事ニ而御對談被成候處處抑筆談ニ而正使自筆ニ而譯官共言語不辨ニ而實情不相背候故,申度品筆談ニ而可申上與之事ニ而種々之微事を再三被及文談候,以之外疑慮深ク中々信使奉行を始といし裁判等之申分等被有承引事ニ無之候,既ニ着坂之夜茂微事ニ而揚陸有之間鋪なと申事も有之候得共,御使者等被遣候故,揚陸茂為有之と申様成儀ニ而,切々入組たる衆中工面扱ニ而御座候.

술한 하마찰 건이 "사사로운 것[微事]"이며 이를 빌미로 시비를 건 삼사의 행동을 비난하고 있다. 흥계희에 그 경중에 따라 치죄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무색하다.

매일기에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 감정 표출이 보인다. 杉村이 이끄는 御供方 매일기[48-101] 7월 5일조에는 "덕이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있을 수 없는 행동"⁵¹⁾이라고 비난하고 있으나 주진은 杉村의 직접적인 말로 삼사에 대한 불쾌한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

4. 大坂 출항

7월 4일에 삼사는 승선하였다. 그러나 아직 가와고자부네에서 바다를 운항하는 기선에 갈아 타야 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御供方이 奉行方을 통해 삼사에 '하구에서의 일에 이의를 제기가 없기를'⁵²⁾ 당부한 건이다.

삼사가 탄 가와고자부네는 대마번과 大坂에서 하천 행로를 관리하는 요리키[與力]들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하구에서 바다에 나가는 첫 입구인 이치노수[一之洲]에서 4km 바다로 멀리 와 있었다. 때마침 남서풍이 불어 높은 파도가 일어나 배가 위험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기선이 있는 곳까지 갈 수 없이 가와고자부네를 오치아이[落合]에 정박하기 위해 신속히 하구까지 돌아와야 하였다. 대마번은 지시를 상상관을 통해 전달하였으나 삼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특히 정사 흥계희는 그 지시를 일절 거부하였다. 결과 삼사는 가와고자부네에서 밤을 보내게 되었던 것이다.⁵³⁾

삼사 중에서도 정사 흥계희가 유난히 일본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하천을 운항하는 가와고자부네를 탄 후부터 일본 측 통제가 불가능해져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염려되었다. 아무리 날씨로 인한 자연 현상으로 발생한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해도, 당사자들의 감정 문제가 양국 간에 어려움을 초래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 갈등이 더 심각한 상황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 다행스러웠다. 또 이날 날씨가 좋지 않았다는 것은 『봉사』에도 "늦게 흐리고 가랑비, 서풍이 크게 일었다."⁵⁴⁾라고 있고, "하구 어귀를 나서니 서풍이 더욱 사나워서 호수 가에 메어 두고 전진하지 못하였다. 들으니, 해문에는 풍량이 크게 일어나 배가 키처럼 뒤흔들리어 먼저 오른 우리 배의 사람들이 모두 까무러져 쓰러졌다 한다."⁵⁵⁾라고 기록한다. 종가문서가 위험하였던 상황을 과장해서 기록한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5일의 바람을 『봉사』는 동남풍으로 기록하지만, 奉行方 [49-105]는 동서풍으로 기록한다. 번주는 밤이 되기 전까지 번저에 머물렀다. 삼사는 해상 가와고자부네에서 지냈다.

6일도 바람이 좋지 않아 하구에서 머물렀다.⁵⁶⁾ 오늘 떠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던 삼사는 또 다시 발이 묶여 심기가 불편하였을 것이다. 『봉사』 6일조에는 미노노카미의 사자가 "우리(삼

51) [48-101], 御大人之身分として有之間敷御事.

52) [47-100], 川口異儀かましき義無之様.

53) [49-105], 三使船此方ち之御差圖も不被承引,川方與力衆下知も不被相用,一之洲ち一里程沖二被掛浮,御乗船時分折節南西風吹候而波高ノ船々危々有之候得者,本船之繫場所迄川御座二而被罷越候事も難成,不被得已落合二川御座を差留,直二川御座へ繫船有之候付,御船ち彼所之儀第一要害之難所二候得者我國之人さへ甚大切二存候場所二而,暫時も御本船なと御繫船之所二而無之候間早々川内へ漕入させ候様二被成度之旨被仰遣候付,右之次第上々官共を以申達させ候得共三使承引無之.就中正使一圖承引不被致,一旦掛浮候船漕入候儀者難致との事二而川御座船へ一宿有之.

54) 『봉사』, 晩陰微雨,西風大起.

55) 『봉사』, 出河口.西風益猛.維湖邊.不得前進.聞海門則風浪大作.舟揚如箕.先上我舡諸人.無不昏倒云.

56) [48-101] [49-105], 不順川口(御)滯船. 御供方[48-101] 御자가 있으나 奉行方[49-105]에는 없음.

사) 배가 정박하고 있는 곳이 해문(海門)의 첫머리여서 위태로우니, 속히 끌고 항구로 들어가, 명일 새벽바람을 살펴서 떠날 것이다."⁵⁷⁾라고 한 말을 정확히 전달받은 기록⁵⁸⁾과 함께, "명일 새벽에 반드시 떠날진대 배를 끌고 들어갈 것이 없다."⁵⁹⁾라는 역시 일본 측 지시를 삼사는 무시한 것을 기록하고 있다.

奉行方 매일기[49-105] 6일조의 기록을 좀 더 살펴보기로 한다. 앞으로 바다를 운항하는 삼사의 기선과 그 짐을 실은 복선(을 하구 쪽으로 이동하는 문제)을 두고 엿그제부터 양측이 옥신각신하는 과정에서, 부사와 종사관이 승낙해도 정사 흥계희만이 일본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⁶⁰⁾ 문제는 역풍을 맞게 되면 기선과 복선이 정박하고 있는 지점, 즉 이치노수 부근에 있는 첫 표목(標木)에서 4km 떨어진 먼바다가 일본 내에서도 풍파가 일어날 시에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다.⁶¹⁾ 그래서 번주는 이러한 염려를 스즈키 이치노신(鈴木市之進)을 보내 삼사에게 전달하였다.⁶²⁾ 御供方에서 가로 杉村 다음 서열인 스즈키는 번주가 이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고 오직 삼사의 안전이 중요하니 부디 이해하셔서 지시에 따르기를 요청하였다. 이에 삼사가 일단 이 제안을 승낙하였다는 답변이 돌아왔다.⁶³⁾

7일 아침에 삼사가 기선에 갈아타게 되었다. 이날 아침의 바람은 북풍, 점심 후에 남서풍으로 기록되어 있다.⁶⁴⁾ 북풍이 불은 시간이라면 그 위험하다고 한 장소에서도 배를 갈아탈 수 있다. [48-101]에는 삼사가 가와고자부네에서 고타야[小隼]로 옮겨 타고 강에서 바다로 나와 미즈오기[水尾木]⁶⁵⁾를 지나서 기선에 갈아탄 후에 출항하였다고 기록한다.⁶⁶⁾ 삼사는 기선을 이동하라는 일본의 지시를 끝까지 따르지 않았으나 다행히 오전에 좋은 바람이 불어 무사히 기선에 승선하였다.

그런데 스즈키 이치노신을 보내 삼사가 기선에 승선하지 않겠다는 승낙을 받는 과정에서 대마번이 삼사에 요구하는 것이 있었다. 이는 대마도 후추미나토[府中湊]에 기선과 복선을 정박하는 시점에서도 등장하는데, 먼저 후우미나토 도착시의 일을 살펴보기로 한다.

5. 대마도 도착 시 정박 장소 문제와 대마번의 위기 대응

대마도 도착 후에 또다시 삼사가 대마번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일이 있었다. 7월 19일, 일행이 대마도에 도착한 다음 날, 사행록에는 기록이 없으나, 奉行方 매일기[49-106]에 (대마번이) 삼사의 기선 및 복선을 대마번이 관리하는 권역인 제방 안에 정박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삼사는 이에 따르지 않았다. 대마번은 재판 오노 로쿠로우에몽을 보내 배를 옮기도록 재차 요

57) 『봉사』, 我船退泊處.海門初頭.而自是危地.斯速曳入待明曉.胡風離發爲宜云.

58) 대마번이 기선을 지금 자리에서 강 쪽으로 이동하기를 요구한 것은 전날인 5일에도 있었지만 삼사가 거부하였다.

59) 『봉사』, 答以明曉必欲發.不須曳入云.

60) [49-105], 一昨日ち三使騎ト船漕入之儀.直右衛門并裁判ち色々申諭候得共副使從事ニハ承引有之.正使へ及相談候處正使一圖領掌無之.

61) [49-105], 只今騎ト船被掛浮置候場所ハ日本國之中ニ而も取分ケ風波等之節船々全難儀候所ニ候.

62) [49-105], 御前ニ茂甚御氣遣被遊候付鈴木市之進御使者被仰付三使船へ罷越御口上上々官を以申達候.

63) [49-105], 一昨日ち漕入之義申達候而も一圖御領掌無之氣毒存候.ひとへニ各御身分大切ニ存候所申達事ニ候間何分御納得被召漕入候様ニとの旨申達候處.御返答ニ被仰入候趣被入御念御儀忝奉存候.今日小隼ち本船ニ乗移候儀者相止メ候様ニ可仕候.

64) [49-105], 朝之内北風.昼ち南西風.

65) 이치노수 부근에 있는 첫 표목(標木)을 뜻함.

66) [48-101], 三使小隼ち川出船水尾木外ニ而本船ニ乗移出船有之.

청하였으나, 삼사는 거듭 거절하였다. 대마번에 있어서 문제는 풍파가 일어나 통신사 일행의 선박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막부로부터 책망받게 된다는 것이다.

후추미나토, 지금의 이즈하라항[巖原港]은 풍파가 일어나면 선박이 파손되는 일이 발생하는 지형이기에 바깥, 중간, 안쪽 3 중의 제방(야라이[矢来])이 설치되어 있다. 선박을 풍파로 보호하기 위해 야라이 안쪽에 정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삼사는 대마번의 관리권역인 야라이 안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해서, 그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거절하는 이유를, 야라이 안에 정박하는 경우 해류에 따라서는 출항 시 바다로 나아가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라고 하였다.⁶⁷⁾ 대마번이 삼사를 설득하였으나 삼사는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기서도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여기까지 귀로 京都와 大坂에서의 하마찰 위치, 大坂 승선 날짜와 방법, 그리고 대마도 후추미나토 정박 장소를 둘러싸고 삼사가 대마번의 지시에 따르지 않아 곤란한 상황이 벌어진 것을 살펴보았다. 자칫하면 인명피해나 다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막부에 보고해야 하는 사건 사고까지는 확대되지 않고 수습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삼사와의 갈등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대응을 대마번이 하였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하마찰 위치를 둘러싼 다툼은 결국은 감정싸움이었다. 지나간 일이며 다시 바로잡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삼사는 번주가 무례함은 경중에 따라 치죄할 것이라고 하는 말에 수긍할 수밖에 없었다. 삼사는 싸여가는 불만을 불식할 방법이 없어 일본과 대마번에 대한 불쾌감과 불신을 안고 갈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불쾌감과 불신이, 막부와 협의한 일정을 지켜야 하고 일행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대마번의 지시를 듣지 않고 앞길을 재촉하는 언행으로 이어졌다. 앞서 본 것과 같이, 6월 29일부터 그 줄타기가 시작되었다. 대마번이 6월 29일에는 미정이던 승선 날짜를 7월 2일에는 5일 승선을, 3일에는 7일 출항 예정을 전달하였다. 이에 삼사는 하루라도 빠른 승선 요구하여 협상을 거듭하다가 4일에 승선하는 결과를 걸었다. 대마번이 양보한 모양새를 취하였으나 출항일을 변경하지는 않았다. 꼼수를 부린 셈이다.

일은 단순하지 않았다. 승선 방법도 문제가 되었다. 통신사 일행의 기선과 복선이 계류하고 있는 곳이 일본 국내에서도 위험한 곳으로 유명하였다. 그래서 일본 측은 기선과 복선을 하구 쪽으로 이동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정사가 이에 동의하지 않고 가와고자부네에서 고하야로, 고하야에서 기선과 복선으로 옮겨타는 과정이 있다. 옮겨타는 과정을 안전한 하구에서 하도록 한 것이 일본 측의 지시였으나 이를 정사가 끝까지 따르지 않았다. 이에 스즈키 이치노신이 상상관들에게 "풍파로 사고가 나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데가타 제출을 요구하였다. 상상관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다만 기선으로 옮겨타는 것은 포기하였다. 그런데 기선에 옮겨타기를 포기한 이유는 데가타 제출을 요구받아서가 아니라, 풍파가 심해서 옮겨타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결국 대마번이 상상관의 데가타를 요구한 것은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책임회피용인 것이다.

대마번이 통신사 쪽에 책임회피용으로 데가타를 요구하여 실제로 데가타를 받아낸 일이 있었다. 대마도에 돌아온 통신사가 기선과 복선을 정박한 장소를 둘러싸고 삼사가 대마번의 지시에 따르지 않아, 삼사에 문제 발생 시 대마번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데가타[手形]를 받았다.⁶⁸⁾ 다음은 한문으로 작성한 데가타의 내용이다.

67) [49-106]. 三使ト船波戸内江繫船有之侯様申達候処、只今之通被召置被下侯得やらい内江者入申間敷由ニ付、裁判小野六郎右衛門を以上々官江操入之儀申達候処、返答ニ、やらい内江操入侯而者潮ニち出船之差支ニ相成候間只今之通可致置旨被申候由申間候。

사행이 타고 온 배를 예년과 같이 배를 항만 안쪽으로 끌어 넣어주도록 대마도 관리께서 권유하셨습니다. 그러나 출항 때 수심이 얕아 항해가 어려울 것을 우려해, 도착했던 지점에 그대로 정박해 두었습니다. 혹시라도 바람과 파도가 거세져 배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는 대마도 관리들을 책망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오니,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무진 7월 19일 상상관 자순 박첨지 인, 계심 현첨지 인, 대년 홍첨지 인
재판공⁶⁹⁾

세 명의 상상관 이름으로 재판에 약속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다.

데가타 제출을 요구한 이유는 만약 막부에 보고해야 할 정도의 사고 발생 시, 대마번이 적절한 지시를 내렸으나 삼사가 이를 거부하여 대마번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약속한 증거로 삼으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대마도 재류 중에 풍파가 일어나지 않아 정박한 기선과 복선 6척 모두 무사하였고, 출항하면서도 아무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⁷⁰⁾

6. 나가며

무진년 통신사 귀로, 京都와 大坂에서의 하마, 승선 일정과 방법, 그리고 대마도 정박을 둘러싸여 대마번의 지시에 삼사가 따르지 않은 일이 발생하였다. 대마번 가로 杉村은, 대마번의 지시를 거부하는 정사 흥계희의 모습을 부각시켜, 강한 불만을 주진을 통해 막부에 호소하였다. 이는 막부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한 의미가 있으나, 6개월이라는 긴 동행 여정에서 대마번과 통신사 일행 간에 쌓인 서로에 대한 불만이 상당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양을 떠나 500명이 넘는 일행이 함께하는 5개월의 이국 생활은 쉽지 않다. 2월 17일 대마도 와니우라에 도착한 후 6월 1일 江戸성에서 관백 습직을 축하하는 국서 전달을 무사히 마친 일행은 그리운 조국 땅에 돌아가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江戸에서의 일정은 계속 이어지고 6월 13일이 되어서야 귀로에 오를 수 있었다. 왕로 육상(京都에서 江戸까지)은 도중 수량이 늘어난 오िका와를 건너는데 이들이 소요한 바람에 18일간 걸렸지만, 귀국을 서두른 귀로는 다행히 순조로운 여정으로 16일 만에 京都에 도착하였다.

귀국길을 서두른 와중에 발생한 하마 문제로, 대마번과 삼사 간의 갈등이 분출하였고, 그렇지 않아도 위험한 가와고자부네에서 기선과 복선에 옮겨타는 장소에 관한 대마번의 지시를 완강히 따르지 않으려는 흥계희의 태도는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을지 대마번의 입장에서는 심

68) [49-106], 又々申達侯者,当浦之儀ハ被見掛侯通繫船之場所惡敷侯故,波戸内江御繫被成侯様ニ古来らいたし来侯.尤東武江茂右之訳御届申上置侯事故,只今之通繫船有之侯而ハ若風波等之節至而大切之儀ニ候.勿論俄ニ風波募リ侯節難操入事ニ候間,何分早々操入侯様ニ可被取計旨纏々申達侯処,何扁左様ニハ難致与之三使返答之趣申聞侯付,左侯ハ>風波等有之侯節,東武江之被仰分も無之侯故,御合点不被召侯上ハ手形差出可被申由申達侯処,左之通書付差出.

69) [49-106], 使行所乘船又対州諸公懸勸依例曳入船倉,而離之時以水浅,難運為慮仍泊於所着处,後或者風浪乃變不為悔咎於諸公執,此為照. 戊辰七月十九日 上々官 子淳朴僉知印,季深玄僉知印,大年洪僉知印,裁判公

70) [49-106], 三使船并三ト船段々漕出侯処順風ニ付,遠見かたら帆を掛,評ニハ侯得共順能侯故,帆持宣侯段遠見番ち追々遂案内.

히 염려스러운 일이었다. 종가문서에는 대마번이 삼사가 지시에 따르지 않은 모습에 우호적 접근을 포기한 듯한 상황을 볼 수 있다. 만일의 사고가 날 경우를 대비하여 삼사의 데가타를 확보하고 막부의 문책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대응하는 대마번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었다.

삼사와의 갈등에 대마번이 대응하는 모습을 신사기록을 통해 조명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었다.

먼저, 같은 여정을 기록한 매일기지만, 御供方과 奉行方의 매일기는 상이한 기록이 존재한다. 御供方 매일기에는 행로를 따라 그 지역 번주들과 대마번주와의 일을, 奉行方 매일기에는 삼사와 관련한 기록을 중점적으로 남겼다. 말은 역할에 따라 당연히 상이하는 것이지만, 같은 일을 두고 번주의 의중을 질게 반영하여 사실을 왜곡한 부분을 지적할 수 있었다. 大坂 출항 날짜 협상에서 삼사가 번주의 설득을 받아들였다고 御供方 매일기는 기록하지만, 奉行方 매일기는 애매하게 기록하였다. 御供方이 번주를 모시는 입장에서 奉行方 기록보다 번주의 의중을 반영한 기록을 하였고, 奉行方는 번주의 의중에 맞지 않는 내용이라도 비교적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삼사가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대마번이 응하는 방식을 보았다.

첫째로, 대마번은 삼사가 항의하면 막부 뒤에 숨어 적당한 대응책을 찾는다. 그 대응책은 잘못을 조사하고 그 책임을 물겠다고 일단 약속하는 것이었다. 하마찰의 장소는 막부가 정한 것으로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삼사의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 하마찰 문제는 예의의 문제이며, 양측의 자존심 문제이다. 어떻게든 삼사의 불만을 최대한 해소해야 한다. 이번의 경우는 '경중에 따른 처벌을 약속'하는 것으로 대마번은 마무리되기를 바랐다. 하지만 삼사는 불만과 불신만 키우게 되었다.

둘째로, 삼사의 항의에 양보할 수 있는 것은 양보하지만 양보할 수 없는 것은 고수하였다. 해소되지 않은 삼사의 불만과 불신이 大坂에서의 승선 날짜와 승선 장소에 관한 대마번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사고의 위험성을 발생시켰을 때, 대마번이 승선 날짜 변경은 허락하였으나 출항 날짜는 고수하였다. 대마번이 짐을 배에 적재하는 일을 마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⁷¹⁾ 이를 삼사는 "대판에 도착한 이후로 마주수(대마번주) 일행이 매매하고 무역할 일이 많이 있으므로 사행을 만류하여 백단으로 속였는데, 지금은 불일을 다 보았으므로 비로소 호송하여 떠날 의사가 있는 것일 게다."⁷²⁾라고 『봉사』 7월 5일조에 의심과 불쾌감을 드러내고 기록하고 있다.

셋째로, 삼사가 끝까지 지시에 따르지 않아 사고 발생 위험이 있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여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하는 서면 약속인 데가타 제출을 요구하였다.

가와고자부네에서 기선 및 복선에 승선 장소는 삼사가 끝까지 대마번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다행히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으나 대마번은 "사고가 발행해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데가타를 상상관에게 요구하였다. 상상관은 이 요구를 거절하여 데가타 제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대마도 도착 시, 상상관이 작성한 데가카를 제출 받은 일이 있었다.

대마도 후추미나토에 돌아오고 기선과 복선 정박 장소로 또다시 삼사가 대마번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그리고 이때도 삼사는 끝까지 대마번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대마번의 지시대로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마번은 지시를 따르지 않는 삼사에게 데가타 제출을 요구하였고, 삼사는 상상관에게 데가타 제출을 허락하여 대마번은 실제 받아낸 데가타를 奉行方 매일

71) [47-100] 7월 4일조, 今日川致上船侯.乍然荷積未相濟侯付,明日船積相仕廻,明後六日上船,七日出船侯様=可致侯.

72) 『봉사』, 到大阪以後,馬守一行,多有買賣買販之事,故挽留使行,欺詐百端,而今必盡意所幹,始有護發之意耳.

기[49-106] 7월 19일조에 기록하였다.

문제가 발생하면 통상적으로 양측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통시키는 식이었다. 삼사는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대마번에 불만과 불신을 증폭하였고, 대마번은 지시를 관통시키는 과정에서 늘 '막부의 지시'를 앞세워 동시에 땀질식의 변명으로 상황을 외면하였다. 삼사가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는, 삼사는 나름 이유를 대면서 밀고 나갔으며, 대마번은 만약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비하여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상상관의 데가타를 근거로 삼아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을 마련하였다. 조선과 대마번 관계는 불신과 불만이 기초를 이루고 그 상호관계는 대단히 불안정한 것이었다.

[참고문헌]

<사료>

- 『正徳信使記録 七十二』,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청구번호 252.
『享保信使記録 百十一』, 慶應義塾圖書館 소장, 慶應冊子番号32-内題番号111.
『享保信使記録 百十二』, 慶應義塾圖書館 소장, 慶應冊子番号33-内題番号112.
『延享信使記録 十』, 慶應義塾圖書館 소장, 慶應冊子番号8-内題番号10.
_____,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청구번호 557.
『延享信使記録 十一』, 慶應義塾圖書館 소장, 慶應冊子番号9-内題番号11.
_____,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청구번호 620.
『延享信使記録 十二』, 慶應義塾圖書館 소장, 慶應冊子番号10-内題番号12.
_____,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청구번호 621.
『延享信使記録 二十六』, 慶應義塾圖書館 소장, 慶應冊子番号19-内題番号26.
『延享信使記録 百』, 慶應義塾圖書館 소장, 慶應冊子番号47-内題番号100.
『延享信使記録 百一』, 慶應義塾圖書館 소장, 慶應冊子番号48-内題番号101.
『延享信使記録 百四』, 慶應義塾圖書館 소장, 慶應冊子番号49-内題番号104.
『延享信使記録 百五』, 慶應義塾圖書館 소장, 慶應冊子番号49-内題番号105.
『延享信使記録 六十』,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청구번호 537.
『延享信使記録 二十五』,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청구번호 590.
『延享信使記録 七十三』,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청구번호 654.

<저서>

- 신유한, 민족문화추진회 옮김, 「해유록」, 『(신편국역)사행록 해행총재』2, 한국학술정보, 2008.
남용익, 민족문화추진회 옮김, 「부상록」, 『(신편국역)사행록 해행총재』8, 한국학술정보, 2008.
김지남, 민족문화추진회 옮김, 「부상록」, 『(신편국역)사행록 해행총재』9, 한국학술정보, 2008.
조명채, 민족문화추진회 옮김, 「봉사일본시문견록」, 『(신편국역)사행록 해행총재』14, 한국학술정보, 2008.
홍경해, 하우봉 이선아 옮김, 『수사일록』, 보고서, 2018.
조형, 김용진 역, 『부상일기』, 보고서, 2020.
다사카 마사노리, 이재훈 편저, 『기해년도 조선통신사 봉행매일기 번각』, 경진출판, 2021.
이재훈 편저, 『임술년도 조선통신사 봉행매일기 번각』, 경진출판, 2022.
『叢書京都の史料11 淀渡邊家所蔵朝鮮通信使關係文書』, 京都市歴史資料館, 2009.

<논문>

다사카 마사노리, 「무진통신사 사행록과 신사기록 -사행록과 신사기록으로 본 捉鯨·市中徘徊·메시하나치(召放)-」, 『한일관계사연구』제73호, 한일관계사학회, 2021.

<인터넷>

조명채, 『봉사일본시문견록』 및 신유한, 『해유록』 원문 및 번역은 한국고전DB, <https://db.itkc.or.kr/>에서 인용.

【토론문】

「무진년 조선통신사 귀로에서의 갈등과 해법」에 대한 토론문

이재훈(동의대학교)

본고 “무진년 조선통신사 귀로에서의 갈등과 해법”은 조선 후기 일본에 파견된 10번째 통신사인 무진사행에서 귀국길에 접어들고부터 발생한 분쟁과 그 해결을 확인한 것입니다.

주지하고 계신 바와 같이 통신사행은 양 측이 도해를 하기 전부터 사행이 끝날 때까지 힘 싸움을 계속하였고, 이들 힘 싸움은 선례를 어떻게 뒤흔드는가, 혹은 어떻게 유지하는가라는 쟁점으로 나타나는 게 가장 일반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비교적 안정되었다고 평가 받는 무진사행이었지만 그 와중에도 귀로에서만 1. 하마찰 설치 장소 2. 오카의 승선날짜와 승선 장소, 3. 도착시 정박장소를 둘러싼 갈등이 있었고 이들에 대한 해결 과정을 잘 정리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무진사행에만 한정되어 있는 한계성을 지닙니다만, 사행은 항상 전례를 따르기 때문에 실은 기존에 어긋나버린 것이 특별한 약조를 내세우지 않는 한 새로운 전례가 되어 버리고, 차회 사행에서는 그것조차 관용해 버리기 때문에 한계성은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 한계성이 곧 해당 사행의 특수성이 되어 버린다고 생각합니다.

달리 말하면 무진사행 귀로에서의 갈등에 대한 연구가 존재하지 않는 현 연구 상황에서, 무진사행의 특수성을 집고, 어쩌면 전 사행을 관통할 수도 있는 이런 해결 프로세스를 제시한 것은 나름의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질문 겸 이야기를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부에 “귀로에는 호행하는 대마번과의 갈등이 발생하기 쉬운 조건이 갖추어진다. 제10차 통신사 귀로에도 심한 피로와 귀국 길을 서두르는 마음에, (중략) 大坂에서 도훈도 최천중이 대마번 통사에 의해 피살된 사건이 유명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무진사행에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문장만 본다면 최천중 살인사건과 귀국길의 특성을 연결지어 생각하고 계신 것인지 궁금하다.

두 번째로 본래 토론자가 원 사료를 다 찾아보아야 하는데 이번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원 사료를 찾질 못해서 여쭙보기 부끄럽지만 본문 중에“임술(1682)년 7월 20일조에 ‘이전에는 상상관을 비롯 모두 하마하였으나 이번에는 그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다. 따라서 왕로에서 번주 숙소 앞에서 하마하게 하는 것은 선례에 맞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다. 이는 임술년부터 하마하지 않게 되었다가 무진년에 들어 다시 변경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왜 변경되었는지 그 이유를 거론하지는 않으셨다. 혹시 숙소에 변경이 있었거나 동일 숙소라도 재건축이나 보수가 있어서 내부 구조가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하마하는 장소가 바뀌었을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

세 번째로 “하마찰 위치도 문제이지만 일행을 말에서 내리게 하는 과정에서 폭력과 위협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삼사는 자신들이 손님으로서 접대하는 쪽에 항의하는 것이 예의가 아니라고 절제한 만큼 절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셨는데, (게다가 국서 앞뒤 행렬을 말에서 내리게 하고 때리고 칼로 위협하는 무례가 한번이 아니어서 놀라움을 금치 못

합니다.=.其上國書前後乘居候者共を爲致下馬, 其外處ニ^ち?此方之者を打擲いたし或は刀を抜, 彼は無禮之仕形一度ならず驚入候) 보고를 받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항의를 하지 않았던 것인가? 타 사행에서도 폭력 사건은 종종 일어났고 그 때마다 바로 크게 항의를 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 폭행이 오사카 교토에서 하마찰의 문제로 발생한 것이라면, 본문의 내용대로 하마찰의 변경에 쓰시마번의 책임이 있으니 이것을 단순히 삼사가 쓰시마번의 지시를 듣지 않았다고 치부할 수 있을까?

네 번째로 “홍계희에 그 경중에 따라 치죄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무색하다.”고 하였는데, 전술한 대로 구타 사건은 매회 있어왔고, 이를 벌주겠다고 약속하는 장면은 등장하지만 벌주는 장면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것 같다. 일반적으로 룰에 맞지 않아 쓰시마번 인원들이 하마를 유도하지만 사행원들이 이를 거부하며 사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굳이 말하자면 쌍방인 데에다가, 임술년 신사사행에서는 조선인들에게 치욕을 당하면 참지 말라는 문장도 있었으니, 홍계희에게 번주가 약속한 것은 당연히 립 서비스에 불과하다.

다섯 번째로 출선일을 앞당기는 문제와 관련하여 “그리고 그 불쾌감과 불신이, 막부와 협의한 일정을 지켜야 하고 일행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대마번의 지시를 듣지 않고 앞길을 재촉하는 언행으로 이어졌다”고 하셨는데, 이처럼 출선을 서두르는 경향은 이미 상행이든 하행이든 매 사행마다 발생하였으니, 이를 굳이 불쾌감과 불신으로 연결 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여섯 째, “대마번이 양보한 모양새를 취하였으나 출항일을 변경하지는 않았다. 꼼수를 부린 셈이다.”고 하셨는데 애초에 출항일을 변경한 것도 아니고, 숙소를 벗어나 배에서 대기하게만 시킨 것이니 이것을 꼼수 취급하는 것은 합당한 것인가?

사족)

1. 역관문제

“이 면담에서 특이한 것은 정사 홍계희가 宗義如에 필담으로 대마번 인사의 무례함을 직언하였다는 것이다. (중략) 홍계희가 역관을 통하지 않고 宗義如와 필담하게 된 이유는 역관이 정사의 말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정사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9차 기해 사행에서도 역관이 말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쓰시마번의 큰 불만 중의 하나였다. 당상역관이 아예 드러내놓고 정사의 말을 전하지 않는 장면(신유한의 예법 논쟁)이 등장하기도 한다. 다만 9차까지만 해도 삼사가 역관에게 교섭 실패를 두고 질책을 한 적은 있어도 전달의 실수로 보지 않는 경우는 없었다. 회차를 더해가며 상상관들에 대한 불신이 폭발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2. 탈초 오류

色々折渡ニ而被仰諭候處駢と承引有之候様與ハ不相聞候得共,右一段之御返答相應ニ被迎(仰)入御歸被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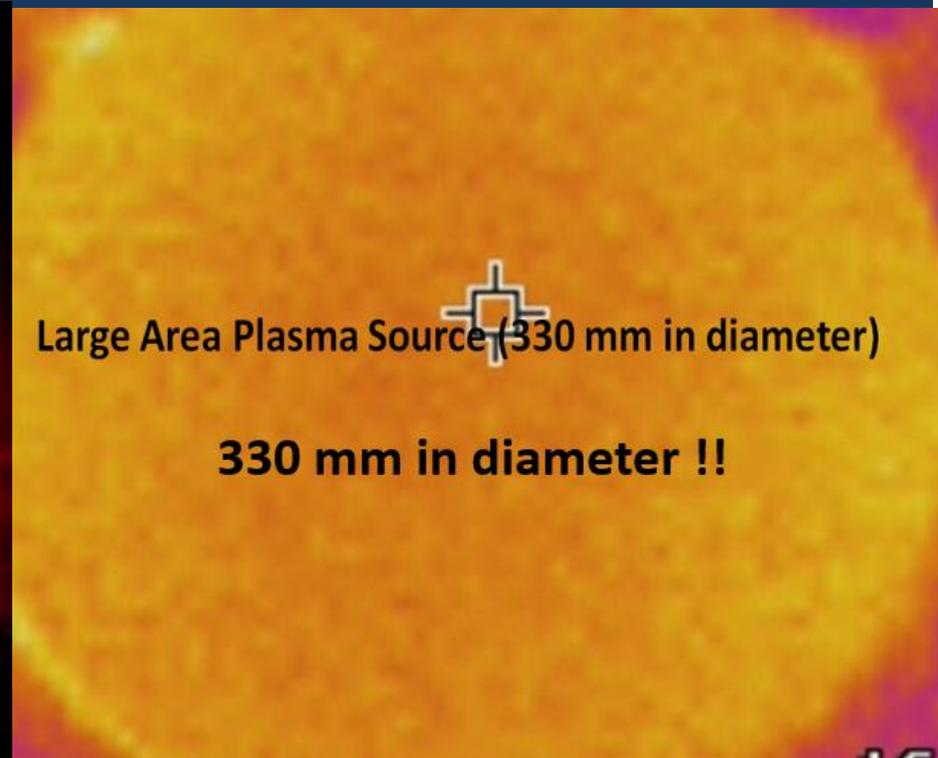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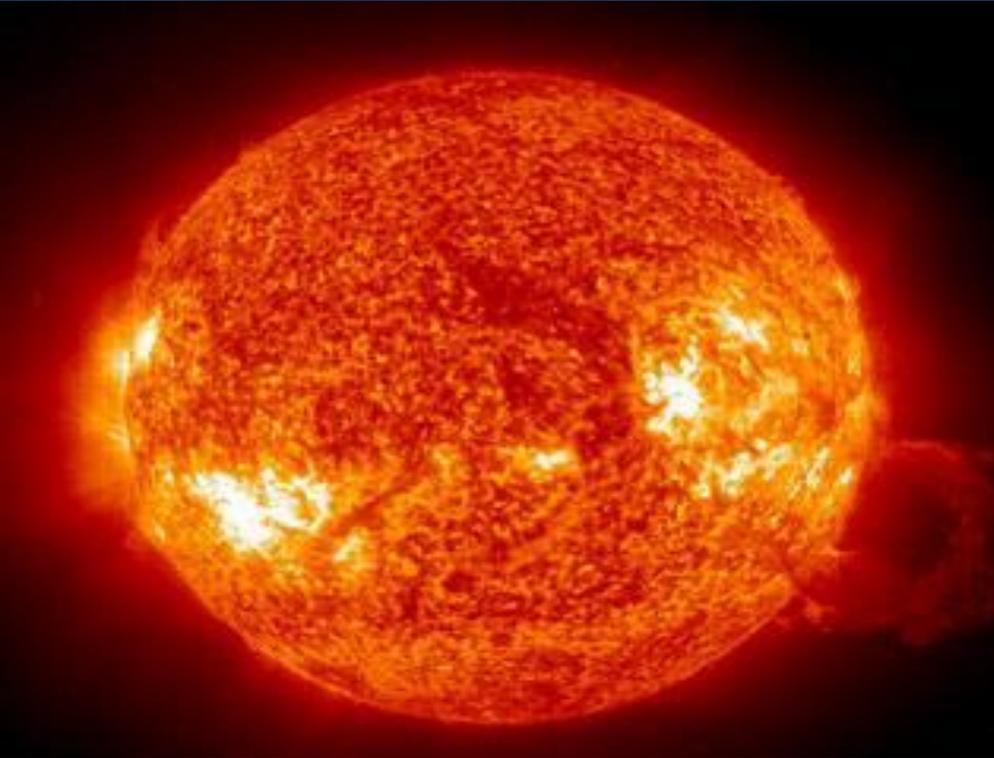
제3발표

산스크리트(सन्सकरति)어로 본
고대국가 및 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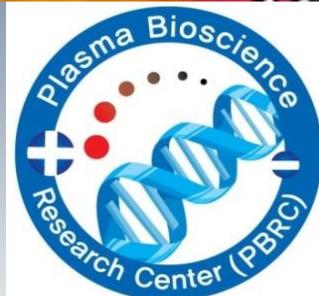
발표 : 최은하(광운대학교)

토론 : 청중 토론

산스크리트(संस्कृत)어로 본 고대국가 및 군주: 제 1교시



최은하 (崔銀河),
전자바이오물리학과, 플라즈마바이오과학연구소(PBRC),
광운대학교, ehchoi@kw.ac.kr



차 례

1. 플라즈(스)마 प्लाज्मा
2. 플라즈마바이오과학연구소
3. 우리 고대국가의 뜻
 - 3.1 환 वखतर
 - 3.2 (고)조선 असादल
Note1) 마한 महखन
Note2) 변한 वियनखन
Note3) 진한 सीनखन
 - 3.3 부(부)여(야) पउरय
 - 3.4 고구리(려) खोकुरि
 - 3.5 백제 वखतिए
 - 3.6 신라 सिला
 - 3.7 가야(라) गारा
 - 3.8 발해 वालग
 - 3.9 거란 खरम
 - 3.10 고려 खोरि
 - 3.11 몽골 महनखोल
 - 3.12 대한민국 महनखोल
4. 고대 군주호의 뜻
5. 맺는 말



1. 플라스(스)마 ?

Plasma, πλάσμα, प्लाज्मा ?

산스크리트 어 : 해(우주)의 기본물질
생명의 기본물질
에너지 물질

प्ला (플라): 해, 하늘, 우주, 높음
जव (즈바): 생명, 목숨
मपि (마피) : 에너지 입자, 양자

“해(하늘), 생명의
기본 에너지 물질”



우주 탄생, Plasma와 진화

빅뱅 대폭발 후, 원초 물질인 플라즈마, 빛과 어우러져, 우주의 99.99%

3분 후,
우주의 온도 = 10억도
원자핵들이 우주의
거의 대부분 차지
전자는 자유롭게 이동중

1초 후,
우주의 온도 = 100억도
핵반응

Big Bang

- 중성자(Neutral particle)
- 이온(Ion)
- 전자(electron)
- 활성종(RONS)
- UV
- Heat
- Electric field
- Magnetic field



조지 가모프
(1904년~1968년)
러시아 태생의 이론물리학자
화학원소의 기원을 통해
빅뱅 우주론을 주창

초고온 초고밀도의 물질이 한 점에 모여 있다가 갑자기 폭발해서 오늘의 우주가 만들어짐

자연에서의 플라즈마

지구상에서는, 온도가 이미 식었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 볼 수 있다.

오로라



오로라는 태양에서 방출되는 플라즈마 입자가 지구 대기권 상층부의 자기장 거울에 의하여 반사될 때 나타나는 빛 발광현상이다.

번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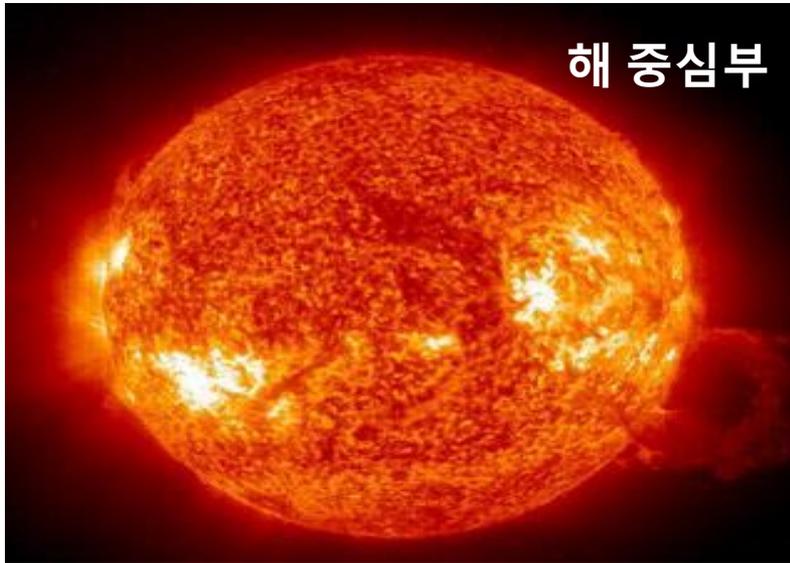


번개는 구름과 구름, 구름과 대지 사이에서 일어나는 방전 현상이다.

우주의 99.99% 는 플라스마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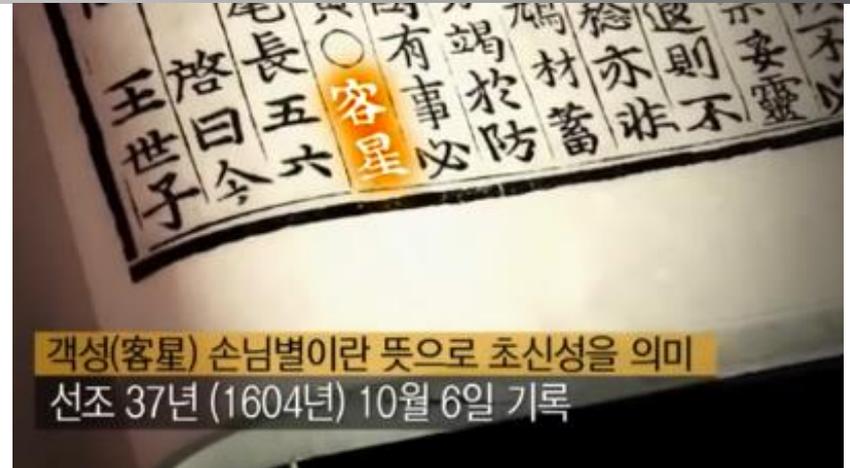


초신성



해 중심부

우리나라 증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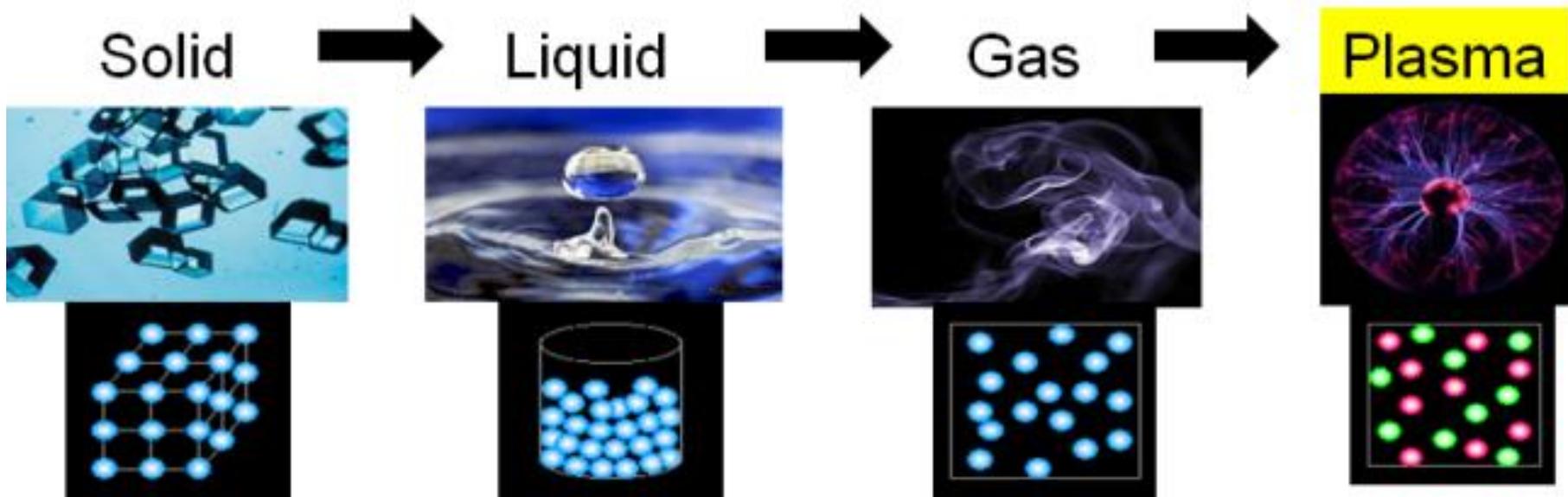


객성(客星) 손님별이란 뜻으로 초신성을 의미
선조 37년 (1604년) 10월 6일 기록



케플러의 신성
우리 은하에서 터진 마지막 초신성으로 뱀주인자리에서 관측

플라즈(스)마 प्लाज्मा



플라즈마 : 전기를 띤 중성기체집단,
The 4th states of matter

→ 전자 + 이온 + (들뜬) 중성입자
+ 빛 + 열 등

“하늘(해), 생명의
에너지 기본물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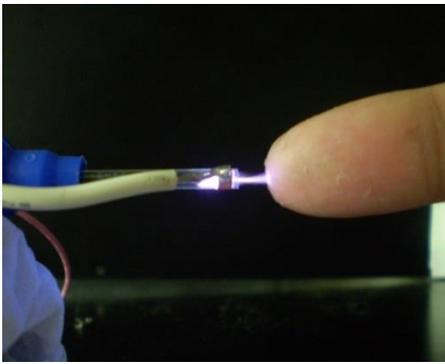
플라스마로 인한 원시대기 생명현상

1953년 : 원시대기에서 유기화합물 합성

- Stanley Miller 의 전기방전 실험 :
 $CH_4 + NH_3 + H_2O + H_2 \rightarrow$ 글리신, 알라닌 등



<밀러의 실험 개념도>



21세기 초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플라스마 바이오과학 출현

바이오 플라스마와 유·무기 물질, 액체(혈액), 생체감응 나노 물질, 그리고 미생물, 세포, 비정상 세포와의 상호작용 원천 특성에 기반한 새로운 21세기 건강복지 를 위한 학문

2. 플라즈마바이오과학연구소 (Plasma Bioscience Research Center : PBRC)



플라즈마바이오과학연구소
Plasma Bioscience Research Center



광운대학교
KwangWoon University

플라즈마바이오과학연구소 (PBRC) 교수

환경공학 (ET)



장민 교수

환경촉매 상호작용 및 정화 연구



양재규 교수

수질 유해 미량물질 상호작용 및 정화 연구



장윤영 교수

토양 오염 물질 상호작용 및 정화 연구



최진성 교수

대기 초미세 입자물질 상호작용 및 정화 연구

플라즈마, 물리 · 나노화학 (PT, NT)



최은하 교수

환경바이오 적합성 플라즈마 융합기기 개발



홍영준 교수

플라즈마 진단 DB 구축 및 기체내의 활성종 제어 연구



이건준 교수

플라즈마 처리수 및 나노 버블 발생 및 제어 연구



박병주 교수

플라즈마 액체 내의 활성종 제어 연구



장흥제 교수

플라즈마 기능성 나노물질 합성 연구

바이오 (BT)



한인 교수

대기 유해미생물 상호작용 및 정화 연구



Nagendra 교수

수질 유해미생물 상호작용 및 정화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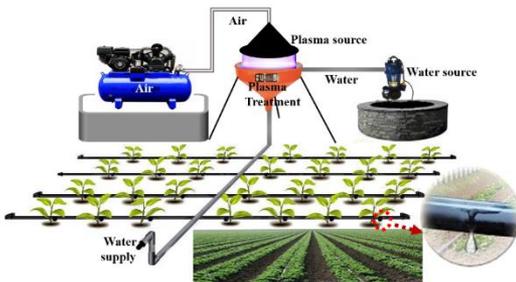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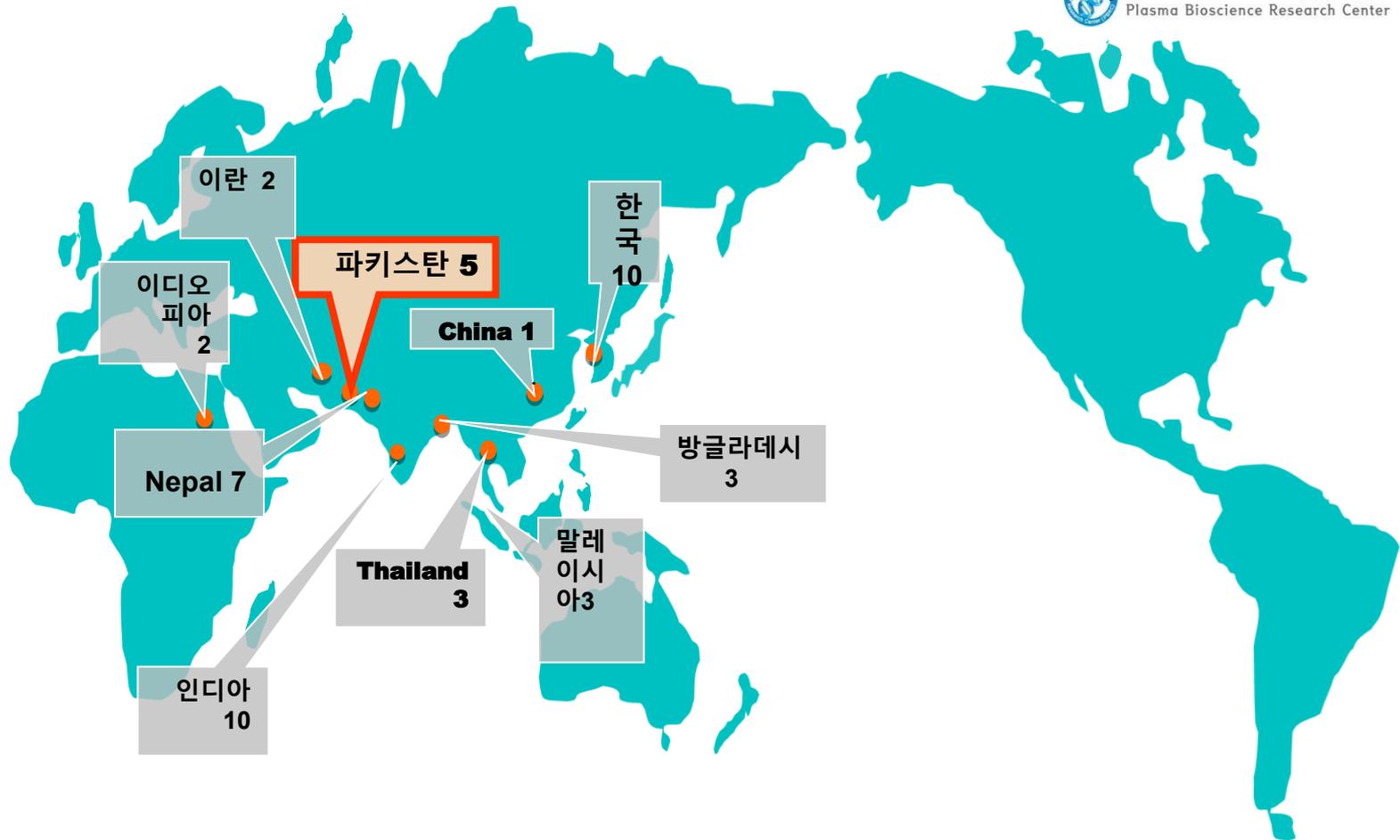
박경순 교수

토양 미생물 상호작용 및 정화 연구

플라즈마 바이오의과학 및 환경기술

(Plasma Bioscience and Medicine)





43 students with global resources are working in 24 affiliations in 15 countries !
Domestic 15 institutes in Korea !!

3. सनसकरित एरो बन गोदेकुकग

환 桓 वखतर

(고)조선 朝鮮 असादल

- 마한 馬韓 महखन

- 변한 馬韓 वियनखन

- 진한 辰韓 सीनखन

부(부)여(야) 扶餘 पउरय

고구리(려) 高(句)麗 खोकुरि

백제 百濟 वखतिए

신라 新羅 सिला

가야(라) 加耶 गारा

발해 勃海 वालग

거란 契丹 खरम

고려 高麗 खोरि

몽골 蒙忽 महनखोल

대한민국 大韓民國 महखोरि



3.1 सनसकरित어로 본 고대국가: 桓國 वकतर बाकृत(따)ㄹ (BC 7197 ~ BC 2333)

सरवसकतरम स्राबासका[का]तराम: 해가 뜨는 언덕(벌, 들, 나라)

- सर स्रा : 해 (sun)

- वस बास : (해) 뜨다, 밝다, 살다

- क का[का] : 해, 빛남

- तरम त्र[뜨]राम : 뜰, 들, 벌, 언덕, 나라

1) वसकतरम बासका[का]तर[त्त]राम → वकतर बाकृत[따]रा[ㄹ]

2) वकतर बाकृत(따)ㄹ: “밝은 해가 비추는 언덕[나라]” 라는 뜻이다

→ 삼국유사의 桓國 은 ” वकतर बाकृत[따]ㄹ ” 을 한자로 의역
한 것임

Note1) 古朝鮮(王儉朝鮮) (삼국유사 紀異第一)

《魏書》云:「乃往二千載有<壇君王儉>,立都<阿斯達>(《經》云<無葉山>,亦云<白岳>,在<白州>地,或云在<開城>東,今<白岳宮>是),開國號<朝鮮>,與<高>同時.古記云:「昔有<桓國>(謂<帝釋>也)庶子<桓雄>,數意天下,貪求人世,父知子意,下視<三危太伯>可以弘益人間,乃授天符印三箇,遣往之.

Note 2) “바कृत[따]ㄹ ” 등 으로 불리는 지명



신역사스페셜 8회 - 만주대탐사 1편, 제5의 문명 요하를 가다 (2009.8.29.)

3.2 सनसकरित एरु डुन कुडैकुगऱः (कु)कुऑन त्रकु संघऱन सऱन

महघऱन मऱहऱगऱ[कु]नः वुडैहऱन हऱ(हऱनल)डु नऱरऱ
वुडनघऱन वुडऱनऱगऱ[कु]नः वुडनऱन हऱ(हऱनल)डु नऱरऱ
सुनघऱन सऱ[कु]नऱगऱ[कु]नः हऱ(हऱनल)डु नऱरऱ

1) महघऱनतरऱ मऱहऱगऱ[कु]न त्रऱ → महघऱन मऱहऱगऱ[कु]न
: वुडैहऱन हऱडु नऱरऱ

→ डुडुतुडु हऱनऱरु डुनऱहऱनकुतुडु “馬韓” डुडऱ.

2) वुडनघऱनतरऱ वुडनऱगऱ[कु]न त्रऱ → वुडनघऱन वुडनऱगऱ[कु]न
: वुडनऱन हऱडु नऱरऱ

→ डुडुतुडु हऱनऱरु डुनऱहऱनकुतुडु “弁韓” डुडऱ.

3) सुनघऱनतरऱ सऱनऱगऱ[कु]न त्रऱ → सुनघऱन सऱनऱगऱ[कु]न →
सुनघऱन सऱ[कु]न कुनऱनऱ[कु]नः हऱ(हऱनल)डु नऱरऱ

→ डुडुतुडु हऱनऱरु डुनऱहऱनकुतुडु “辰韓” डुडऱ.

3.4 सनसकरित एरो बन गोदेकुकग : 高(句)麗 खोकुरि को[ग]कुरि (BC 37 ~ AD 668)

खकुरि ककु[कि, को]रि : हेग इतने अनढ, मी, सन(山)
- ख क[को, क] : हे, हनल
- कु[की] रि कु[कि, कु, कुल को]रि : अनढ, मी, सन

- 1) खकीरि क[को]कि[कु, को]रि → खोकुरि को[ग]कुरि → खोरि को[ग]रि
- 2) खो(गो)रि को[ग]रि : “हेग इतने(तेओरने) अनढ(नरग)”

Note 1) डीदेसेर “को ≡ [क]रि, गो(गु)रि” ररग डुरिने डीमेग

Note 2) खं (क, क, क) : हे, हनल

3.5 सनसकरित एरु डुन कुडैकुगऱः डुकुडु(百濟)डु डडरु(淡路) डडरु

डीवडडतर डडडड डुडुडु : डडडुडु डडरु

- डीवडड डडडड : डडडु

- डडरु डड[डड]डुडु : डडडु, डड, डड, डडरु

1) डीवडड डडडड डुडुडु → डडडड डुडुडु → डडरु डड : “डडडु”

2) डडरु डुडु[डड]रु → डडरु डड[रु] : “डड, डडड, डडरु” डु डुडुडु

डीवडडतर डडडड डुडुडु → डडरु डडडु डडरु[रु] →

डडरु डडरु[रु] : “डडडुडु डडडु, डडरु”

→ डडडुडु डडरु डडरु डडरु(淡路) डडरु.

Note) डडरु डडरु “डड[डड]डु[रु]रु[रु,रु], डडरु, डडरु, डडरु” डुडु डडरु

3.6 सनसकरित 어로 본 고대국가 : 新羅 सिन्हा 신라 (BC 57 ~ AD 935)

सरवसतरम 스라바스트람 : 해가 뜨는(밝은) 언덕 (나라)

- सर 스라 : 해 (sun)

- वस 바스 : 뜨다, 밝다, 살다

- तरम 트[뜨]람 : 언덕, 들, 나라

1) श्रवलतरम 스[시,서]라브 ≡ 뜨람 → श्रवल 스[시,서])라브 ≡
→ सिन्हा 시 ≡ 라 → सिन्हा 시 ≡ 라 : “해의 나라”

→ 이것을 한자로 차음한것이 <新羅> 이다.

Note 1) 지도에서, “스라, 시라, 실라” 등의 지명

3.7 सनसकरित एरो बन गोदकुगऱः 加耶 घऱरऱ[य] गऱरऱ[यऱ] (AD 42 ~ AD 532)

घऱ[ख]रऱ[य] गऱ[कऱ,कऱ]रऱ[यऱ] : हऱई अनूक(नऱरऱ)
- घऱ [ख] गऱ[कऱ,कऱ] : हऱ, हऱनू
- रऱ [यऱ] रऱ[यऱ] : अनूक, दू, बऱ, नऱरऱ

1) घऱ [ख]तर गऱ[कऱ,कऱ]तुरऱ → घऱरऱ[य] गऱ[कऱ,कऱ] रऱ[यऱ] : हऱई अनूक(नऱरऱ)
→ इरू हऱनऱरू कऱईहऱनूकऱई <加耶>ईदऱ.

2) घऱरऱ [य] गऱरऱ[यऱ]:

हऱई दूरऱनू अनूक(मऱदऱंग)-> हऱईमऱदऱंग → हऱईमऱतू → यऱमऱतू(倭)

(यऱमऱतूई "हऱई बऱलऱनऱ, अनूक, दऱंग"ईरऱऱनू दूरऱईदऱ)

→ घऱरऱ गऱरऱई गूदऱई इरूबऱनूई यऱमऱतू(倭)ईईरूडऱई दऱलऱ बऱलऱनूकऱईदऱ.

Note 1) हऱनऱई इदूदऱई, "गऱरऱ[यऱ]"दऱंगऱई इदऱंग

Note 2) हऱनऱई इदूदऱई, "हऱतू, हऱईमऱतू, हऱईमऱतू, हऱईतू"दऱंगऱई इदऱंग

3.9 सनसकरित 어로 본 고대국가 : 契丹 खरम 커[카]람[란] (AD 916 ~ AD 1125)

खराम 커[카]람[란] : 해 나라

- ख 카[커] : 하늘, 해

- राम 람 [란] : 언덕, 들, 벌, 나라

1) ख 커[카] : 해

2) तरम 트람 → राम 람[란] : 언덕, 들, 벌, 나라

: खराम 커[카]람[란] : 밝은해(의) 나라

→ 이를 한자로 의역한것이 <遼> 이고, “밝은 해의 나라(뜰)”
의 뜻이다

3.10 सनसकरित एरु डुन कुडैकुगऱऱु : 高麗 खोरि कु[कु]रु[रु] (AD 918 ~ AD 1392)

खोरि कु[कु]रु: हऱगऱ डुतुन नऱरऱ (ऱनुदुडु, डु, सऱन : 山)

- खो कु [कु]: हऱ, हऱनु

- रुरु रुरु : ऱनुदुडु, डु, डु, सऱन, नऱरऱ

1) खो कु[कु]: हऱ, हऱनु

2) रुरु रुरु : ऱनुदुडु, डु(सऱन)

: खोरि कु[कु]रु: हऱगऱ डुतुन डु(ऱनुदुडु, नऱरऱ)

→ <高(句)麗>: BC 37~AD 668>ऱ डुतुन ऱनुन "हऱऱ नऱरऱ"रऱन डुतुन गऱरुगु ऱनुनऱ.

3.11 सनसकरित 어로 본 고대국가 : 蒙忽 महनखोल 마한콜[골] (AD 1260 ~ AD 1368)

महनखोल 마한코[고] ≡ 위대한 해(가 뜨는)나라 (언덕, 뫼, 산 : 山)
- महन 마한 [만, 몬, 몽]: 크다, 위대하다.
- खोल 코 [고] ≡ : 해(가 뜨는) 나라 (언덕, 뫼)

1) महन 마한 → मन 만[몬, 몽]: 큰, 위대한

2) खोरि 코[고]리 → खोल[코, 고] ≡ : 해가 뜨는 언덕 (나라, 뫼(산))

※ खोरि 코[고]리: 해가 뜨는 언덕 (뫼, 山, 나라)

3) महनखोल 마한콜[골]: 위대한 해가 뜨는 나라

→ 아를 한자로 음차한것이 <蒙忽>이고, <高(句)麗>: BC 37~AD 1368>의 뒤를 있는 "위대한 高麗"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3.12 大韓民國 महखोरि मा하코[고]려[리] (AD 1919 ~ 현재)

महघान 마하가ㄴ : 위대한 해(하늘)의 나라
वियनघान 비야ㄴ가ㄴ : 빛나는 해(하늘)의 나라
सीनघान 시(또는 지)ㄴ가ㄴ : 해(하늘)의 나라

महखोरि 마하코[고]리: 위대한 해가 뜨는 나라 (언덕, 뫼, 산 : 山)
- मह 마하: 크다, 위대하다.
- खो 코 [고]: 해, 하늘
- रि 리 : 뜰, 언덕, 뫼, 산, 나라

1) 현재 우리나라의 국호인 <大韓民國(대한민국)>의 <大韓(대한)> 은 <馬韓>, <弁韓>, <辰韓>을 一統 했다는 뜻이 담긴 ”위대한 해의 나라“, ”빛나는 해의 나라“, ”해의 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2) 고종황제는 조선의 국호를 1897년 10월12일, <大韓帝國(대한제국)>으로 정하였다. 1919년 3·1 운동을 기점으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거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법통이 계승되었다.

➔ 대한민국은 महखोरि 마하코[고]려[리] 로 표기할수 있다.

4. सनसकरित एरो बन गोदेकुनु हुचुंग

단군왕검 檀君王儉 दीवअमअरिहनगन

마립간 馬立干 माह।अरिहगन

거서간 居西干 क्षिअर्हगन

니질[시]금 尼叱今 또는 니[이]사금 尼師今 ऋषीरअर्हगन

차차웅 次次雄 चछगन

견길지 堅吉智 कीअन गुरु चि

어라하 於羅下 अरिह

안파견 安巴堅 अर्हगप्रजापतकीअन



4.1 檀君王儉 दीवअमगन अरिहनगन 디브암간[칸] 아르한간[칸]

1) 檀君 दीवअमगन 디브암간[칸, 쿤]

- दीवअम 디브암 → 디으암 → 단[담] : 하늘

- गन 간[칸, 칸, 쿤] → 군 : 하늘, 해, 왕

2) 王儉 अरिहनगन 아리[르]한간[칸, 칸, 쿤]

- अरिहन 아리[리]한 → 으한 → 왕[완] : 위대한 사람, 성인

- गन 간[칸, 칸, 쿤] : 하늘, 해, 왕

1) दीवअमगन 디브암간[칸, 쿤] → 한자로 차음하여 檀君 단군

: 하늘에서 내려온 왕 (天王, 天子)

: 하늘에게 제사를 지낼수 있는 신권 통치자

2) अरिहनगन 아리[르]한간[칸, 칸, 쿤] → 한자 차음하여 王儉 왕검

: (인간세계) 를 다스리는 위대한 사람, 성인, 왕

→ 檀君王儉 은 “하늘에서 내려온 天王, 제사장이며(檀君), 인간세계 를 다스리는 위대한 사람, 성인, 왕(王儉)” 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4.2 馬立干 माहाअरिहगन 마하아리하간[칸]

- 1) माहा 마하 : 위대한, 큰
- 2) अरिहगन 아리하간[칸]
 - अरिह 아리[르]하 : 높은 사람, 왕
 - गन 간[컨, 칸, 쿤] : 하늘, 해, 왕

माहाअरिहगन 마하아리하간 → माहाअरिगन 마하아리칸

: 이의 발음을 漢字로 차음 표기하여 <馬立干>이 되었다.

※ <馬立干>의 뜻은 산스크리트어의 뜻에서 보듯이, “위대하고 높은 (해의) 왕” 을 호칭하는 이름이다.

4.3 居西干 क्षिअर्हगन 크시아르하칸

- 1) क्षि 크시 : 힘, 무력
- 2) अर्हगन : 아르하간[칸]
 - अर्ह 아르[리]하 : 높은 사람, 왕
 - गन 간[컨, 칸, 쿤] : 하늘, 해, 왕

क्षिअर्हगन 크시아르하칸 → क्षअगन 크[커]사아칸

: 이의 발음을 漢字로 차음 표기하여 <居西干> 이 되었다.

※ <居西干> 의 뜻은 산스크리트어의 뜻에서 보듯이, “무력 또는 힘으로 지배한 위대한 왕” 이라는 의미가 있다.

4.4 尼叱[師]今 ऋषीरअर्हगन 니질[시,사]금

- 1) ऋषीर 리시르 : 신선, 현자
- 2) अर्हगन : 아르하간[칸]
 - अर्ह 아르[리]하 : 높은 사람, 왕
 - गन 간[컨, 칸, 쿤] : 하늘, 해, 왕

ऋषीरअर्हगन 리시르아르하칸 → ऋषीरअगन 이시르아칸

: 이의 발음을 漢字로 차음 표기하여 <尼叱[師]今> 이 되었다.

※ <尼叱[師]今> 의 뜻은, “덕망있는 賢者와 같은 위대한 왕” 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는 뒤에 <조승(임금)>으로 표기되기도 한다.

4.5 次次雄 चछग्न 차차칸[쿤]

- 1) चछ 차차 : 칼로 자르다
- 2) ग्न 간[컨, 칸, 쿤] : 하늘, 해, 왕

चछग्न 차차칸 → चछग्न च차कुन [웅]

: 이의 발음을 漢字로 차음 표기하여 <次次雄> 이 되었다.

※ <次次雄>은 "칼, 무력으로 다스리는 위대한 왕"이라는 의미이다.

4.6 堅吉智 कीअन गुरु चि किअनकु[기]루[르]지

- 1) कीअन किअन : 하늘, 언덕
- 2) गुरु कु[기]루[르] : 현자, 스승
- 3) चि 지[치] : 지도자, 왕

कीअन गुरु चि किअनकु[기]루[르]지

: 이의 발음을 漢字로 차음 표기하여 < 堅吉智 > 가 되었다.

※ < 堅吉智 >는 “ 하늘과 같은 현자의 덕망이 있는 지도자”
라는 의미이다.

4.7 於羅下 अरिह 아[어]리[르]하

अरिह 아리[르]하 : 위대한 성인, 높은 사람

अरिह 아리[르]하

: 이의 발음을 漢字로 차음 표기하여 < 於羅下 > 가 되었다.

※ < 於羅下 >는 “높은 하늘의 왕” 라는 의미이다.

4.8 安巴堅 अर्हगप्रजा(पत)कीअन 아르한프라자(파티)키안

- 1) अरिह 아리[르]하 : 위대한 성인, 높은 사람
- 2) प्रजा(पत) 프라자(파티) : 하늘, 하늘의 왕, 하느님

अर्हगप्रजा(पत)कीअन 아르한프라자키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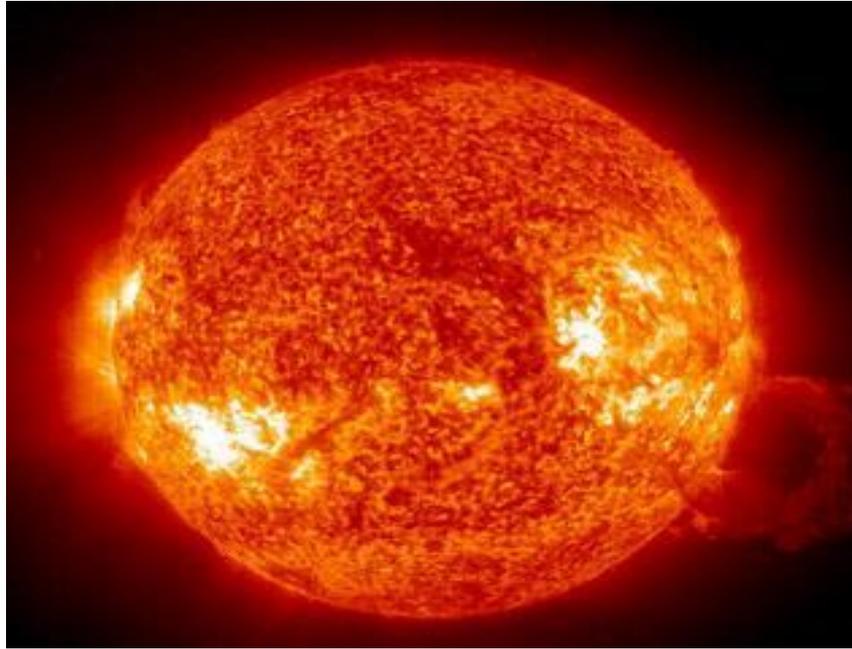
: 이의 발음을 漢字로 차음 표기하여 <安巴堅> 이 되었다.

※ <安巴堅>은 “위대한 최고 통치자인 하늘의 왕, 하느님 (天王, 天皇)” 이라는 의미이다.

5. 맺는 말



고대국가 및 군주호



1. 고대국가 이름 및 그 뜻은 산스크리트어 “해”와 관련된 <सरवसकतरम 스라바스까[카]트람 : 해가 떠오르는 언덕(벌, 들, 나라)> 에서 찾아볼 수 있다.

※ 桓 वकतरा 바 ㄱ ㅍ ㄹ , (古)朝鮮 असदल 아스트 ㄹ , 扶餘 पउरय, 高(句)麗 खोकुरि, 百濟 वखतिर बा ㄱ ㅍ ㅈ ㅊ ㅊ ㅊ 에 , 新羅 सिला , 加耶 घारा[य], 勃海 वालगै, 契丹 खरम, 蒙忽 महनखोल, 高麗 खोरि 등.

2. 고대국가 군주호 및 그 뜻은 산스크리트어 “하늘” <दीवअम 디브암: 하늘> 과 “높은 聖人, 해”와 관련된 <अरिहगन 아르하칸> 에서 찾아볼 수 있다.

※ दीवअमगन 디브암칸 檀君 अरिहनगन 아리[르]한칸 王儉 왕검 등.

【한일관계사학회 보고사항】

1. 2025년 학회 월례발표회

- 제217회 월례발표회 : 2025년 3월 8일(토)
- 제218회 월례발표회 : 2025년 5월 10일(토)
- 제219회 월례발표회 : 2025년 6월 14일(토)
- 제220회 월례발표회 : 2025년 9월 13일(토)

2. 《한일관계사연구》 89집 발간

- 《한일관계사연구》 87집이 2025년 2월 28일자로 발간되었습니다.
- 《한일관계사연구》 88집이 2025년 5월 31일자로 발간되었습니다.
- 《한일관계사연구》 89집이 2025년 8월 31일자로 발간되었습니다.
- 《한일관계사연구》 90집은 2025년 11월 30일자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논문 게재를 희망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2달 전인 2025년 9월 30일까지 투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논문을 투고하실 때 심사비 6만원(심사자 3인)을 입금해 주시면, 심사비 입금확인 후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심사를 진행합니다. 논문게재비는 일반논문 10만원, 연구비수혜논문 30만원입니다.

3. 회비납부 안내

우리 학회는 선생님들이 납부하시는 소중한 회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신회비] • 일반회원 : 40만원(15년限) • 기관회원 : 50만원(15년限)

[연회비] • 일반회원 : 3만원 • 기관회원 : 4만원

• 학생회원(학부생&석사과정생) : 1만원

[계좌번호] 카카오뱅크 333333-1207166<예금주> 유채연